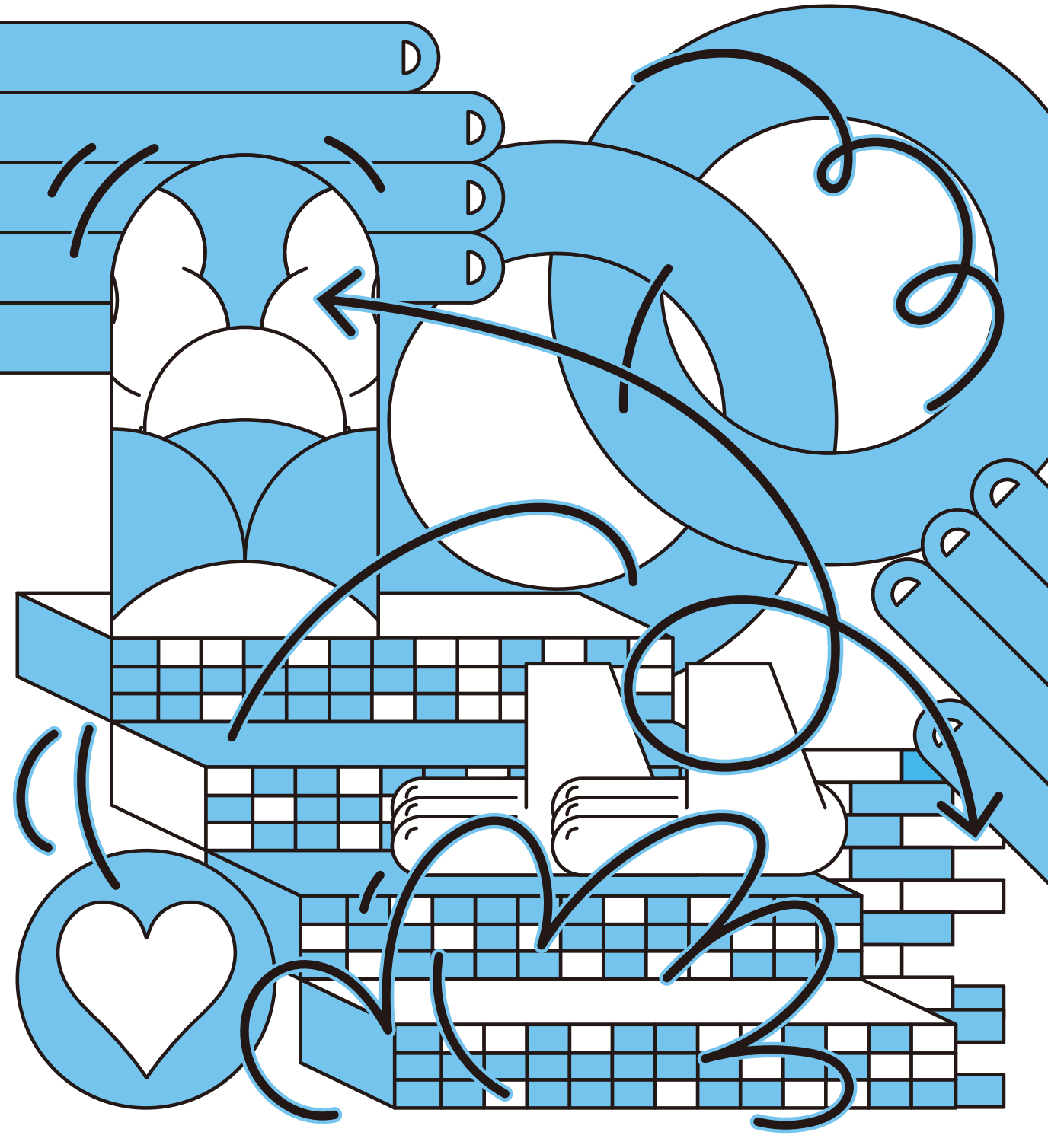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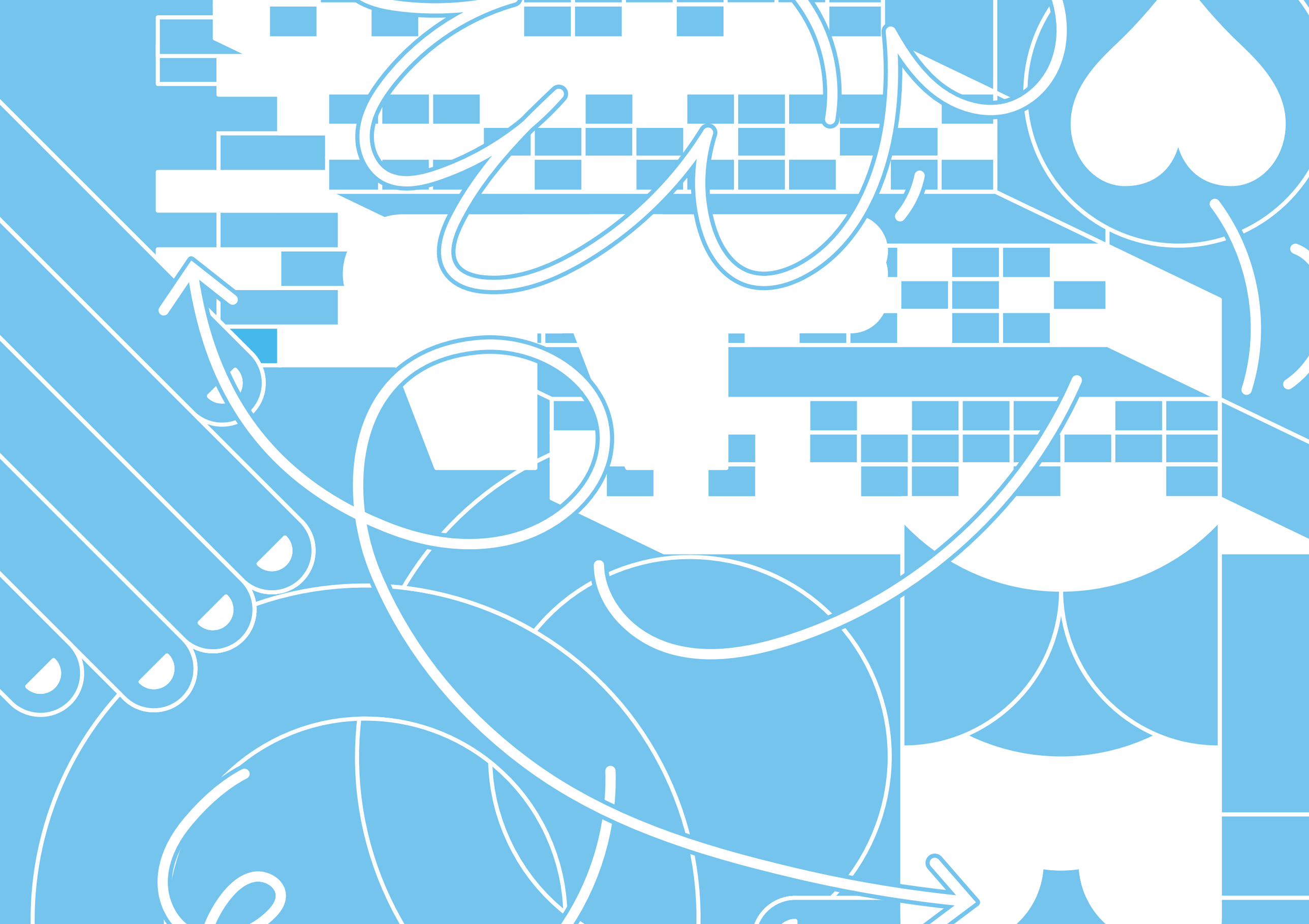
# 2025 이:음

ac.ieum.or.kr
전문예술교육

# 예술창작 아카데미





# 목차


| | | |
|---|---|---|
| **01** |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소개** | 3 |
| **02** | **프롤로그** | 4 |
| **03** | **교육과정 소개** | 6 |
| **04** | **한양대학교** | 8 |
| | 미술 분야 | 8 |
| | 문학 분야 | 82 |
| | 국악 분야 | 120 |
| | 무용 분야 | 136 |
| **05** | **광주교육대학교** | 156 |
| | 미술 분야 | 156 |
| **06** | **에필로그** | 214 |
| **07** | **부록** | 219 |




#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및 전문예술교육 과정 소개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소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역량강화 및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등 장애예술 기반 확대를 위해 (비)장애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장애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는 교육목적과 참여대상에 따라 창작자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매개자 과정 총 3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과정**
장애예술인 대상 다양한 실험과 탐색, 공동창작 등 감각과 협업 기반 예술 교육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신진 장애예술인 대상 예술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 기반의 체계적인 장르별 예술교육 과정

**매개자 과정**
장애예술 창작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 기획, 교육, 접근성 관련 매개인력 양성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소개**
전문예술교육 과정은 신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학 연계 교육 과정입니다. 참여자는 전공 분야별 실기 수업과 이론 교육,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다지고, 자신의 창작 방향과 표현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수진 및 현장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개별 특성과 창작 성향에 맞는 성장을 지원하며, 동료 예술인과의 협업과 교류를 통해 예술 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 프롤로그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은 예비 및 신진 장애예술인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동시대 예술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예술교육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이들을 돌봄, 보호,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주체적인 창작자로서 이들을 만난다. 이에 각자의 감각과 경험, 신체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언어를 구축해 나가는 여정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위치한다.

포용적, 맞춤형 예술교육을 기반으로 한 본 과정은 예술가 개인이 마주해 온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개인의 한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교육과 창작, 실험과 교류의 과정을 통해 그 장벽을 다시 사유하고 건너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문예술교육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술 공동체와의 접점을 확장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20주차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기초 이론 교육, 창작 작업과 멘토링, 대학 연계 및 예술현장 경험, 발표와 공유 등 공통 교육과정, 창작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신진 장애예술인들은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익숙함과 낯섦의 경계 위에서 자신만의 예술적 질문을 발견해 왔다. 몸과 감각, 언어와 이미지, 소리와 움직임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펼쳐왔지만, 그 모든 시도는 예술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연결하려는 공통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 시간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감각의 '연결의 지점들'은 앞으로의 창작 여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 결과자료집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에서 이루어진 탐구와 실천의 기록이자, 또 다른 출발점이다. 여기에는 완결된 답보다 과정 속에서 생성된 질문과 흔적들이 담겨 있다. 각자의 예술 언어가 형성되어 가는 순간들, 서로 다른 시도들이 나란히 놓이며 만들어낸 긴장과 공명은 앞으로 이어질 창작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한양대학교는 앞으로도 신진 장애예술인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창작, 현장을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이 자료집이 그 여정의 한 장면으로 남아, 다음 단계의 창작을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책임연구원 **김선아**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2025 광주교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은 장애 예술가들이 전문 창작자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들 개별 성향에 맞춘 예술가 멘토링, 크리틱 중심의 수업을 바탕으로, 현대 예술에 대한 특강과 워크숍, 전시 관람, 융합 창작 기회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작가들의 작업 세계와 작업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출발해 작가 개인이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을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삼았다.

광주교대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에 참여한 신진 작가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법'을 배우기를 원했다. 그러나 창작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은 미술의 여러 새로운 언어, 매체, 현대 미술의 다양한 문법 등에 대한 노출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을 파악하고, 다양한 현매 미술의 매체와 방식들을 참여자들의 세계와 연결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은 10주간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장애접근성 확장 전시 공동 관람 및 비평 활동, 무용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는 신체 표현 수업, 공동 창작 워크샵, 공동 크리틱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나의 몸과 타인의 몸이 어떻게 예술적 경험과 표현의 매체가 되고, 주제가 될 수 있는지를 탐험해 보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들은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작업하고, 한정된 주제와 매체로 작업했던 장애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장애 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예술교육'을 통해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고 확장되는 것을 목표하였다. 이 결과 자료집은 광주교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지난한 성장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기록은 또다른 새로운 출발점과 가능성의 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2025 광주교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은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 과정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첫 번째로 시도된 전문 예술 교육과정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장애 예술 교육에 관한 인식과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라는 도시에서 광주교대 이음 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일차적으로 장애신진작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광주 지역의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고, 담론들이 형성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동연구원 **최성희**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자 과정(전문예술교육) 교육과정 소개

## 사업 핵심 가치

| | |
|---|---|
| **사회통합** | • 포용적 사회를 위한 장애인 대상 예술 교육 기초 마련 |
| **장애인 문화권** | •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 및 장애 예술 가치 확산 |
| **포용적 예술** | • 장애예술인 육성을 통한 포용적 예술의 지평 확대 |
| **창작자로서의 장애예술인 자기결정력 강화** | •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창작자로서 창작 실험을 통한 예술적 자기결정력 강화 |
| **장애예술교육 생태계** | •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네트워크 기반 협력 모델 |

## 교육 목적

| | |
|---|---|
| **포용적 사회통합 실현 도모** |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예술 인재 육성을 통한 포용적 사회 실현 도모 |
| **장애예술인 양성** | • 경계를 넘는 장애예술인 교육을 위한 창작 실험의 기회 제공 및 전문적 예술교육 기반 확대 |
| **역량 강화** | • 예술현장과의 연결을 기초로 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

## 교육과정 운영 전략

| | |
|---|---|
| **강점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 • '장애=결핍'의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br>• 신진 예술인의 강점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br>•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예술 형식을 만들어가는 성장과정 지원 |
| **다면적 지원 체계 구축** | • 장애 유형에 따른 개별적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br>• 참여자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에 기초한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
| **예술 현장 네트워크 기반 교육** | • 전문예술인으로 사회 진입 및 자립 능력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br>• 예술 관련 상급학교 진학, 공모전, 신진 작가 프로그램 등 실질적 정보 제공<br>• 참여 예술인 및, 전문 예술인과의 워크숍을 통한 관계 형성 |



## 교육과정 구성

| | |
|---|---|
| **공통 교육과정** | 기초 이론 교육을 통해 창작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장애예술 및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술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장<br>**장애의 이해 \| 장애예술의 이해 \| 통합예술의 실제** |
| **창작 교육과정** | 맞춤형 실기 교육을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숙련을 도모하고, 장르별 크리틱과 멘토링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br>**미술 \| 문학 \| 국악 \| 무용** |
| **특별 교육과정** | 다양한 상호 교류를 통해 장애예술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커리어 형성을 위한 기초 경험 제공<br>**대학 연계 \| 전문가 비평 \| 예술현장 체험 \| 발표(전시, 공연)** |

## HEAD Lab의 창작 교육

| | |
|---|---|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 교육과정 개발 방향: 강점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br>• 교육과정 운영의 중점: 매체 탐구를 통한 표현의 확장 및 관계적 예술 창작을 통한 개별화 교육 |
| **공간 및 기자재 지원** | • 분야별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 제공<br>• 교육장의 뛰어난 접근성 및 교육 환경<br>• 최적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과 소통 |
|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 | •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br>• 장애 유형별 학습 지원 |
| **아카이빙 및 환류** | • 창작 과정의 기록으로서의 아카이빙<br>• 전시, 공연 자료집, 결과 보고서 및 영상 제작 |
| **홍보** | • 사업 및 모집 홍보(온/오프라인 홍보, 기관 홍보, 언론사 홍보)<br>• 운영 홍보 |

## 기대효과

- 장애예술인의 전문 분야 진출의 교두보
- 장애예술, 생태계 확대 및 장애예술교육의 외연 확장
- 장애예술교육 전문 인력 및 후속 연구자 양성

2025 예술

#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자과정

(전문예술교육)



한양대학교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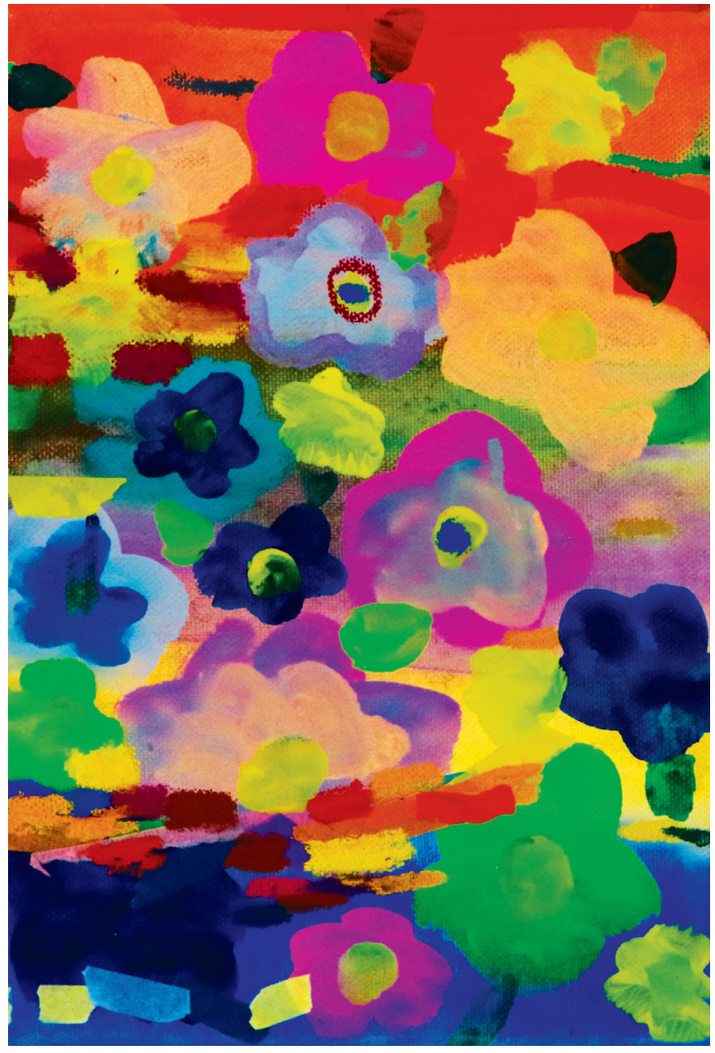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한양대학교

## 김서연

사랑과 성장을 주제로 따뜻한 감정을 그리는 작가이다. 다양한 색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색채 표현이 작업의 특징이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좋아하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림으로 세상을 밝히고 싶다.



**정원의 병 속에 든 꽃**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오일파스텔, 은박호일, 30×30cm**
이전의 사각 화면에서 주로 사용하던 가로·세로의 짧은 색선 대신, 원형화면과 닮은 물의 움직임을 발견하여 색이 스스로 회전하며 흐르는 듯한 움직임을 그 위에 떠 있는 유리병과 함께 표현했다.



**꽃풍선**
**2025, 페이퍼보드 위에 아크릴, 오일파스텔, 27.3×22cm**
이 작품은 '꽃풍선' 시리즈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가장 작은 크기의 작품이다.

## 예쁨 이후

**전문가 비평**

**이정주** 독립 큐레이터, 대각선연구소 대표

김서연의 작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자신이 믿어왔던 '예쁨의 공식'이 해체되고 감각이 재배열되는 순간에 있다. 작가는 평소 좋아하던 빨강 위에 싫어하던 초록을 올렸을 때, 예상했던 거부감 대신 이상하고 묘하게 흔들리는 기분을 경험했다. 싫을 줄 알았는데 좋았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면이 살아났다. 이 '간질간질함'은 단순한 색채 실험의 결과가 아니다. 자신이 견지해온 공식이 파열되면서, 감각이 새로 배열되는 순간의 신체적 징후였다.

이 감각의 흔들림은 화면 안에서 '경계'라는 개념적 문제로 이어진다. 작가는 경계를 가르는 일이 어렵다고 말한다. 하늘과 바다,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통해 대상을 재현하려는 고민은, 동시에 자기 감각의 안전지대를 향한 탐색이기도 했다. 작가는 오랫동안 노을, 꽃밭, 나비처럼 긍정적인 이미지와 따뜻한 색감을 통해 안전지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울타리는 동시에 넘어서야 할 한계이기도 하다. 다양한 재료를 다루면서도 무지개처럼 밝고 화사한 색을 반복적으로 선택해 온 것은, "그림은 예뻐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음 아카데미 수업은 이러한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흔들었다. 싫어하는 색을 쓰고, 큰 화면에 몸을 던지고, 완성된 그림을 뒤집어보는 경험이 쌓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예쁨이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연 속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발견의 정점에 '하늘 풍선 꽃' 모티프가 있다. 구름처럼 뭉게뭉게한 이 형태는 실제 꽃도 풍선도 아닌, 작가만의 독창적인 형상이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 꽃을 만들어내는 손의 리듬이다. 좌우 대칭 없이 풍선 하나하나를 따로 쌓아 올리듯 그리는 양손 드로잉은, 신체가 화면과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큰 붓으로 무지개색을 흘려보내 번짐과 흘러내림 같은 우연을 배경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위에 꽃, 나비, 캐릭터 같은 의도적인 형상을 신중하게 놓아 이전과는 다른 기온을 창출한다. 작품을 이젤에 세우고, 바닥에 눕히고, 뒤집어보며 멀리서 바라보는 과정은 그가 자신의 그림을 대상화하고 거리 두는 법을 배웠음을 의미한다.



김서연 작가는 재능보다는 태도를 말한다. 배우는 일과 반복하는 일이 자신을 작가로 만든다고 믿는,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태도다. 안전한 취향의 울타리를 넘는 경험들이 쌓이며, 작가는 점점 더 복잡하고 풍부한 감각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 모든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은, 빨강 위에 초록을 올렸을 때 온 그 찰나의 간질거림에 있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도희**

서연 작가의 '꽃풍선' 시리즈는 색채와 리듬, 그리고 생명의 호흡이 어우러진 회화적 여정이다. 작가는 연필 스케치를 바탕으로 점묘처럼 색의 조각을 병치시키며, 색면과 색점의 밀도 차이를 통해 깊이감 있는 화면을 구축했다. 꽃잎과 다리의 색띠는 시선을 위로 이끌고, 다리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 색면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화면의 중심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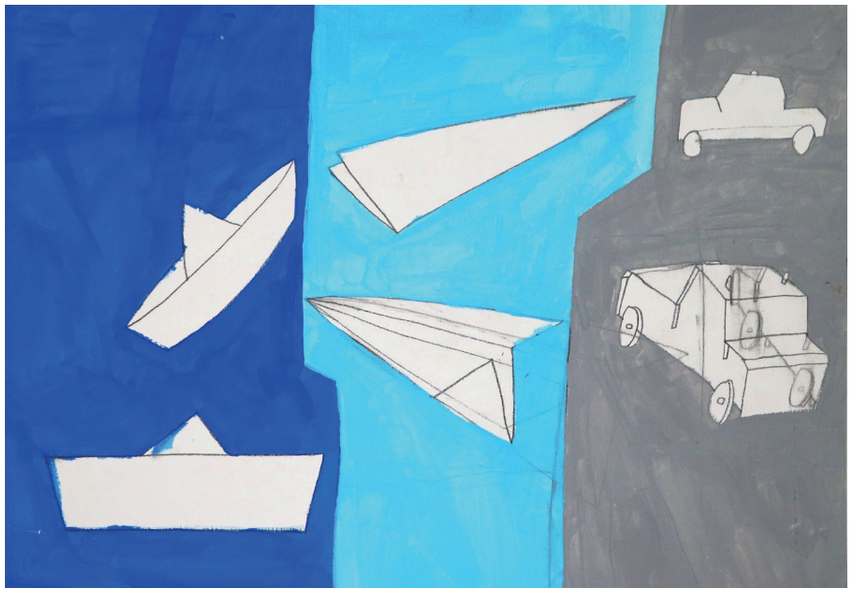
보색 대비와 색의 다채로움을 세심하게 조율한 결과, 색띠와 색면은 진동하듯 어우러지고 화면 전체에는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가 감돈다. 유연한 곡선들이 리드미컬하게 배치되며, 꽃들이 공기 속에서 가볍게 떠오르는 듯한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투명하게 중첩된 배경의 색들은 바람결처럼 흐르며, 꽃다발과 자연의 흐름이 하나로 엮인 생동감 있는 구성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번 원형 회화에서는 이전 사각 화면에서의 가로·세로 색선 대신, 원형 속에서 색이 스스로 회전하고 흐르는 듯한 새로운 움직임이 발견된다. 그 중심에는 마치 어린 왕자의 장미를 연상시키는 유리병 속의 꽃과 상자 속의 꽃이 자리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투명한 공간 안팎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꽃풍선'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가장 작은 화면 속에서 서연 작가는 색의 농도와 붓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율하며 한층 성숙한 감각을 보여준다.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색의 선택과 터치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투명한 시선과 타인과 소통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다.

## 김성찬

조금은 서툴고 다름이 있으나, 그 나름의 개성과 그림을 그릴 때의 즐거움을 찾아간다. 드러나지 않는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주는 그림을 그린다. 느리면 느린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오늘도 세상을 그려 가는 작가.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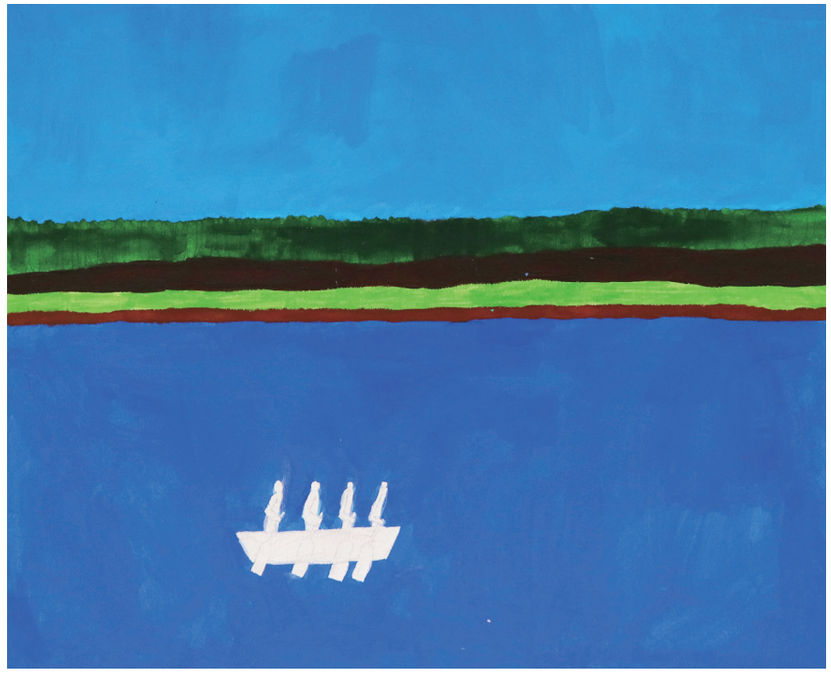


**종이로 만든 탈 것**

**2025, 페이퍼 보드 위 연필, 아크릴, 38×55cm**

이 그림은 김성찬 작가가 첫 수업 날,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백지 위에 떠올린 이미지를 그대로 그린 작품입니다.
종이배, 종이비행기, 종이 자동차를 여러 각도에서 연필로 그리고, 각각의 탈것에 맞게 화면을 물(짙은 파랑), 하늘(연한 파랑), 도로(회색) 세 구역으로 나누어 배경을 채색했습니다.
단순한 종이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작가에게 그림 속 탈것들은 다시 한 번 먼 곳을 여행하게 해주는 통로처럼 보인다.
그리고 형태와 배경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배·비행기·자동차가 작가의 기억 속에서 이미 또렷한 패턴과 고정된 색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김성찬 작가가 세계를 떠올리고 정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림=여행하는 탈것'이자 먼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주는 것이라는 은유를 잘 보여준다.





**호수 풍경**

**2025, 종이 위 연필 아크릴, 38×55cm**

호수 풍경을 기억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은 수평선 구조로 나뉘며, 아래의 넓은 파란색 면은 물을, 그 위의 초록과 갈색 띠는 숲과 땅의 층위를 나타냅니다. 색의 구획은 단순하지만 경계가 선명해, 작가가 세상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정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중앙 하단의 흰색 배와 그 위의 네 사람의 형상입니다. 인물들은 세부 묘사 없이 마치 흰 종이처럼 간결한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 장면은 마치 풍경 속의 시간 한 조각처럼 고요하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전 작업 〈종이 탈것〉과의 연속성 속에서 보면, 이 그림의 배 또한 '기억 속에서 여행하는 상상적 탈것'으로 읽힙니다. 현실의 구체적 풍경이라기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질서 있게 정리된 색면의 세계와 그 안을 건너는 작은 인간의 존재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초현실적이며 단순하고 고요한 세계가 김성찬 작가의 개성을 더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리된 세계, 흔들리는 경계

**전문가 비평**

**이정주** 독립 큐레이터, 대각선연구소 대표

김성찬의 화면은 질서를 향해 있다. 몽마르트 거리, 그랜드 캐니언의 암벽,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약-모든 것이 선과 면으로 구획되고, 제자리를 찾아 안착한다. 작가에게 세계는 받아들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정리되어야만 가까워지는 구조다. 그는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이 정밀함은 단순한 재현 능력을 넘어선다. 무작위로 흩어지는 것들을 안정적인 구조 안에 정착시키려는 내적 요구다.

이러한 성향은 이음 아카데미 단체 수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지를 이어붙인 긴 화면에서 단 한 칸만을 선택해 파란색을 반복해서 칠했다. 화면 전체로 확장하는 대신,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를 구축했다. 균질한 색면을 만들기 위해 덧칠을 거듭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생긴 얼룩과 흔적이 오히려 바다의 자연스러운 결을 만들어냈다. 칠해진 파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가보았던 혹은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장소를 향한 통로였다.

김성찬에게 그림은 여행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가 그리는 대상은 가보았거나 가고 싶은 장소들이며, 그림은 먼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주는 '종이 탈것'과 같다. 첫 수업 날 아무 자료 없이 백지 위에 떠올린 종이배, 종이비행기, 종이자동차는 세계를 정리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통로이자, 기억 속에서 여행하는 상상적 이동의 궤적이다.

그러나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과 기억으로 그리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사진 없이 기억만으로 그린 호수 풍경은 수평선으로 나뉜 색면 구조로 질서 있지만, 중앙 하단의 흰색 배와 네 명의 사람 형상은 세부 묘사 없이 종이처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장면은 구체적인 풍경이라기보다, 그의 기억 속에서 정리된 색면의 공간이다. 멘토 김도희는 여기서 '초현실적인 느낌'을 발견했고, 작가 본인도 "제일 어려웠다"고 고백했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김성찬만의 목소리가 드러났다.

마지막 수업 날, 작가는 오랜 시간 들여 완성한 세밀한 그림들 사이에서 바다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느낀 자유와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이전까지 풍경이 외부 세계의 재현에 가까웠다면, 이 작업에서 바다는 기억의 잔해 위에 다시 세워진 이미지다. 균질하게 덮으려던 물감은 뜻밖에 파도의 결처럼 흐르고, 통제하려 했던 행위가 역설적으로 우연을 불러들이며 화면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다. 작가의 정밀함은 분명 재능이다. 그러나 정밀함이 유일한 작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망치는 경험, 사진 없이그리는 시간, 우연적인 얼룩을 받아들이는 여유다.

이 단단한 구조는 어디까지 열릴 수 있을까. 통제의 회화는 어디에서 자유의 회화로 전환될까. 화면에 스며들기 시작한 이 미세한 흔들림은, 작가를 어떤 곳으로 데려갈 것인가. 다음 풍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성찬의 회화가 이제 '정리된 세계' 너머를 향해 천천히-그러나 분명히-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도희**

김성찬 작가의 작업은 '구획하고 채워 가는 행위'로 보인다. 여러 칸으로 나뉜 골판지 중 한 칸을 고르고, 짙은 파랑을 겹겹이 올리며 화면을 완성해 가는 모습은 작가 특유의 정리된 회화 방식을 보여준다. 덧칠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흔적들은 오히려 바다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 위에 단순한 형태의 고래와 물고기를 배치하며 기억 속 바다를 만들어 낸다. 이번 작업은 특히 처음으로 사진이나 자료 없이 순수한 기억과 감각에 의존해 그린 그림으로, 단순한 형태 속에서도 솔직한 회화적 자유가 느껴진다.

풍경을 그리는 방식 역시 구조를 나누고 패턴을 정리하는 작가의 성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분홍색 건물, 줄무늬 어닝, 숲의 대비, 보도블록의 칸, 창문의 형태는 모두 사진보다 더 정제된 색과 질감으로 재탄생하며, 몽마르트 같은 풍경도 작가를 통과해 고요한 아침의 장면처럼 정돈된다.

김성찬 작가에게 '탈것'은 단순한 종이 장난감이 아니라, 기억 속 세계를 이동하게 하는 매개체에 가깝다. 배·비행기·자동차는 늘 유사한 색과 패턴으로 등장하며, 작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상징으로 보인다. 특히 흰 배 위의 네 사람처럼 단순화된 인물들은 초현실적이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작가의 내면 풍경을 건너는 작은 존재처럼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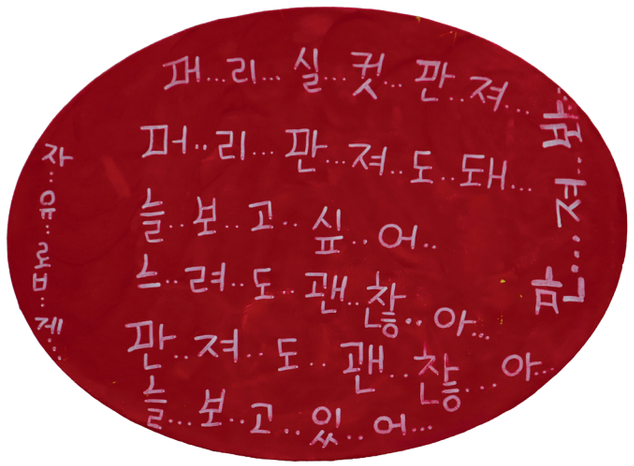
결국 김성찬 작가의 그림은 실제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질서 있게 재구성된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다. 구획된 색면, 단순한 형태, 고요한 탈것의 조합은 작가만의 감각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그가 세계를 바라보고 정리하는 고유한 방식을 보여준다.

## 민소윤

일상 속 장면과 사물을 유머와 상상으로 전환해 표현한다.
낯익은 것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며,
언어유희를 이미지로 바꾸어 내고 자기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나무늘보: '늘' 보고 있을게 시리즈**
**머리 만져도 돼**
**2025, 골판지, 나무액자, 아크릴, 73×104cm**
**2025, 캔버스 위에 마카, 아크릴, 20×30cm**

## 쌓이는 빨강, 겹치는 말들

**전문가 비평**

**이정주** 독립 큐레이터, 대각선연구소 대표

빨강이 쌓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골판지 위에 물감이 겹쳐질 때마다 색은 무거워지고 표면은 울퉁불퉁해진다. 민소윤의 손이 화면 위를 지나간 자국은 매끈하지 않다. 그것은 '칠해진 것'이라기보다 '축적된 것'에 가깝다. 아이패드 위에서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을 색으로 메우던 정갈한 질서와는 전혀 다른 물성이 이곳에 있다. 골판지는 이미 표면을 가지고 있고, 물감은 그 위에 안착하지 못한 채 미끄러지거나 뭉친다. 그러나 그는 이 불안정한 지지체 위에서 오히려 자유로워 보인다. 스케치 없이, 선 없이, 색으로만 밀고 나가는 이 회화는 완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쌓여가는 시간 자체를 가시화한다.

나무늘보가 그 시간의 중심에 있다. 광고에서 본 캐릭터가 민소윤의 그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차용을 넘어선다. 나무늘보는 그에게 '친구이자 상담자'이며, '무서울 때 도와주고 말을 들어주는 존재'다. 작가는 나무늘보와의 대화를 기록한다. 그가 말을 걸면, 나무늘보가 대답한다. 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형상화된 존재이며, 이 대화는 자기 자신과 맺는 일종의 협상이다. 낯선 소리, 공사 기계음, 예기치 않은 소음-이 모든 것이 위협처럼 다가오는 현실에서, 나무늘보는 속도를 늦추고 거리를 조절하며 불안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매개자가 된다.

민소윤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는 언어다. 동그란 캔버스의 말풍선 안에 놓인 짧은 문장들은 이미지와 동등한 무게를 갖는다. "늘 보고 있다"와 "늘 보고 싶다"는 나무늘보의 시간과 '늘'이라는 시간 부사를 겹쳐 놓은 말놀이이자, 존재의 지속성에 대한 바람이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상호성, 그 시선의 교환 속에서 비로소 안전한 거리가 확보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안전이 곧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낯선 존재가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이 한 무리가 되는 장면"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와 같은 말들이 반복될 때, 그의 그림은 위로의 공간을 넘어 작은 공동체를 상상하는 장이 된다.

형식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결정적이다. 태블릿과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하며 선을 그리고 색을 채우던 방식은, 이음 아카데미 수업을 거치며 두꺼운 물감과 커다란 화면, 원색의 덩어리로 이동한다. 한쪽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에게 작은 화면과 가는 선은, 대상을 드러내는 도구라기보다 오히려 시야를 더 좁히는 틀에 가까웠을 것이다. 나무판과 골판지라는 거칠고 이미 색이 밴 지지체 위에, 스케치를 최소화한 채 물감을 여러 겹 겹쳐 올리는 행위는, "칸을 메우는" 그림에서 "색으로 밀어 넣는" 회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잘 연마된 일러스트적 방식에서 벗어나, 물감의 질감과 두께, 손의 속도에 몸을 맡기는 경험은 회화를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형성 중인 과정'으로 다시 인식하게 만든다.

이 전환은 '순진무구함'이나 '치유의 서사'와는 다른 궤적을 그린다. 민소윤의 작업은 이미 충분히 학습되고 세련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질문은 "못 그려도 된다"가 아니라, "정답처럼 굳어진 이미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이다. 나무늘보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머뭇거리지만 멈추지 않고,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기 리듬을 유지하며, 혼자이면서도 늘 누군가와 대화하는 이 존재는, 작가가 발명한 친구이자 그가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다. 그 태도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고, 포근함은 도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그의 그림은 감각의 과부하 속에서도 다시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다. 그리고 그 응답은, 빨강의 겹침 속에서, 말풍선의 짧은 문장 속에서, 멈추지 않는 손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도희**

민소윤 작가는 동물 그리기를 좋아하며, 이들의 이름에 유머러스한 말을 덧붙여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구성하곤 한다. 소리나 자극에 예민하고 쉽게 놀라는 작가에게 나무늘보는 느리지만 다정한 존재,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늘 보아주는' 친구와도 같은 상징이다.

이번 그림에는 서로 상반된 성격의 두 나무늘보, '만지지 마'와 '만져도 돼'가 등장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마음속 양가 감정을 작가 특유의 위트와 생명감으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강렬한 원색과 과감한 터치는 감정의 복잡함을 생동감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 내며, 액자 위까지 그려진 형태는 화면 밖으로 뻗어 나가는 듯한 힘을 전한다.

그동안 작가는 자신의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마카나 아크릴로 매끈하게 색을 채우고 검은 선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스케치 없이 물감을 직접 쌓아 올리며 회화적 즉흥성과 밀도를 탐구했다. 두껍게 이어지는 붉은 선들은 뚜렷한 경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된 뜨거운 생명체의 흐름처럼 느껴진다.

시력이 약한 작가에게 원색은 가장 또렷하게 다가오는 생명의 색일지도 모른다. 이번 작업을 통해 그는 자신의 유머와 감정을 이전보다 깊이 있게 담아내며, 앞으로도 회화적 에너지의 확장을 충분히 기대하게 한다.

민소윤 작가는 특별한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림을 그리면서도 대상에 완전히 몰입한 배우처럼 말을 건넨다. 글을 눈으로 읽어도 그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한 친근한 울림이 있다. 이번 나무늘보 시리즈의 원형 캔버스에 쓰인 문장들은 그림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청각적 말풍선 회화'로 기능하며,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넘나든다. 민소윤 작가가 세상을 느끼고 소통하는 이 독창적 회화 세계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 김태민

산과 나무, 꽃과 선인장, 동물 등 다양한 생명체가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아내며, 자연적인 소재들을 특유의 거침없는 붓 터치와 과감한 색의 배치를 통해 더욱 돋보이게 표현한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형태와 작가만의 독특한 색감이 어우러져, 자연 속 흐르는 물줄기의 자유로움을 닮은 순수한 작품들이 탄생한다.

**헤엄치는 거위**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25×25cm**

머릿속에 모아둔 기억의 이미지를 화면에 그렸던 전의 작업과는 다르게 실제 생생한 거위의 이미지를 참고하면서 그림에 임했다.
물장구치는 거위와 헤엄치는 거위는 같은 거위의 이미지를 그렸음에도 그날그날의 기분과 컨디션 여러조건들에 따라 상당히 다른 거위가 완성되었다. 물빛에서 비치는 색감들이 켜켜이 쌓이며 독특한 점묘법의 방식이 재미난 기법이다.





**물장구치는 거위**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24.1×33.3cm**

**숲 속의 거위들**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45.5×53cm**



## 그 거위에 대하여

전문가 비평

**김미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행복해요"를 되뇌며 김태민 작가는 여러 점의 거위 그림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 하얀 거위 가족들은 그의 말처럼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작가가 그저 백색의 거위만을 그렸던 건 아니었다. 작가가 주로 사진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릴 테지만 거위는 실제로도, 사진으로도 완전한 흰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깃털 사이에는 잔먼지가 스며들어 있고 환경에 따라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날개의 안쪽 구조는 복잡하고 어두운 부분들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떤 작품 속 거위의 얼굴은 흰색이지만 몸통은 묵직한 회색이나 검은색에 가깝게 칠해져 있었고, 붓질은 거칠고 두텁게 쌓여 있었다. 한편 다른 그림에서는 눈이 유독 강조되며 그 존재감과 인상까지 드러났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거위 옆에 작가와 함께 앉아 있기도 했다. 거위와 무엇을 하냐고 묻자 대화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작가에게 거위는 더 이상 풍경 속에 놓인 대상이 아니라, 작가의 곁에서 무언가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다.

2024년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이전 작업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거위 연작은 확실히 다른 결을 지닌다. 작가는 자연 풍경, 자화상처럼 자신을 둘러싼 여러 대상을 그리기를 시도해왔다. 멘토 예술가(김민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형상 밖으로 과감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드물어 몇 가지 제안을 했고 올해 이음 프로그램에서 작가는 '거위'라는 하나의 대상을 중심에 두고 그를 여러 방식으로 변주해 보게 되었다.

작업을 보여주던 날 작가는 또 다른 거위를 그리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완성돼 보였지만 작가는 계속해서 회색의 붓질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더 닮게 그리려 한다거나 완벽한 재현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본 거위를 복기하고 거기서 발견한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작가가 '호수 위의 행복한 흰 거위'라는 흔한 이미지 뒤의 다른 무엇을 발견한 것이라 얕게 추측해보았다. 한정된 의미 안에서의 거위가 아니라, 빛과 물결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는 색과 결을 본 것은 아닐까, 혼자 그런 상상을 하며 반가움을 느꼈다. 회색, 푸른색, 때로는 어둡고 탁한 색까지 곁들여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거위의 형태와 분위기를 솔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림의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화면을 쌓아 올리는 일을 보는 건 늘 유의미하다. 김태민 작가가 앞으로도 또 다른 '거위'를 발견해 어떻게 우리 앞에 보여줄 것인지 기대하게 되는 이유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민이**

"참 잘했어요, 마르고 덧칠하기, 귀여워서 좋아해요."

귀여운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네 풍경과 여행에서 본 여러 가지 추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김태민 작가. 큰 종이에 아주 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한데 그려 보자고 하니, 그림들이 서로 얽혀서 길을 잃을까 염려해서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조심스레 자리 잡는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민 작가에게 나이프를 쥐여 주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으레 붓으로 칠하는 물감이었건만, 책상 두 개를 붙여야 할 만큼 큰 천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평소에 쓰던 붓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나이프로 칠해 봐도 좋아요."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크던 작품은 오로지 나이프로만 채색하여 완성하였다. 아무래도 그 여파였을까? 작가는 그 이후로 채색함에 있어서 과감해지고 물감을 쓰는 두께감도 깊어졌다. 어서 색칠하고 싶어서 스케치는 5분 만에 휘리릭 하고, 엄청난 몰입력으로 채색 과정을 즐겼다. 물감이 두터워지니 마르는 시간이 필요했고, 작품 4~5개를 동시에 펼쳐 두고 작품을 번갈아 가며 채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태민 작가는 밀도와 유연성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성실한 다람쥐 같았다.

김태민 작가는 동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하던 거위를 이번 작품의 주제로 선택했다. 이전 작업들이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의 이미지를 꺼내 그리던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거위의 생생한 모습을 참고하며 화면을 구성했다. 물장구치는 거위와 헤엄치는 거위는 같은 모델임에도, 작가의 그날그날 기분과 컨디션, 그리고 여러 조건들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과 분위기의 거위로 완성되었다. 물빛에 반사된 색감이 켜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김태민 작가 특유의 점묘적 터치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새롭게 드러난 흥미로운 기법이다.

거위 시리즈 중 유일하게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에서는 작가 자신이 거위와 마주하고 있다. 낙천적인 성향의 김태민 작가의 밝은 얼굴이 화면 속 거위를 응시하며, 동물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 폭신한 매력을 좋아하는 작가의 시선이 그대로 담겼다. 최근의 강렬한 터치와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 작가는 배경을 모노톤으로 절제하며 터치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인물을 강조한 점도 이색적이다.

## 박진한

우리 삶에서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는 참 중요하다. 희망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닐까? 여기, 별찌가 좋다이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통해 꿈을 살리고, 꿈을 이루고, 또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회색빛 전도사가 되면 좋겠다. 자, 이렇게 다리를 건너 여기 이음창작아카데미에 온 것이 꿈이었나? 아, 꿈이었구나. 그렇게 희망의 빛 GREEN, PINK로 이어졌다.

**자화상 2024**
**2025, 목재 위에 오일파스텔, 색연필, 사인펜, 34.2×28cm**







**자화상 2025**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색연필, 사인펜, 53×45cm**
어머니를 그리기 시작하던 작업은 어느 순간 나 자신으로 변신하였다.

## 끝없는 이야기 사이에서

**전문가 비평**

**김미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작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박진한 작가는 망설임 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의 말들을 따라가다 보니, 나는 자연스레 여러 가지 상상을 펼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좋은 예술가', 혹은 '멋진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포부를 명확히 말했으며, 진천과 청주라는 공간에서 구축해온 예술적 실천들,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작업을 이야기할 때의 그는 유난히 생동감 있었다. 말의 속도와 강약, 비유와 단상들이 겹겹이 쏟아져 나왔고, 짧은 만남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층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가 만들어 준 인상과 이미지들은 충분히 강렬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특히 그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별찌회' 프로젝트는 진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예술을 매개로 소통과 연대를 시도하려는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천이었다. 작가는 자신이 영향을 받아온 도시의 기억, 그리고 그곳에서 예술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며 활동을 확장해 왔다. 글을 쓰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여러 방식의 소통을 실험하는 과정은 그가 예술을 단지 표현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관계와 교류를 생성하는 매개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작가는 예술적 생산과 사회적 실천을 동등한 수준의 과제로 삼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업들은 이러한 작가의 여러 서사들이 중첩된 결과물이자, 그의 예술가적 욕망과 고민이 응축된 총체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고리와 천,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한 오브제 작업부터 자화상을 그린 회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세계는 다양한 형식과 감각을 통해 확장되고 있었다. 사물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동시에 그 사물들 안에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놓치지 않았다. 색채 사용에서도 실험적 태도가 돋보였는데, 회색·붉은색 계열·노란색 등 다양한 색이 등장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작가 고유의 정서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박진한 작가는 새로운 에피소드와 생각들을 계속 덧붙였다. 예술가의 세계가 단일한 정의로 포착될 수 없으며 끝없이 생성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그럼에도 그의 말과 태도에서는 마치 작업을 경유해 어떤 지점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함과 확신이 동시에 드러났다. 그는 '성공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희망을 숨기지 않았고, 그러한 열망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의 작업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민이**

'생거진천'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살아서는 진천에 산다는 뜻으로, 그만큼 진천이 살기 좋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매주 진천에서 서울을 오고 가는 박진한 작가는 진천을 알리는 데 언제나 열심이다. 작가가 스스로 리폼하거나 새롭게 해석한 모자와 베스트, 액세서리, 마스크마저 예사롭지 않은 패션 감각의 소유자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는 작가는 '별찌회'라는 예술 모임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전시도 보고, 작품도 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갈망한다. 박진한 작가는 다양한 수필과 그림, 그리고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담는 창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며 세상에 이야기를 걸고 있다.

작가로서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할 터. 나이가 들고 예술적인 지위 안에서의 좌표가 선명해지면서 이에 따른 고충도 있고, 예술로서 많은 이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도 놓치기 싫은 양가적이며 복합적 상태. 박진한 작가의 지속적 고민과 변화무쌍한 생각들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도 녹아난다.

[아! 꿈이었구나] 작업을 위해 큰 캔버스 천을 과감하게 잘랐다. 큰 화면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를 그려 보고 다시 다른 이야기로 첫 번째의 이미지는 덮이고 만다. 잠시의 시간을 두고 작품을 보러 가면 어느새 다른 작업으로 바뀌어 있다. 작가의 변화하는 생각들이 여러 차례 덮인 아크릴의 붓칠 속에 숨어 있는 작품이다. 바다를 지키는 등대지기였다가 어느 순간 호텔의 침대보로 변한다. 캔버스 천에 실수로 달라붙은 물감 덩어리마저 작품의 일부로 영구히 고정된다. 마지막 마침표로 박진한 작가가 리폼한 모자를 올려 두기로 하였다. 경직된 수평선들로 분절된 세계는 다시 물성적으로 침대보로 회귀되고, 무심하게 던져 둔 침대 위의 모자가 이야기를 다각화시킨다.

## 연호석

색채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작가로, 자연과 사물의 빛깔에 자신의 감정을 더해 독창적인 색과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대상의 재현보다는 순간의 감성을 빠르게 포착해 선과 면으로 단순화하며, 세련된 색감과 선으로 화면을 채운다.



**손 발 귀**

**2025, 판넬 위에 아크릴, 오일파스텔, 기타, 100×65cm**

이음 첫 주차 크로키 시간에 그렸던 신체 부위를 오려 재조립한 작품이다. 꼴라쥬의 구성부터 채색까지 주도하여 진행한 강렬한 작품이다.



**꽃이**

**2025**

**종이 위에 오일파스텔, 아크릴**

**27×19cm**



## 여기의 사물들

전문가 비평

**김미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멘토 예술가(김민이 작가)가 작가에게 화면에 담을 사물을 제안하자, 작가는 망설임 없이 오일파스텔을 사용해 그것을 그려내었다. 멘토 예술가의 제안에 바로 오일파스텔을 집어 들고 곧바로 종이 표면 위에 선을 얹거나 면을 칠한다. 이런 거침없는 드로잉이 가능한 이유는 그간 쌓아온 멘토 예술가와의 신뢰 관계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계산이나 주저 없이 그려낸 태도 속에서 이미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고유한 리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림을 생산하는 작가의 작업 방식을 증명하듯 수첩과 책상을 빼곡히 채운, 꽤나 많은 양의 드로잉들이 나를 맞이했다.

나무와 꽃을 좋아한다는 작가의 말은 스케치북 곳곳에 새겨진 이미지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작가는 자신이 마주친 생명과 사물들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록해 왔다. 꽃잎의 흐름, 나무의 모습이 나름 일정한 형식과 색,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작가는 오일파스텔 특유의 뭉툭하고 두터운 성질을 이용해 대상을 쌓아갔다. 자신과 가족의 모습에 꽃을 조합한 그림에도 여전히 길게 뻗은 보라색 잎이 두드려졌다.

사물을 빠르게 훑어 색의 덩어리로 인지하는 작가의 드로잉은 하나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대상과 마주한 순간부터 화면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결정하는 과정에 가깝다. 그는 가족과 자주 오가는 길에서 만난 꽃과 나무, 그리고 주변에 놓인 다양한 사물들을 뒤집어보거나 새롭게 배열하며 화면을 구성한다.

이처럼 화면에 기록할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선, 면, 색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드로잉은 작가의 시선이 지나간 경로이자 그가 본 세계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기록이 된다. 드로잉은 물론 멘토 예술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콜라주'도 흥미로웠는데, 그렇게 작가가 그렸던 부분들을 모아 한 화면에 구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그림에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민이**

연호석 작가는 자신에 대해 많이 알려 주지 않는 신비주의자다. 빵 조각을 따라 길을 찾아야 하는 헨젤과 그레텔처럼 나는 더듬더듬 작가가 주는 최소한의 힌트를 거대한 지도 삼아 창작의 항해를 함께한다.

작가에게 텅 빈 드로잉북을 하나 건네자 일주일 새에 그 안에는 꽃과 산과 나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무심한 듯 아름다웠다. 작가는 창작 스튜디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오일 파스텔을 꺼내 쉼 없이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 속도가 실로 엄청나서 드로잉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빠르게 종이를 바꾸어 가며 제공하는 것도 숨이 찰 지경이랄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종이에 그린 꽃과 사물, 간혹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중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를 그대로 전시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작가와 같이 앉아 드로잉들을 종이에서 잘라 내고 붙이고 조립하면서 하나의 더 큰 화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자주 그리지 않는다는 소중한 인물화를 화면에 살포시 올리고, 작가가 좋아하는 꽃과 버섯과 여러 가지 일상적 관심을 얹은 콜라주 작품들. 그 화면에는 엄마와 작가가 등장한다. 엄마가 등장하는 작품의 제목을 '꽃이 버섯'이라 지은 작가의 유머 감각이 흥미롭다.

[꽃이 얼굴] 작품에서는 연호석 작가를 둘러싼 청명한 초록색 배경이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그의 의식이 펼쳐진 듯한 공간을 만들며, 화면 전체에 맑고 생동하는 분위기를 더한다.

'꽃'을 이야기할 때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연호석 작가. 명사화하거나 문장을 마치지 않은 '꽃이'라는 단어 뒤에 작가는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은 것인지 여전히 궁금하다.

## 김다호

어릴 적부터 여행하며 경험한 풍경들은 자연스럽게 그림의 시작이 되었다.
그 경험들이 자유롭고 과감하게 표현하도록 이끌었고, 익숙한 표현에서
벗어나 색과 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힘이 되었다. 나의 그림은
평면적인 공간을 통해 물리적인 깊이보다 심리적인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의 작품을 바라보는 분들이 잠시나마 위로를 받거나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탈리아 피사의 탑과 조화로운 건축물**
**2025, 캔버스 위에 혼합 재료, 160×90cm**
롤 캔버스에 피사의 탑을 중심으로 여행지에서 보았던 건축물들을
나만의 시선으로 다양한 색과 형태로 재구성하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와 도구도 함께 활용하여 제작한
여행자의 세상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My world travel diary map**
**2025, 나무 판넬 위에 혼합 매체, 190×121.1cm**
'세계 여행 일기'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화면은 주관적인 경험과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재구성되었다.



## 화면 밖으로의 여행

전문가 비평

**이려진** 문화예술기획자

김다호 작가는 피사의 사탑을 거칠거칠한 캔버스 롤 뒷면에 가득 그려내는 것으로 이번 여정을 시작했다. 마주한 화면에는 그가 탐구해 온 '여행지 건축물의 인상'이 이전과는 분명 다른 리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빠르게 그어진 선의 경쾌함과 두껍게 쌓인 배경의 무게가 동시에 밀려왔는데, 이는 넓어진 화폭 앞에서 팔을 크게 휘두르고, 시야를 넓게 쓰고, 그림 앞에 오래 머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변화처럼 느껴졌다.

거대하고 화려한 사탑 앞에서 입을 딱 벌리자 김다호 작가가 옅게 미소 지으며 길 안내를 시작했다. 작가의 차분한 손짓을 따라 싱가포르 국기와 뒤집힌 느낌표를 구경하고, 여러 개의 구름과 태양을 지나 할리우드 사인 옆 에펠탑 근처에 다다르자 화면 밖으로 달려 나가는 말이 보였다. 여행지의 이국적인 건축물 사이에 등장한 병오년(丙午年, 2026년)의 붉은 말이라! "상상해서 그렸다."는 말에 유심히 살펴보니, 종이 보드에 따로 그렸던 말을 다시 캔버스 천에 오려 붙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말의 모양대로 잘라내고 남은 판지를 다시 조각내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새롭게 배치했다는 점이다. 말이 빠져나간 자리는 검은 추상의 단면이 되어 화면 곳곳에 흩어졌고, 작가는 그중 가장 큰 조각을 가리키며 '울산바위'라고 다시 이름 지어 소개하고 있었다. 화면 위 여행지의 과거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붉은 말의 미래가 함께 놓이는 사이, 콜라주를 처음 시도하는 작가의 수용과 발견, 그리고 놀이와 같은 즐거움의 흔적도 함께 쌓인 듯 보였다.

"아쉬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림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서로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칸쵸 쪽인지 감자칩 쪽인지 장난스레 웃으며 수다를 떨던 참이었다. 김다호 작가가 조용히 몸을 기울여 말을 건넸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는 나를 다시 그림 앞으로 데려가 화판 아래로 길게 빠져나온 캔버스 천을 가리켰다.

"화판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마치 오래 품어두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꺼내는 듯한 수줍은 얼굴로 나지막이 말했다. 작가의 '아쉽다'는 말은 역시 반갑다. 더 욕심이 난다는, 더 잘 해보고 싶다는 감정은 언제나 좋은 징후가 된다. 그 힘을 마음속에 굴리고 견디다가 반드시 다음 그림을 그리게 될 테니 말이다. 새해의 붉은 말이 네모난 화면을 박차고 삐져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어쩌면 끝없이 미래로, 그렇게 언제나 화면의 밖으로, 또 그다음으로, 지금은 알 수 없는 저 너머로 여행을 떠날 운명이니 말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두민**

김다호 작가의 〈My world travel diary map〉은 190cm에 달하는 대형 나무 패널 위에, 여행의 기억과 인상의 파편들을 겹겹이 쌓아 올린 거대한 '기억의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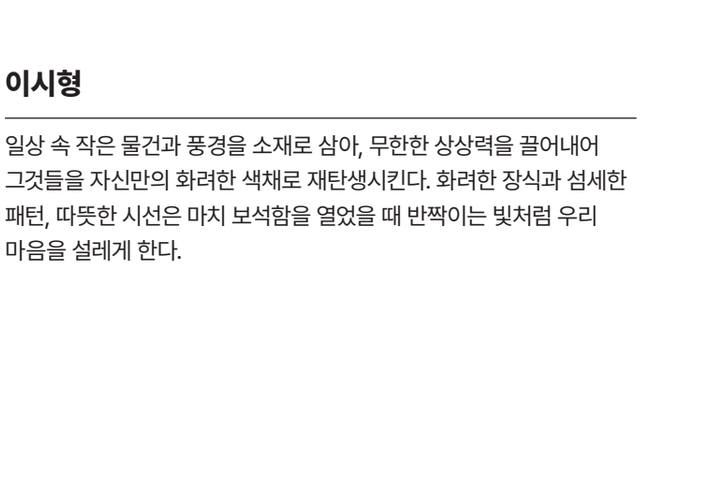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작가의 '세계 여행 일기'를 시각화한다. 화면은 지리적 정확성보다는 작가의 주관적인 경험과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재구성되었으며, 아크릴 마카·오일 파스텔·캔버스 조각·종이보드 드로잉 등이 혼합된(mixed media) 표면은 마치 두꺼운 스크랩북의 한 페이지를 확대한 듯한 질감을 보여준다.

화면 중앙에는 여러 문화권의 건축 양식이 뒤섞인 듯한 거대하고 환상적인 탑이 솟아 있고, 그 주변에는 'HOLLYWOOD' 사인, 에펠탑을 연상시키는 푸른 구조물, 싱가포르 국기, 말(馬)의 드로잉 등 특정 장소를 상징하는 기호들이 콜라주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작가의 기억 속에 각인된 상징적인 '좌표'들이다.

아이의 그림처럼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필치, 대담한 색채의 중첩은 여행이 주는 감각적 자극과 흥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결국 이 작품은 작가가 세상을 유랑하며 수집한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오직 작가만이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내면의 세계지도(My world travel diary map)'를 완성한 결과물이다.

## 이시형

일상 속 작은 물건과 풍경을 소재로 삼아, 무한한 상상력을 끌어내어 그것들을 자신만의 화려한 색채로 재탄생시킨다. 화려한 장식과 섬세한 패턴, 따뜻한 시선은 마치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이는 빛처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다.




**나의 하루를 디자인**

**2025, 캔버스 위에 혼합 재료, 45.5×53cm**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디자인'하듯 구성한 작품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마카, 50×50cm**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을 시각화한 '그림 일기'이다.

**나의 하루**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마카, 50×50cm**

나의 행복했던 하루를 공간에 따라 구분해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시각화해 구성한 작품이다.



## 이(異)세계로의 초대장

전문가 비평

**이려진** 문화예술기획자

"보시다시피, 제 별명이 물방울이거든요." K대학교 잠바를 입고 나타난 이시형 작가가 그림 속 자신의 머리 모양을 가리키며 씩 웃었다. 화면 한가운데에서 양팔을 활짝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캐릭터—작가 자신의 분신—가 눈에 들어왔다.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피곤해하는 소소한 하루가 짧은 웹툰처럼 이어져 있었다. 시야를 살짝 넓히자 이번에는 작가의 관심과 바람이 뒤섞인 상징들이 폭죽처럼 화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집 근처 G대학의 로고, 가고 싶었던 H대학의 슬로건, 이곳 한양대의 사자 캐릭터, 수강 신청 버튼과 대학생 전용 앱의 심볼까지, 작가의 시선이 머물던 세계가 그대로 펼쳐졌다.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튜브·틱톡 같은 플랫폼 아이콘, 네이버지도와 카카오톡 등 일상적 디지털 기호들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에 자리한 요소들 모두가 작가처럼 씩 웃고 있는 듯해, '과연 이곳은 이시형의 세계로구나!'하고 나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시형 작가의 그림은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고유한 장소다. 화면 곳곳을 가득 채운 상징과 이미지는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작은 우주의 위성처럼 작동하며 그의 일상과 취향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동경, 사람에 대한 애정은 상징으로 응축되어 화면 위에 별처럼 빛나고, 이는 마치 일상이라는 페이지에 스티커를 붙여 강조하듯, 보는 이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멘토 예술가 두민은 작가가 삶에서 발견한 반짝이는 것들을 더욱 힘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대형 콜라주 형식을 제안했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이 과정을 "꾸민다", "디자인한다"고 표현한 지점이다. 빼곡하게 오려 붙였음에도 남은 빈틈을 찾고, 다시 색을 채우고 패턴을 더하며 "조화롭게 했다"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작업의 방식뿐 아니라 삶의 태도로서도, 스스로 원하는 삶을 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꾸고 싶다는 의지가 비치는 듯했다.

이번 과정을 통과하며 작가의 화면은 온갖 선호를 모아 붙인 스크랩북이자 다이어리, 작가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모습으로 빅뱅을 맞이한 듯 보였다. 나를 둘러싼 세계를 긍정하고 사랑하려는 마음과 타인에게 건네는 자기표현의 즐거움이 눈앞에 틈 없이 쏟아진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의 화면이 필연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작가의 성장과 함께 끝없이 변화하고 확장될 '자라나는 세계'라는 사실이다. 이 세계의 다음 페이지가 어떤 조각과 색으로 채워질지 자연스레 기대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두민**

이시형 작가의 〈My own design character world〉는 제목 그대로, 작가가 직접 창조한 캐릭터들로 가득 찬 에너제틱하고 밀도 높은 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팝아트와 그래피티(graffiti)의 형식을 빌려 나무 패널 위에 크레용, 마커, 펜, 그리고 오려 낸 종이(cut-out) 등 다양한 재료(mixed media)를 과감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화면은 빈틈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맥시멀리즘(maximalism)'적 구성이 돋보인다. 작가의 자화상으로 보이는 안경 쓴 인물, 작가의 모교나 관심 학교의 심볼이나 마스코트로 보이는 캐릭터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운다. 이는 마치 작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억, 일상의 단편들이 캐릭터들의 세계와 한데 뒤섞여 폭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결국 이 작품은 작가의 '시각적 다이어리'이자 복잡다단한 '의식의 지도'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대중문화의 코드, 그리고 스스로 창조한 캐릭터들이 한데 얽혀 혼돈스러우면서도 강력한 생명력을 발산하며, 2025년을 살아가는 작가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거침없이 펼쳐 보인다.

## 이현우

일상 속에 섞여 있는 자연스러움을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하는 작가로, 선명한 색채와 자유로운 구성 방식을 통해 각 장면이 지닌 정서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작품 속에 그려진 아름다움을 회화적 언어로 표현하며, 관람하는 이들의 시선과 걸음을 붙잡아 다시금 작품을 마주보게 한다.

**무지개 눈 풍경화**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72.7×91cm**

계절의 경계가 허물어진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담아냈다. 웅장한 설산의 차가움과 대지의 따스한 생명력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며,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3색 3경**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50×50cm**

원형 캔버스라는 독특한 프레임 안에 서로 다른 세 가지 풍경과 색채를 조화롭게 결합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작가는 각기 다른 장소 혹은 시간의 기억을 하나의 화면에 몽타주(Montage) 하듯 재구성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 작품이다.

**한여름 남산풍경**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마카, 50×50cm**

자연(남산)과 문명(도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특유의 순수하고 밝은 색채로 기록한 작품이다.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 관람객은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남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 선명한 다음 풍경

전문가 비평

**이려진** 문화예술기획자

"여기는 남산타워예요." 캔버스 앞에 서자마자 이현우 작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홀린 듯 작가의 가이드를 따라 캔버스 안 풍경을 걷기 시작했다. 생기로 가득 찬 남산 꼭대기에서 알록달록한 도시 곳곳을 내려다본다. 노란 지붕의 나지막한 연립, 창문이 빼곡한 붉은 벽돌집, 오밀조밀 건물 사이사이 가로수가 한없이 푸르다.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서울의 여름이구나.'하고 숨을 돌릴 때쯤, 작가가 이제 "고향"으로 가보자고 시선을 끈다. 귀향길엔 코스모스가 한창이다. 불긋한 단풍나무 아래로 천천히 걸으며 가을 공기를 만끽한다. 어떤 길로 걸어도 결국엔 고향집에 닿을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 순간 눈이 부시다. 또다시 계절을 넘어 이번엔 설산이다. 하얗게 얼어붙은 기슭으로 무지개가 건너간다. 빈틈없이 찬 공기에 소름이 돋을 즈음 작가가 "오두막"을 소개하며 초원으로 이끈다. 꽃이 막 핀 걸 보니 다시 봄이다.

이현우 작가는 특유의 덤덤한 붓질로 선명한 장면을 그린다. 풍경, 정물, 인물 등 주제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화면 위에 단단히 붙잡는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표현하고, 빈틈없이 화면을 채우는 작가다운 고집도 있다. 멘토 예술가 두민은 이번 작업 과정에서 작가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익숙하게 채워내던 사각(四角)의 화면에서 비껴나가 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독 선호해온 아크릴 매체를 다르게 써보자는 것이다. 작가는 처음으로 '원형 캔버스'라는, 위·아래, 좌·우의 기준이 모호한 둥근 화면과 마주했다. 하늘과 땅의 위치가 제법 분명한 세 가지 풍경을 하나의 둥근 틀에 조화롭게 담아내기 위해, 작가는 캔버스를 빙글빙글 돌려가며 각각의 풍경을 임의로 합성하는 회화적 기지를 발휘했다. 이는 화면 안에 사

실적으로 묘사된 다른 장면들과 대비되며 예기치 못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작가의 유연함과 무던한 마음씨를 드러내 웃음 짓게 만든다. 또한 세 개의 캔버스를 하나의 커다란 화판에 붙이며 생겨난 필연적인 공백을 다시 채워가는 과정에서 작가는 멘토 예술가의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인다. 작가는 흰 구름을 붓으로 그려내는 익숙한 방식 대신, 물감을 화면에 튀기고 흩뿌리듯 더해 '마치 구름 같은 것'을 표현해 냈다. 낯선 기법을 용감하게 수용하며 실험해 나간 작가의 태도가 오롯이 그림에 담겨, 각각의 장면은 자유롭고 신비롭게 엮이고 해방감 있게 완성되었다.



멘토 예술가는 이현우 작가가 스스로 "도와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필요를 표현한 순간을 특히 인상적으로 기억한다. 작품 속 계절이 변하던 사이, 장면이 변하던 사이, 모든 여정 사이사이 낯선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 먼저 도움을 청하는 일, 서로 내어주고 기꺼이 받아준 일이 사이사이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점점, 분명하게 변화할 이현우라는 사람의 다음 풍경이 역시 기대된다.

## 멘토예술가의 말

**두민**

이현우 작가의 작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풍경을 하나의 화면에 콜라주하듯 결합해 독특한 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는 작가가 동시에 꿈꾸고, 경험하고, 상상하는 다층적인 세계, — '나의 빅픽쳐(My Big Picture)'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세 개의 풍경은 각각 독립된 장면이지만, 모두 푸른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의 큰 배경 속에 어우러져 있다. 배경에 흩뿌려진 흰색 물감의 스플래터링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작가의 창의적인 에너지이자 의식의 흐름처럼 느껴진다.

결국 '나의 빅픽쳐'란 현실에만 머무르거나 이상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 그리고 상상(또는 기억)이 함께 공존하며 '나'라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작가는 이러한 다층적인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온전한 '나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밝고 긍정적인 색채와 순수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 김상현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방식과 경험이 다르듯, 작가에게는 신경 다양성에서 비롯된 시선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일기처럼 그림에 담고, 그 과정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느낀다. 작품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찾기보다 함께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본 요나고의 다이센산**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25×25cm**
일본 여행에서 본 산을 그렸다.
붉은 색 기차가 지나가는 마을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차가 그려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우리 엄마와 같이 베트남의 나트랑 여행**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60×72cm**
가족과 함께 한 여행의 장면들이다.
유적지 장면에 수영하는 내 모습을 넣어서
유머러스함을 더했다.



# 거위는 하얗고 호수는 파랗다

전문가 비평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출퇴근이 즐거운 사람을 만났다. 회사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김상현은 회사 이야기를 하는 듯하면서 계속 출퇴근의 재미를 말했다. 석촌호수 덕분이었다. 그는 오전 8-9시 언저리에 2호선 잠실역을 나와 석촌호수를 지나쳐 회사로 들어간다. 그때 꽃잎이 흩날리는 석촌호수 위를 거위들이 평온한 표정으로 헤엄친다. 그는 회사에서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점심쯤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역시 석촌호수를 지난다. 가끔 수족관이나 도서관도 들른다. 이러한 일상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그의 밝은 표정과 그림 속에 가득하다. 그가 어떤 업무를 할까,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일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궁금함은 너무 일반적인 질문 혹은 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현재 삶에는 회사의 일만 덩그러니 놓여있지 않다. 오히려 일은 다채로운 일상 여행 사이에 일부분으로 존재한다. 여행 전반이 평화롭고 즐거우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기도하다.

그는 실제로 여러 장소나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경험도 여행하는 것처럼 즐기는 듯하다. 아쿠아리움에서 열대어를 봤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절을 구경했던 것처럼, 호텔에서 수영을 했던 것처럼, 출퇴근길에 여행하듯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즐긴다. 그래서 작품 속 이미지는 그의 복잡한 해석을 거치지 않는다. 거위는 하얗고 호수는 파랗다. 바다사자는 검고 불가사리는 빨갛다. 이미지와 이미지가 미묘한 화면 구성,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보다 있는 그대로 작품에 담겨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겐 의미가 충분한 것이 아닐까. 더 사실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다이내믹하게 무언가를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의 일상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위는 하얗고 호수는 파란 것이 아닐까. 그는 여행하는 기분을 그림에 담아 내기 위해, 혹은 그 기분으로 그림도 그리기 위해 미세한 표현 기법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애써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림 속에는 분명함과 동시에 둥굴둥굴한 마음이 보인다. 그가 석촌호수를 지날 때 품었던 마음이 호수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

그는 앞으로 비디오테이프를 그려보고 싶다고 한다. 동물과 풍경을 그리다가 갑자기 비디오테이프라니. 시각예술가로 활동하려면 좀 더 일관된 표현 주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 미술계에서의 활동 전략 같은 것을 괜히 '어렵게' 떠올리다가 '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한다. 다시, 거위는 하얗고 호수는 파랗다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 멘토예술가의 말

**전진경**

김상현 작가의 작품은 출근길 풍경에서 시작된다.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온 작가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석촌호수를 걷는다. 아침 출근길의 한 장면이다.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머물고, 결국 그 풍경을 그림으로 옮긴다.

퇴근길에는 수족관이 있는 장소에 들러 유리 너머의 바다 생물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세상을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가끔은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며 조용한 휴식을 갖기도 한다.

김상현 작가는 이처럼 자신에게 평화롭고 잔잔한 시간을 그림으로 담는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그림을 마주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느끼게 된다. 작가의 성실하고 다정한 마음, 그리고 그로부터 번져 오는 평화로움을.

## 정연우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나의 작품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평범한 하루의 장면을 중심으로, 색감과 질감, 형태의 조화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익숙한 공간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자신이 바라본 세상의 따뜻한 순간들을 관객과 나누고자 한다.

**수박축제를 보며 재미있는 공연을 보는 아이들과 미니 특공대**
**2025, 색지 위에 콩테, 30×40cm**





**빛나는 전등과 많은 사람들**
**2025, 종이 위에 목탄, 콩테, 연필, 65×53cm**
핸드폰에 저장된 수 많은 사진들을 지우기 위한 그림이다.
20장에 가까운 사진 속 풍경들이 한 그림에 종합되어 있다.

## 그리기로 지우기

전문가 비평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평면 작업 안에 여러 이미지가 넘쳐나면 그것의 의미와 서사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서 정연우에게 묻고 또 물어봤다. 이것은 무엇을 그린 것인지, 왜 그린 것인지. 그런데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이미지 하나하나가 상징, 의미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을 그리는 과정이었다. 그는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을 가거나 일상에서 어떤 풍경을 마주했을 때 사진을 찍곤 했다. 그에게 누군가 사진을 찍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에 사진 파일이 많아졌다. 정연우의 기준에서 '너무' 많아지기도 했다. 그래서 사진을 지울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과정에서 회화 작업이 하나의 공정처럼 등장했다. 지울 사진을 선택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진을 그림으로 옮기고 나면 휴대폰에 넘쳐나는 사진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과정에서 멘토의 제안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그의 일상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정연우만의 작업적 스토리이기도 해서 멘토가 이러한 작업 방식을 적극 권유한 것이다. 정연우도 가득 찬 사진첩을 마주하며 그렇게 그리면서 지우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창작 과정을 바탕으로 그의 작업 결과물을 다시 살펴보면 질문이 생긴다. 그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 한 장을 하나의 화면에 그대로 옮겨 그렸을까. 그렇지 않다. 일단 어떤 이미지나 인물, 혹은 사물을 선택해서 화면 어딘가에 그린다. 그다음에 무엇을 그릴지 사진첩을 다시 본다. 단지 사진첩의 다음 사진을 그리지는 않는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놓인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면 테이블이나 음식 사진을 선택한다. 적당히 소재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날의 기억과 경험이 조각들이 되어 하나의 장면을 채운다. 실제로 그는 '여기가 비어서 채우려고' 무언가를 선택해 그렸다고도 했다.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은 디테일한 묘사, 복잡한 화면의 구성, 구체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시각적 표현에 집중하고 그것의 의미를 궁금해하게 되지만 적어도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서의 작업들은 표현의 과정과 순서가 중요했다.

그리고 질문이 남는다. 그가 스스로 사진 찍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을 지우는 과정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닌지. 지우는 행위 속에서 그의 주체적 표현과 창작자로서의 재미가 발현된 것은 아닌지. 어딘가에서 지워져 그의 선택으로 남겨진 복잡한 이미지들이 정연우의 작품 속에서 말을 건다. 이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선택되었을까. 지워짐의 의미와 채워짐의 의도 사이 어디쯤에 그의 시선과 행위가 위치되어 있을까. 완성된 작품 뒤편에서 부지런히 사진을 지우며 자신을 드러내는 그의 시간이 보인다.

## 멘토예술가의 말

**전진경**

작가는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들을 지우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 사진들은 가족과 여행할 때, 일상의 거리에서, 혹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시시각각 찍어 온 장면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사진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직하려는 사진들과 달리, 그의 사진들은 구도나 소재가 다소 엉뚱하다. 무심히 찍힌 장면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의 취향과 태도가 은근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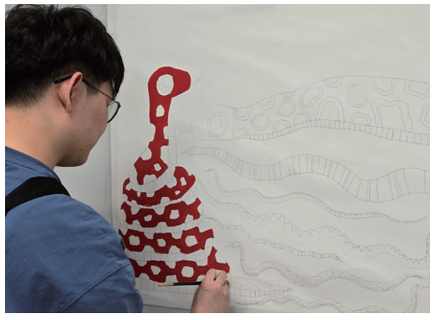
이처럼 의아한 사진들을 재료 삼아 정연우 작가는 평면 위에서 즉흥적인 구성을 만들어 낸다. 그렇게 완성된 복합적인 화면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다. 그림을 완성한 후 작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진들을 삭제한다.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행위가 되며, 그 결과는 언제나 경쾌하고 유쾌하다.

## 최석원

말보다 색과 형태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한다. 밝고 세련된 색채는 일상의 작은 순간을 따뜻하게 비추며, 화면 속 동물들은 작가만의 고유한 시선과 감정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다. 나에게 동물은 단순한 대상이 아닌,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안정시키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 대담한 색 배치와 섬세한 터치는 내면의 리듬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관람자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작품 속 동물들은 현실의 형태를 따르면서도 동시에 작가가 느낀 감정을 품고 있고, 자신이 애정을 느끼는 존재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하는 힘을 갖는다.









**뱀과 검은 오리**

**2025, 캔버스 위에 아크릴, 80×300cm**

다양한 붉은 색의 뱀들을 그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되었다. 마지막에 검은 오리가 뱀의 등에 탄 장면을 연출하며 상호적인 세계를 나타내었다.



전문가 비평

# “그렸습니다”라는 마음의 풍경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최석원의 몸보다 큰 종이에 그물무늬 비단뱀이 가로로 길게 그려져 있다. 그 아래에는 빨간색 뱀이 있다. 그 아래에는 핑크색 뱀이 있다. 최석원에게 무엇을 그렸는지 물으면 보이는 그대로 답한다. 무엇을 그릴지 정하고 그것대로 그린 것일까, 혹은 그려진 것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일까. 궁금한 것을 하나씩 물으면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댓글이 달리듯 분명하고 빠른 답변이 돌아온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려면 더욱 하나씩 물어야 한다. 그러기엔 대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대한 그림도 그의 표현 세계 중 일부 조각처럼 보였다. 기다란 그물무늬 비단뱀을 그리기 전에는 무엇을 많이 그렸었는지, 이번에는 왜 뱀을 그렸는지, 뱀 위에 올라선 검정 오리는 뱀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그려 넣은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검정 오리가 뱀 위에 있는 장면을 어떻게 떠올렸는지, 뱀도 있고 오리도 있는 이 풍경의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은지, 그것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염두에 둔 더 넓은 장면인지 등등.

작년에 제작한 수많은 돌고래 작업도, 올해 그린 여러 새와 곤충 그림도 그가 어떤 구도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것, 눈여겨본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다가 일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그림은 주인공 같은 중심 소재가 있고 그것을 둘러싼 이미지들이 배치되는데 최석원은 아주 작은 곤충도 그것보다 수 십배 큰 동물과 똑같이 애정을 담아 그리기 때문이다. 비슷한 완성도와 세밀함이 곤충의 다리 끝, 더듬이 끝에까지 보인다. 독수리 아래 사마귀도, 파랑새 위 잠자리도 또렷하고 야무지게 존재한다. 그는 다양한 생명들을 직접 보았든 아니든 마음속에 골고루 펼쳐두고 빠짐없이 눈길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곳에 모여 살기 어려운 동물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는 충돌도 다툼도 없이 ‘함께 있다’. 이에 대해 그에게 앞뒤 맥락을 묻다 보면 ‘그저 있음’, 그래서 ‘그렸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OO을 그렸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더더욱.

그렇기에 그가 작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렸다는 사실로서 보여주는 마음의 풍경 같다. 그의 작품이 언뜻 풍경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풍경을 그렸다기보다는, 그저 마음이 풍경처럼 화면 안에 펼쳐진 것 같기도 하다.



그 풍경, 아니 마음속에서 독수리는 작은 동물을 헤치지 않고 작은 뱀은 큰 뱀을 피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도 시간의 흐름도 작은 생명들의 존재함 그 자체보다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의 그림은 그것을 잠시라도 가능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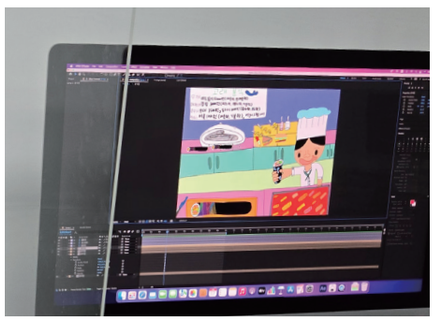
# 멘토예술가의 말

**전진경**

최석원 작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아주 작은 곤충부터 거대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모든 생명을 정성스럽게 대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늘 다양한 생명들로 가득 차 있다. 그가 그린 생명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투명하게 세상을 바라본다. 그 시선은 작가 자신의 시선과도 닮아 있다. 작가가 그림 속 동물을 설명할 때의 모습에서도 그런 따뜻한 눈빛이 느껴진다. 우리는 그의 그림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모든 생명들이 다정하게 공존하는 세상에 머문다. 예술이란, 작가가 구축한 세계를 방문하고 일시적으로 그 세계의 일부가 되는 사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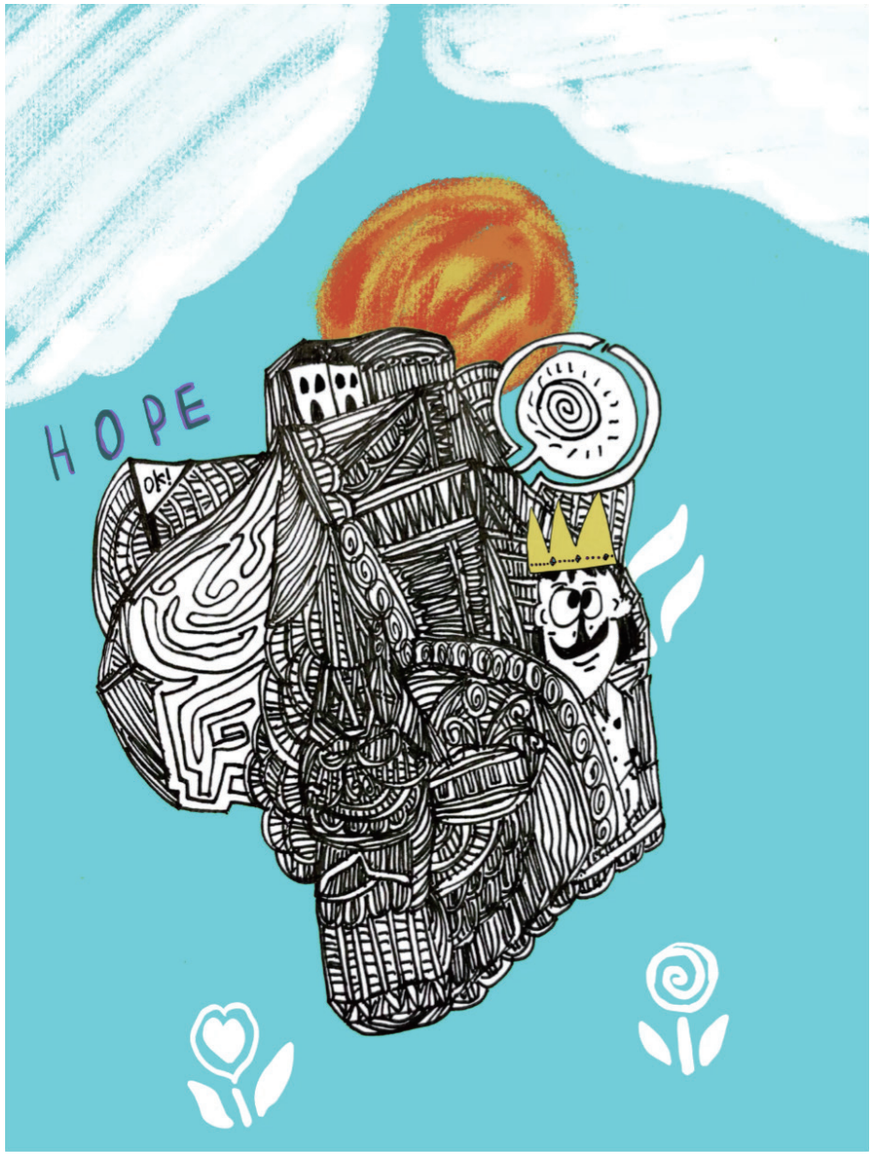
## 김채영

장애인 학교 설립을 꿈꾸며 다양한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평소 특수 학교의 이름을 짓고 학교의 모습을 그리며, 특수학교가 부족한 현실과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가까운 학교를 만들어 주고 싶은 바람을 드러낸다. 같은 장애를 지닌 이들의 통학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주제는 작업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나는 때때로 가난의 이미지를 지닌 아이들을 그리곤 하는데, 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작업할 때는 늘 음악을 들으며 몰입하고, 그림을 행복으로 이어 주는 통로라 믿는다. 채영은 오늘을 성실히 그려 내는 20대의 젊은 작가다.








**하늘의 왕**
**2025**
**Looping Video**
**30sec**

하늘에 코끼리의 몸을 타고 떠다니는 왕이 있다.
태양의 높이까지 날아오르고 구름사이를 날아다닌다.
그 몸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고, 집도 짊어지고 다닌다.
미로처럼 복잡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친근한 표정이다.
그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왕관은 케익이 되기도 하고, 자동차로도 변하고, 요리하는 프라이팬, 노란택시, 공룡알, 금메달, 커피 등으로 변한다. 그리고 희망과 꿈을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 낯익은 것들로 만든 낯선 세계

전문가 비평

**이지혜** 독립 큐레이터, OMG 대표

방의석은 김채영의 시작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변에서 본 것, 오며 가며 스친 대상,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발견한 사진과 오브제들이 그날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그 대상들은 화면 위에서 결코 1:1로 복제되지 않는다. 김채영은 그것들을 해체하고, 조각내고, 뒤섞어 다시 구성한다. 그 결과물은 처음 가져온 이미지와 거의 닮지 않으면서도 그 원본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기묘한 풍경을 만든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이 작가에게 일종의 "놀이"라는 점이다. 김채영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수다 쟁이가 된다. 작가 자신이 설립하고 싶은 피카소 미술학교를 그리면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너무 좋겠다. 부럽다."고 중얼거린다. 정작 그 학교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인데도 마치 타인의 세계를 동경하는 관찰자처럼 말한다. 자기 손으로 그린 상상의 학교를 향해 "나중에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는 태도는 현실의 결핍을 숨기기보다는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미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김채영의 회화는 불안과 우울, 공황발작을 밀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한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공황과 우울이 밀려오고 그림을 그리면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창작 행위가 심리적 증상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방의석은 이러한 상태를 병리적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김채영의 작업을 "작은 프로젝트들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김채영이 현실화 하고자하는 프로젝트를 가득 담고 있는 현실과 닮은 공간을 만들어낸다. 분명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일대일로 서사화되지 않고 여러 개의 오브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영된다. 각 오브제는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을 품은 편린이다. 이 조각들 사이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논리적으로는 뜬금없지만 어린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상처럼 김채영의 화면에서 요소들은 작가의 내적 로직에 따라 느슨하게 이어진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비논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김채영의 바람과 같은 분명한 규칙과 리듬이 있다.

김채영의 세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고래'다. 어느 작품에서는 고래가 학교의 일부로 또 다른 작품에서는 분식집의 간판처럼 혹은 화면 어딘가를 떠다니는 캐릭터로 출현한다. 왜 고래냐고 묻자 작가는 그것이 자신의 상징이라고 답했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색을 가장 온전히 담고 있는 존재로 고래를 선택했고 그래서 고래는 자신의 캐릭터이자 정동의 매개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래가 일관된 의미를 지닌 상징이라기보다 작가가 자신의 내면의 미로를 빠져나갈 때마다 확인하는 시그널에 가깝다는 점이다. 어디를 가도 다시 만나는 표식 "내 세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최소한의 흔적 말이다. 작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고래를 호명하고 고래와 함께 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반복은 집착이라기보다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정서적 앵커다.



김채영의 화면에는 명확한 이야기 구조가 없다. 논리적 연쇄를 기대하는 관객에게 이 작품들은 종종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는 대신 마음속에 비워진 프로젝트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그 안에 다양한 오브제를 끌어들여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구현한다. 오브제들은 '합리적 이유'로서의 배치가 아니라 이 조각들이 함께 놓였이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그녀의 정동의 밀도에 의해 조합된 조각의 편린들은 각자 다른 출처를 갖지만 모여서 하나의 작은 세계를 만든다. 그 세계는 작가에게 자가 치유의 공간이자 매일 새롭게 빌드업되는 안전지대다.

여기서 김채영을 지도한 방의석이 인용했던 쉬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 개념이 다시 떠오른다. 김채영은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가져와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자신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서에서 말하는 기법으로서의 낯설게 하기라기보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가깝다. 그는 상상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 검색해서 찾아낸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상상에서 바로 꺼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금세 재미가 없어지고 실제와 접속했던 흔적을 가진 것들을 조합할 때 비로소 작업이 지속된다고 말하는 김채영의 말은 그의 그림이 순수한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접촉면을 가진 편린들을 통해 구성된 세계임을 재차 확인하게 한다. 김채영의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과는 느슨하며 고래는 계속 떠다닌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정성과 반복, 비논리의 조합이야말로 그가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상상하게 하는 예술의 힘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 방의석

김채영 작가의 회화는 기억과 관찰, 그리고 작가만의 상상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푸른솔유치원 아이들, 미술관으로 향하는 가족들, 피카소 예술학교의 학생들처럼 자신이 동경하는 세계를 그린다. 그의 그림 속 도시에는 커다란 시계가 중심에 놓여 있고, 그곳엔 미술관과 예술학교, 고래분식이 차례로 자리한다.

'블루아일랜드'라 불리는 이 상상의 도시는 작가가 마음속에 세운 이상향이다. 거대한 고래가 춤추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하늘에서는 음식이 내린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술을 배우고, 맛있는 분식을 먹으며 웃는다. 김채영 작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며 아이들처럼 들뜬 목소리로 "정말 부럽다"고 말한다.

세밀화로 구축된 그의 세계는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로 가득하다. 마지막에는 하늘을 떠다니는 '하나님'이 등장한다. 케이크, 금메달, 태극기, 택시, UFO, 공룡알까지 —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상징이 얽혀 있다. 김채영 작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호기심 많은 존재이며, 그 시선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세계를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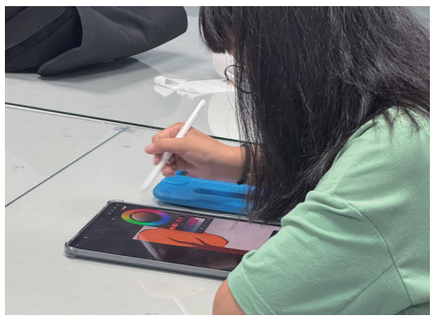
결국 그의 작품은 상상에서 시작해 경이로움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서사다. 그곳에는 김채영 작가만의 상상력과 따뜻한 믿음이 유쾌하게 공존한다.

## 이지현

이름에 앞서 이지현을 먼저 설명하는 한 단어는 자폐성 장애이다. 자폐라는 공간은 '쉼'과 '호흡'이 있는 작가의 안식처이자 세상을 향하는 창이다. 10대 전후부터 작가의 그림 주인공은 날고 있거나 온통 날개 모양의 액세서리, 머리띠, 머리방울,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가슴 리본, 허리띠, 신발 장식 등을 하고 상상의 세계를 날아다녔다. 작가의 삶과 생각을 드러내는 주제는 일상, 여행, 자연, 인물로 이동하며 작가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자폐인으로서 선택권이 제한된 세상에서 미술로 자신의 존엄을 세우며 살아온 작가의 현재는 대상에 투사된 섬세하고 세련된 표현력과 이야기로 성숙해지고 있음을 작품으로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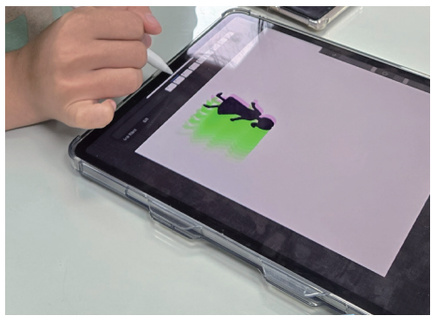




**로마에서**

**2025, Looping Video, 10sec**

로마에서 드디어 만나게 된 두 남녀.
추억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기억.
유럽의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





전문가 비평

# 이지현의 세계와 서정적 배경 사이에서 - 애니메이션을 향한 첫 단추

**이지혜** 독립 큐레이터, OMG 대표

이지현의 SNS 계정에 축적된 드로잉들은 미소녀 서사의 계보 속에서 성장한 작가 개인의 취향이 집약되있다. 복식의 패턴, 손동작의 디테일, 머리카락의 흐름, 팬던트 장식과 같은 요소들은 각 캐릭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명의 인물이 이름을 부여받고 성격과 배경을 갖추면 그 세계관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구조다. 이는 디즈니 공주물, 마법소녀물, 일본 애니메이션의 계보 속에 놓인다.

그러나 한양대학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에서 그녀가 방의석 멘토와 제작한 세 편의 영상들은 전혀 다른 정서를 보인다. 영상들은 서정적이고 조용하며 익명적이다. 여기에는 그녀가 애착을 갖는 캐릭터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계절, 빛, 색의 그라데이션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의 전환이라기보다 시간, 기술, 제도라는 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다. 미디어 아트 수업은 주 1회, 제한된 시간, 모니터용 영상 이미지라는 분명한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지현이 인스타그램 작업에서 보여주는 섬세한 캐릭터 설계와 디테일을 위해 레이어 수십 개, 각 요소의 구조화를 전제로 하지만 수업에서는 그 복잡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녀는 캐릭터를 과감히 비워두고 '정서의 배경'만 남겨 제작을 이어갔다. 이 점에서 이번 작업은 기술적 한계가 드러난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지점이다.

캐릭터가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난 서정성은 그녀의 인스타그램 작업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감정적 결을 보여준다.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책과 테이블, 달빛 역광 속을 걷는 두 사람, 눈발이 흩날리는 밤에 서 있는 눈사람 등의 장면들은 이지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서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캐릭터는 지금까지 멈춰진 이미지로만 존재해왔다. 이번 미디어 아트 수업에서 경험은 바로 이 간극을 좁히는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이지현의 이번 작품들은 미디어아트의 미학적 혁신도 복잡한 내러티브 실험도 아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기본적이며 기능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지현이 처음으로 "배경과 시간, 장면"이라는 복합적 요소를 배우고 다뤘다는 점이다. 자신의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전제 조건을 실습하며 익혔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작가든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친다. 이미 완성된 캐릭터를 '움직이는 세계' 속에 넣는 일, 그 세계가 작가의 정서로 채워지는 일, 세계와 캐릭터가 충돌하고 호흡하는 일, 이런 과정은 모두 기술 학습과 시간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서정적 영상은 결국 캐릭터를 위한 무대가 될 것이고 기술적 부족함이 드러난 자리는 곧 기술을 채워 넣을 자리가 되며 멈춰진 캐릭터 이미지는 움직임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지현은 이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막 애니메이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작가의 기술이 상상력을 뒤따라오는 초기 단계를 지나 그 기술이 세계관과 결합하는 길목에서 이지현은 자신의 머릿속 이야기를 구현할 수 있는 통제와 확장의 리듬과 정서를 자신의 작품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방의석**

이지현 작가의 작품에는 언제나 '그리움'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따뜻했던 커피조차 식어 버린 시간 속에서 작가는 애틋한 기다림의 끝에 있을 '어떤 만남'을 그린다. '그리움의 정서' 연작 시리즈는 잊힌 줄만 알았던 연인을 낯선 유럽의 거리에서 다시 마주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서로가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오랜 기다림은 다시 사랑으로 싹튼다.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관계의 숨결로 변한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다 마음을 닫아 버린 눈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앞에 두 명의 어린 남녀가 찾아와 반가움을 건넨다. 눈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깨닫는다. 기다림의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한다.

이지현 작가의 화면 속 세계는 이렇게, 기다림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다시 사랑으로 피어나는 순환의 정서를 품고 있다. 그 따뜻한 여운은 보는 이의 마음속에도 잔잔하게 남는다.

## 김수

아직 작품 세계가 고정되지 않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작품을 보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며
생명이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평생토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주**

**2025, 디지털 드로잉, 30×21cm**

우주에는 여러 가지 물건과 사람, 그리고 행성이 살아요. 귀가 다섯 개 있고 눈이 세 개인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화산이 폭발하자 놀라서 도망갔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던 자, 연필, 컵, 포크는 화산의 뜨거운 열 때문에 녹고 있었어요.

화산과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화산이 폭발하며 태양 쪽으로 용암을 쏟았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불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우주는 어두우니까, 아주 크고 강한 빛이 우주를 밝게 비춰 주었어요.

입이 있고 이빨은 길고 뾰족해요. 연필과 물고기는 이빨을 여러 가지 색으로 색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람쥐는 이빨을 깨끗하게 하려고 칫솔로 이를 닦고 있어요.



## 폭발하는 눈과 전기 오른 밤

전문가 비평

**정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문화디자인경영학부 강사, 디렉터, 작가

김수의 그림에서 '밤'은 만물이 잠든 시간이나 휴식이 아니다. 그곳은 형광색 빛들이 점멸하고, 사물들이 제각기 눈을 갖고 춤추는, 고전압의 전기가 흐르는 살아있는 무대다. 그녀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자신이 통제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 우주 안에서 김수는 마녀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이기도 하며, 파국을 멋지게 연출해내는 전능한 존재가 된다. 이 모든 현란한 파국은 그녀의 자화상에서 보여진 사이키델릭한 눈에서 시작되었다. 지나치게 거대해진 눈, 터질 듯 확장되어 형체마저 사라진 동공은 단순히 대상을 보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강렬한 환영을 쏟아내는 샘이다. 그녀의 눈은 이번 작품, 드로잉 <우주>와 애니메이션 <제 마음도 깨지고 꽃병도 깨져요>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화면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꿈틀거리는 선들은 마치 감전된 듯 진동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 이는 그녀의 폭발하여 수십 개의 입자로 분절된 눈이 바라보고 있는 다른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위험하도록 생생하게 진동하고 있는 세계이기에, 그 안의 사물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한다. 화병의 눈과 손, 가위는 모두 외부로부터 해바라기를 지키는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조금 들어가 보면 외부에 대한 감시는 대상에 대한 집요한 애정의 발로이자 보호 기제이다. 하지만 그 보호의 방식은 붉고 뾰족한 손톱을 가진 포식자의 포악한 손처럼 공격적이다. 김수의 세계에서 지킨다는 행위는 상대를 옥죄거나 날카롭게 무장하는 양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그녀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날카로운 루틴을 세우는 태도가 시각화된 것일지도 모른다.

김수의 작업은 강박적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사이키델릭한 동화이다. 그녀는 화면 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그 통제의 끝에 모든 것은 녹아내리고 터져버리는 폭발이 일어난다. 그 폭발은 그녀의 세계 속 꿈틀거리는 존재들에 몇 겹의 생동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밤과 우주가 흥미진진한 시공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전기 오른 듯 찌릿한 그녀의 선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밤의 풍경 속에서, 마침내 우리는 그녀가 초대한 멋진 폭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 멘토예술가의 말

**서찬석**

김수의 작업은 언제나 기억과 경험의 감각에서 출발한다. 즉흥적인 선, 본능적인 색, 그리고 일상의 감정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세계를 그린다. 그의 화면은 경험과 기억에서 흘러나온 이미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번지며, 무한하고 생생한 우주로 확장된다.

〈제 마음도 깨지고 꽃병도 깨져요〉에서 김수는 2년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그 경험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흘러내린 물에 터져 버린 색종이로 만든 해바라기, 공작 시간에 사용하던 가위, 떨어지는 꽃잎, 물이 흘러 위태로운 전기 코드 등은 모두 기억과 경험에서 떠올린 장면들이다. 또 그것을 4년 전 경험과 결합시킨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 즉흥적이거나 본능적인 조형성은 김수에게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수없이 머릿속에서 그날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복기하고 복기하며 조형 구조를 세웠을 것이다.

〈우주〉 역시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동시에 터져 버린 해바라기, 깨져 버린 꽃병을 등장시킨다. 이것들을 모아 하나의 우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주로 간 해바라기 꽃병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 과거의 속상한 기억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

하지만 김수는 경험과 기억에서 힌트를 얻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대신 그 감각을 색과 선으로 흩뿌리며, 자신이 본 세계를 재빠르게 그려 낸다. 그것이 즉흥적 감각으로 작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의 감각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

괴물, 귀신, 뒤틀리거나 기이한 형상, 다양한 곡선의 중첩들은 단순히 상상이라기보다 감정이 몸을 통과하고 남긴 흔적이다. 그의 선은 유연하면서도 예민하다. 감정이 팽팽히 긴장될 때 화면은 혼란스럽게 일렁이고, 감정이 풀릴 때는 잔잔한 선으로 부드럽게 녹아든다. 이 진폭이 바로 김수의 가장 큰 매력이다. 쏟아지며 통제되지 않는 감각이 조형으로 전환되는 순간의 생생함. 그래서 김수의 즉흥성은 찰나가 아니라 오래도록 쌓인 감각의 증거이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선이 가자는 방향에 몸을 맡긴다.

불안과 즐거움, 공포와 호기심이 한 화면 안에서 부딪히며 요동치며 감정을 호소한다. 김수는 꽤 빨리 그리지만, 꽤 깊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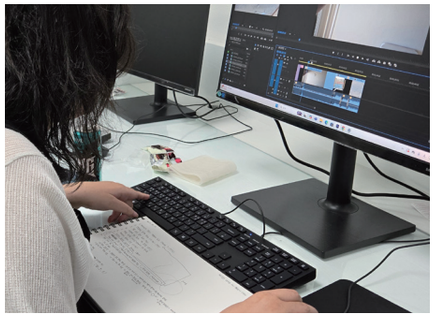
## 안석희

'회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몸의 변화와 감각, 관계 속에서의 기억들을 작업으로 담아내고 있다. 변화하는 몸과 근육이 사라져 가는 감각, 사회적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경험은 자연스럽게 '나'와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 내 장애에 대한 탐구, 환경 속의 나와 타인에 대한 고민을 담아 천, 해파리, 얼음 등 다양한 대상으로 비유하여 표현한다.











**해파리 감각**

**2025, 4min 29sec, Full HD 단채널 비디오, 디지털 애니메이션**

근육을 잃어가며 느끼는 물렁하고 늘어진 몸의 감각은 곧 손 끝의 떨림으로 이어진다. 떨리는 내 손의 선이 줄곧 불완전하다 생각해 꽤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이 떨림이야말로 나의 몸이 세상과 닿아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증거일 것이라 생각하며, 나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다.

해파리, 천, 얼음은 나의 감각을 빗댄 상징이면서 나 자신이기도 하다. 물렁한 나, 축 처진 나, 녹아내리는 나. 다양한 형태들의 나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며 곧 하나가 되어감을 느낀다. 해파리의 감각은 꼭 나를 닮았다. 해파리는 물에서 부드럽게 흐르며 헤엄치지만, 뭍 위에서는 힘을 잃고 녹아내린다.

하지만 비로소 떨림을 바로 마주한 해파리는 곧 자유롭게 내가 되어 나의 세상을 유영한다.

## 안석희의 다정한 손과 감각적 침수

전문가 비평

**정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문화디자인경영학부 강사, 디렉터, 작가

신체적 활동성을 잃어가는 그녀에게 다른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생각해본다. 신체의 공감각적 진화말이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떨어진 카드를 주울 수 없었을 때, 그녀는 슬픔이나 서글픔의 감정이 아닌 분리의 낯선 감각을 느낀다. 그 순간 그녀는 해파리를 꿈꾼다. 심장은 없지만 드러내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며, 자유롭고 힘있게 유영하는 해파리. 어느 밤, 꿈속에서 세계는 끝없는 비에 물에 잠겨 인류는 새롭게 적응해야 했지만, 그 속에서 해파리이자 흐르는 존재인 그는 마침내 평온함을 찾고 자유롭게 유영한다. 휠체어를 다리 삼은 그녀에게 굴러가는 길은 '부드럽고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내며, 그녀의 시야에서 중앙선은 유연한 곡선이 된다.

자신의 낯선 감각에 예민하게 침잠하던 그녀는 비로소 디지털 드로잉의 자동보정 기능을 끄고 자신의 호흡과 근육의 떨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 떨리는 선은 더 이상 불안정과 불완전함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세상과 맞닿아 드러나는 그녀의 고유한 리듬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녀의 그림 속 선들은 정지된 윤곽선이 아니라, 매 순간 떨리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그녀 자신이다.

이번 작업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실사 영상을 애니메이션과 중첩시켰다. 작업 속에서 빨대 끝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은 무릎 반사 신경 검사의 규칙적인 타격음으로, 다시 흐르는 물속의 손으로 변환되며 일상의 장면들을 엮어 하나의 연결된 감각으로 확장시킨다. 이 몽타쥬는 작가의 신체에 흐르는 시간과 박자를 시각화하며 시청각적으로 공감각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개수대에 쏟아지는 물살 속으로 그녀가 불쑥 손을 집어넣을 때, 나는 그녀가 이끄는 세계로 진입하였음을 퍼뜩 알아차렸다. 그때 피부를 누르는 얼얼한 통각이 느껴졌던가. 나는 그녀의 손이 느끼는, 아니 그녀의 손이 이끄는 감각 속에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번 작업에서 소리와 이미지들의 부유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녀의 감각 세계에 완전히 침수하게 된다. 영상이 끝나도 계속되는 감각의 환통은 그녀의 신체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에 우리가 접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안석희의 이번 작업은 전작 <돌의 이야기 Dori>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몸에 대한 물질적 우화를 넘어, 타인을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그 흐름 속에 푹 잠기게 만드는 감각적 침수의 경험을 선사한다.

그녀가 물살을 가르는 이 행위는 세계를 섞기 위한 무의식적 의식(ritual)이 된다. 물 밖에서는 한없이 중력이 그녀를 잡아당길지라도, 그녀의 물속에서 우리는 함께 유영할 수 있다. 안석희는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우리의 세계에 물을 채우고, 그 파동 속에 우리를 담근다. 그 흠뻑 젖어드는 촉촉하고 다정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녀가 감각하는 세계를 함께 호흡하게 된다.

## 멘토예술가의 말

**서찬석**

안석희의 떨림은 단순한 신체의 불안함이 아니다. 오히려 몸이 세상과 섬세하게 맞닿아 있다는 신호이며 리듬이다. 그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숨기거나 교정하려 했던 과거의 태도를 지나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작업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몸의 감각을 신뢰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해파리는 안석희의 신체 감각을 닮았다. 물 안에서는 부드럽게 흐르지만, 물 밖에서는 힘을 잃고 녹아내린다. 그러나 바로 그 상태에서 해파리는 '유연함'과 독을 품은 '매서움'이라는 또 다른 생명력을 드러낸다. 안석희에게 해파리는 몸과 감각의 유연함을 상징하며, 스스로의 떨림을 받아들이는 상징이다. 나풀거리는 천, 흐르는 물, 녹는 얼음도 마찬가지다. 유연한 성질, 형태, 시간, 몸짓, 하지만 선명한 존재의 감각.

안석희는 연약한 신체에서 덤덤하고 솔직한 조형성을 발견하며, 나약함과 떨림, 장애를 감각하여 보여주는 용기를 통해 오히려 단단함을 보여준다. 결국 안석희의 작업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수행이며, 몸의 신호와 예술적 감각의 결합은 작업의 확장과 새로운 방향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미한다. 이러한 감각의 확장은 앞으로의 작업에서 더욱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조형 탐구로 이어질 것이다.

## 강산아

타고난 열정과 대범함으로 일상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그려 오던 작가는, 표현 매체가 평면에서 입체로 확장되면서 그 기질을 더욱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입체 작업은 나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와 감각을 공간 속으로 끌어올리며, 신나게 작가의 일상을 작품의 일부로 만들어 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형식의 전환이 아니라, 건축을 공부했던 작가의 시선과 세계관이 더욱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이다.



**쿠팡 ♡ 롯데마트**
**2025**
**택배박스, 압축 스티로폼, 아크릴 물감, 테이프 심지, RC카 등**
**120×130×142cm**

쿠팡 물류센터와 롯데마트 물류에서는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움직이고, 사람들이 물건을 상자에 담아 배송 분류를 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파레트 위에 차곡차곡 상자들을 쌓고, 뺑글뺑글 돌아 랩핑을하면 마지막으로 배송차량이 택배를 실어 열심히 사람들에게 기다리던 물건을 전달해요. 물류센터에서 사람들과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멋있고 재밌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물류센터와 택배차에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무선조종 트럭에 초코렛을 실어 관객들에게 전하면서 택배의 고맙고 기쁜 마음을 체험하며 택배들에게 친절해지고 다 행복해지길 바래요.



## 쿠팡 파트 롯데마트

**전문가 비평**

**김월식** 무늬만뮤지엄 대표, 아빠 시민 작가

강산아의 입체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지난 작업을 다시 소환해서 작가의 평면 작업이 어떤 이유로 공간으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해야 했다. 단순하게 하나의 작업만으로 글을 쓰기에는 작가의 조형세계와 그 감각을 읽어내는데 많은 오해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안정된 스트로크로 드로잉과 채색을 하던 과거의 회화나 드로잉들은 작가가 얼마나 많은 습작과 학습을 하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몸의 관성은 무섭다. 대체로 관찰과 탐색의 속도가 스트로크와 연동되는데 일단 작가는 보다 많은 사물과 상황을 일상에서 관찰하는 듯 하다. 일상의 속도는 삶의 속도이고 그 삶의 속도라는 것이 몸의 관성과 연루되어 있다. 그녀는 이 사회와 삶의 속도의 싱크로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난 그녀의 삶의 속도에서 평범을 발견한다. 카페에 앉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그녀는 평범한 풍경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카레이싱 대회에서 촉발되는 도파민과, 버스 안에서 버스의 속도대로 관찰되는 풍경은 누구나 공감되는 드라마다. 작가는 그렇게 평범을 향해 관찰과 수행의 속도가 디자인 되었다. 평범한 삶의 속도가 만든 몸의 스트로크는 드로잉이라는 매체와 잘 어울린다. 집에서 카페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느 곳에든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하는 스트로크적 관성이 몸의 관성을 연동시킨다. 충분하게 컨트롤 가능한 근육의 사용은 안정적이며 섬세하다. 얇고 긴 사과껍질처럼 나열되는 면들은 사과를 깍는 속도 정도의 편안함이 묻어 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과일 껍질 같이 나열되는 무늬들은 중첩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간을 포개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배열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작가의 삶까지 깊게 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정도의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고, 개인의 고유한 삶의 서사까지 추적하면서 그림의 이유를 묻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 오기도 한다. 그저 추측하고 가늠해 볼 것으로 작가의 드로잉들은 잠재적 조건으로써 가능한 태도로써 그저 매일을 그림이라는 미학으로 실천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작가가 이음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입체적 작업을 시도 한다. 이 거칠고 위태롭고 허약한 볼륨의 덩어리를 그녀의 드로잉들과 연결시켜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도저히 한 사람이 한 작업이라고는 짐작하기 어려운 증거는 차고 넘친다.

선과 선의 진행방향과 그 알레고리가 일정한 손의 스트로크가 해체되고 전 방위적 선의 지향성과 어께와 허리의 스트로크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볼륨의 조합들은 사실 먼 거리에 있다. 물감은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롭 페인팅처럼 부어져 있고 그 자체가 부조처럼 볼륨을 형성하고 있으며 살과 피부처럼 붙어 있는 스티로폼 조각들은 노동자의 거친 피부처럼 야생적이다. 분명 구조가 있는 볼륨인데 구조적이지 않고 표현적인 미디엄들이 양감에 무관한 것은 컨템포러리 조각에서 흔하게 보이는 조각적 불확정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서사를 추적하기 어려운 이 입체적 사물에도 내용은 존재한다. 작가는 쿠팡과 롯데마트에 근무하면서 그 노동환경의 상황을 이 입체적 사물로 조립해 놓았다고 설명한다. 삶에서 노동과 일이 매우 중요한 삶의 조건과 질, 사회성과 개인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불가피한 과정이라면 이 새로운 입체적 작업의 시도는 어쩌면 평범한 동시대의 속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그려진 드로잉들이 작가 개인의 속도를 자신의 헤게모니가 되도록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의 드로잉으로 전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하면 너무 비약적일까? 그만큼 강산아의 이번 작업 '쿠팡 파트 롯데 마트'는 평범한 삶이 입체적 삶으로 변모하는 만큼의 반전이다. 물론 이 과정도 오래되면 또 작가만의 몸의 관성과 속도가 작가化 되겠지만, 때로는 배움과 학습의 과정에서 이런 낯선 파격을 마주하는 것이 익숙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작가에게 그 답을 빨리 찾아보라고 권유하지는 말자. 그것이 감상의 매너이자 올바른 태도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성연진**

산아 작가의 추상적 드로잉에는 공간 속에 작가의 움직임과 시간이 마음과 함께 담겨 있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가늘고 길쭉한 면들, 때로는 동글동글 비늘같이, 때로는 일정치 않은 다각면들로 이어지는 그녀의 알록달록한 면들은 사방으로 땅속 줄기를 뻗쳐 싹을 틔우고 마디마다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는 식물의 유기적인 생장의 장면 같다. 화지에는 버스와 트럭이, 쌓여 있는 택배 박스가, 상자 더미를 래핑하는 자신의 둥근 움직임, 컨베이어 벨트의 웅장한 움직임이, 택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대견함과 기쁨으로 폭발하는 선의 모임이 마디가 되어 각 에피소드들을 꽃 피우고 서로를 연결한다. 그 마디는 산아 작가 삶에서 이동의 기점이고, 감정과 생각의 장소이다.

산아 작가 삶의 회로도 같은 드로잉을 공간 속에 펼쳐 보고자 했다. 물류센터와 택배 차량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에서 작품에 사용할 오브제를 모아 의미를 되새김질하며 재료를 선정하고, 드로잉을 매 시간 분석하고 다시 그려 보며 내용과 조형을 정리해 갔다. 입체 조형은 중력과 물질적 특성, 그리고 안전 문제로 규모 있게 작업하려면 상당히 물질에 숙련되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때문에 '드로잉 내용을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커다랗게 공간에 만들어 보자' 라는 합의하에 작업의 방법에서는 멘토와의 제안이 많이 작용하였다. 구체적인 조형이 아니다 보니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 보고 각 모듈을 연결해 보기 전까지는 아리송해하기도 했으나, 후반기에 각 모듈을 연결하자 산아 작가의 다정한 마음을 덧붙여 펼쳐 냈다.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물류센터의 기계들과 사람들,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의 정성스러운 '택배 마음'을 알리기 위해 무선 조종 트럭에 초콜릿을 싣고 서로에게 전달해 보는 관객 참여 요소를 제안했다. 모두가 '택배 마음'을 고맙고 기쁘게 여기며 택배 기사님과 택배 차량, 그리고 택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기를 기원하면서.

## 박관우

동심을 여행하는 모험가다. 나의 작품에는 고양이, 로봇, 여행, 꽃과 하트,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계이며,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지 등장인물들은 늘 웃음과 윙크를 지어 사랑스러움을 더한다. 나의 작품은 간결한 형태와 선명한 색으로 이루어져 햇살 같은 마음을 전이시킨다. 일상의 즐거움을 다정한 이미지로 환원하는 그의 시선은 관람자의 마음 온도를 부드럽게 높이며, 보는 이를 저마다의 어린 시절로 다시 초대한다.



**황금빛 모험 크리스마스**
**2025**
**석고붕대, 아크릴 물감, 박스, 알루미늄호일, 석고 등**
**80×64×79cm**

나랑, 고속도로 휴게소, 롯데마트 주차장, 게임에 나오는 병사와 미니칼, 원서타임맨, 보스 킹크루, 엑스칼리버와 방패와 왕관, 2100년 우주미래자동차, 아이스크림, 통닭... 그리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브이 하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신기함과 아름다움과 대결, 모험에 관한 것을 모아서 겨울이 되서 따뜻하고 즐겁고 설레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모험을 기다리는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 황금빛 모험 크리스마스

**전문가 비평**

**김월식** 무늬만뮤지엄 대표, 아빠 시민 작가

작업이, 작품이 작가를 닮았다는 것은 작가에게 좋은 평가일까? 개인적으로는 작품이 작가를 닮았다는 느낌을 나는 좋아한다. 비주얼한 것 뿐만아니라 창작의 과정을 가늠케하는 과정의 흔적들이 고스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을 마주하고 나서 작가와 몇마디 나누다가 문득 '아 이 작품은 작가를 그대로 닮았구나'하는 인상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작품의 언어들에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 호기심의 연유를 작가에서 찾게 된다. 작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들을 마주할 때는 작가가 궁굼해지는 작업들을 좋아한다. '도대체 이 작업을 한 작가는 누구일까? 혹은 이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작업을 했을까?'하는 질문이 뒤 따라오는 작업이 매력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박관우의 '황금빛 모험 크리스마스' 가 딱 그러했다. 큰 칼과 자소상 롯데마트 주차장, 왕관과 링등 도대체 한 공간을 함께 점유하기 어려운, 이 모든것을 함께 만드는 감각이라는 것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우연한 만남'을 연상시키면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고의 경로로 서사를 모으고 있었는데 마치 토끼굴에 빠진 엘리스처럼 흥미롭고 긴장감을 촉발하고 있다. 여기서 스케일은 중요하지 않다. 존재론적으로 의미를 가진것들의 조합속에서 모두 제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들처럼 목적을 향해 소통하는 총체적 번역기가 존재하고 작가는 흔쾌하게 그 번역기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박관우 작가는 이 작업에서 석고붕대 쿠킹호일 스티로폼과 같은 허약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매체의 선택은 작업의 고유성 있는 서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오랜시간 연습을 통해서 익힌 표현의 기술적 장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황금빛 모험 크리스마스는 이 두가지 이유와 무관하다. 그 이유는 멘토 강사의 입체적 교육을 위한 영리함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손가락의 움직이는 방법이 아물지 못한 작가를 배려한 측면으로 이해된다. 손가락과 손바닥의 감각으로 그 형태적 조정이 쉽게 가능한 이 재료들이라는 것이 입체작업의 비기너로서 박관우의 표현 방식을 쉽게 이끌고 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듯이 주물러진 쿠킹호일은 그런 측면에서 손가락의 압력을 모두 캐스팅하고 있으며 캐스팅의 감각을 층위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석고 붕대의 경우 그 미끄러짐의 부드러움에 대하여 좋은 느낌의 스킨쉽이라고 작가가 이야기 했는데 결국 소조적 입체물의 접근을 위해서 빠지지 않는 재료적 감각을 작업과정의 중요한 진행방법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반면에 동시대 예술영역에서 특히 입체와 조각, 설치작업의 경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재료적 특징들이 박관우의 작업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 하게도 이 허약한 재료들로 조합된 박관우의 작업을 동시대성의 눈으로 감상하면 너무 키치하지만 세련되고 매력적인 결과물로 읽히니 예술이라는 것은 늘 새삼스러운 존재가 맞다. 흔하게 유아들과 초등 저학년들의 입체적 공작물들을 관람하다 보면 느끼는 순수함, 외부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는 듯한, 예술적 수월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적 작업만이 가능한 그 아우라를 만든다. 야생적 조물락거림이 주는 경외감이라는 것이 문명화된 성인들에게는 공포적 경외감으로 다가오는데, 어린 유아와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서 점점 소외시킬 게 뻔한 이 감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한계적 감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성인이 된 박관우에게 이 감각이 남아 있는것, 아니면 암묵지의 야생의 감각이 다시 소환 되는것은 다행이기도 행운이기도 하고 여전히 불편한 감각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이 지점이 박관우가 입체물을 지속적으로 작업 해 보아야 하는 인과성으로 판단한다. 이미 정리에 익숙해진 작가의 그림의 경우에는 이 야생성을 점차 그림의 형식적 수월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박관우 작가의 경우 회화와 드로잉의 관성은 아카데믹한 과정의 안정성을 통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때문에 이런 조물락거림, 더듬더듬, 쭈삣 쭈삣의 스퀸쉽은 오히려 작가를 작가적 고유성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작업은 총체적인 것이고 회화와 입체물이 다르지 않다. 예상컨대 박관우의 조각적 감각이 결국 그의 회화에 어떤 영향을 만들지가 다시 궁금해 진다. 손 끝에 꺼끌거리는 이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나로서는 더욱 더 이 불편함의 포지티브한 표현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계속하기를 응원한다.

## 멘토예술가의 말

**성연진**

그리기와 만들기 모두를 좋아하는 박관우 작가의 손끝에서는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콧노래를 부르며 쏟아진다. 그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미술로 표현하며 행복을 느끼듯이, 자신의 작품을 보는 모두가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다정한 마음으로 미술을 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대상을 세세히 늘어놓는 관우 작가는 그것들을 어떤 요소에서 좋아하고 있는가? 관우 작가가 좋다고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명확하게 나열되는 박관우의 행복을 타인들과 공감하기 위해 관우만의 관점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했다.

좋아하는 것들을 5가지로 추려 마인드 맵으로 머리에 쥐나게 대화하고 탐색하여 그가 좋아하는 것들의 꼭지를 모아 보았다. "모험, 승리, 신기함, 빛나는 것, 반짝이는 색, 아름다움" 이 요소들을 활용해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 군집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관우 작가의 행복의 요소는 활발하다. 이 힘찬 움직임의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관우 작가의 능력, 즉 유기체적 동세를 생기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활용해 보고자 했다. 매주 드로잉 북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실물이나 동영상, 사진을 관찰하고 그리는 과정을 통해 표현의 속도를 늦추어, 도식화로 빠르게 쏟아내는 표현에 생기를 더하고자 했다. 드로잉을 바탕으로 자소상을 만들 때는 몸을 손으로 만져 보며 움직임에 따른 덩어리와 각의 지점들을 탐색하며 시각과 촉각, 움직임의 표현을 맞춰 갔다. 재료 사용에서 작가가 물성의 특성을 이해하며 속도에 따른 관찰과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와 속도를 탐구했다. 처음에는 관우 작가의 빠른 손의 특성을 살려 종이, 쿠킹 호일로 즉흥적인 직조로 시작해, 종이와 석고 붕대를 사용하는 큰 작업으로 옮겨 제작의 속도를 서서히 늦추면서 섬세한 표현을 탐구했다. 마지막으로는 밀도가 높은 유토로 더 섬세하게 덩어리와 동세를 표현하며 관우 작가의 뛰어난 눈과 손의 조화로 맛깔나는 생동감을 드러냈다.

생기 넘치게 표현된 비행기 좌석에 타서 뒤를 보며  손짓을 하는 자신과 자소상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 하나의 군집상으로 조합하며 관우 작가는 "황금빛 모험 크리스마스"라 명명했다. 관우 작가는 한껏 미소를 띠우며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관점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생생하게 관객에게 전달되길 바랐다.

2025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자과정

## 예술창작 아카데미

(전문예술교육)



문학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한양대학교

#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

김은지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작품 전체 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어딘가에는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바다 마을이 있다. 이곳에 한 번 발을 들이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 여행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귀국 티켓을 찢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모래먼지가 폴폴 날리는 황토색 산을 배경으로 오아시스같이 넓게 펼쳐진 바다와 그 위로 걷는 낙타 사진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이 비현실적인 풍경을 가진 바다마을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척추 수술 후, 몸을 회복하는 기간에 우연히 알게 된 다합은 꿈의 여행지가 되어 힘든 순간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돼주었다. 인서울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온 대학 전공이 기대와 다르게 잘 맞지 않았을 때, 끝없는 과제와 시험때문에 청춘을 그저 흘려보내고만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코로나가 창궐해 전세계의 문이 락다운 됐을 때, 나는 언젠가 꼭 가게될 다합만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버텼다. 세계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여행지가 있다면 나는 망설임도 없이 다합을 선택할 정도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게된지 7년만에 나는 드디어 낯선 다합 땅을 밟게 되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은 어떨까. 사람들이 흔히 꿈이 이루어진 순간을 행복하고 짜릿하며 환희에 가득찬 순간으로 묘사하곤 한다. 나도 그 순간을 바라며 아프리카까지 날아온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느낀 순간은 행복하기 보다는 슬퍼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모든 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별 게 없었던 탓이었다. 내리 쏘듯이 작열하는 태양, 널부러진 쓰레기들 사이로 먹을 걸 찾아 다니는 들개들, 정신 사나운 이집트식 노래까지 모든 게 정신 사납고 번잡스러워 신경이 거슬리기까지 했다. 하필이면 바로 전 여행지가 평화롭고 조용한 화가 가족의 집이었던 탓에 혼란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여기가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도대체 왜?"

도착한지 이틀이 돼도록 나는 이곳이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 같은 숙소에 머무는 한국인 여행자들은 밤마다 물담배인 시샤를 피러 가거나 당구를 치러가는 등 소소한 놀거리를 즐겼는데 그것조차도 흥미가 생기

지 않았다. 어차피 곧 떠날 거 같은데 아무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도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철저히 혼자 있고 싶었다.

"수영하러 갈래?"

도착한지 셋째날, 누군가 아무 생각없이 던진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물놀이를 하며 타들어갈 거 같은 더위나 식힐 심산이었다. 얼굴과 몸에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고, 바다 앞에서 1,000원을 주고 스노쿨 장비를 빌렸다. 바다로 슬금슬금 걸어들어가 낑낑 거리며 스노쿨 마스크와 오리발을 꼈다.

'후웁-하아 후웁-하아'

스노쿨 장비 사이로 뜨겁고 건조한 이집트 공기가 입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천천히 바다에 얼굴을 담구고, 살랑살랑 발길짓을 하며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눈 앞에 펼쳐졌다.

이집트의 차가운 바다에 얼굴을 묻은 순간, 인어공주의 배경음악 'Under the sea'가 자동으로 재생되며 온갖 진귀한 장면들이 눈 앞에 펼쳐졌다. 금빛 비늘을 가진 수십마리가 정어리떼가 곡선을 그리며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판타지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같이 시퍼렇고 특이한 문양이 몸에 새겨진 물고기들도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되보여 괜히 조심스러워지는 아기 물고기, 썸타는 것 처럼 서로를 향해 빙글빙글 도는 물고기, 친구들끼리 재밌는 장난을 치는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들까지 물 속 세상은 세상에서 제일 고요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맞다. 여기 전세계 다이버들의 성지였지!'

다합은 워낙 아름다운 물속 풍경을 자랑해 전세계에서 다이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때 누군가 나를 톡톡치며 말을 걸었다.

"저 쪽으로 가면 예쁜 산호초가 있어. 같이 보러갈래?"

룸메이트 언니었다. 언니는 내가 처음 온 날부터 적당한 무관심과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툭툭 챙겨주었다.

이미 물 속 관경에 홀딱 반한 나는 단박에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는 아직 물이 어색한 나를 위해 천천히 이끌어 주었다. 언니를 따라 산호초에 도착한 순간, 나는 또 한 번 경이로움의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아까 본 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듯이 바다는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나에게 본격적으로 보여주었다.

우아하게 뻗은 거대한 산호초 군락 사이로 알록달록한 열대 물고기들이 폭죽처럼 펑펑 자신들만의 물꽃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빨간 물감을 입은 물고기들이 불꽃이 펑 터지는 것처럼 모였다가 흩어졌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노란 물고기들이 불꽃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일직선을 그리며 헤엄치고 있었다. 바다는 내가 온 걸 환영한다는 듯이 성대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에 심장은 튀어나올것같이 두근거리고 호흡은 가빠와서 물 밖으로 얼굴을 재빨리 꺼냈다.

"푸하- .. 언니! 여기 뭐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랬어요. 티비속에서나 보던 장면에 눈 앞에 펼쳐져서… 너무 예뻐요"

"그러니? 내가 볼 땐 오늘이 요 근래중에 제일 별론데. 산호초 색도 이상하고 물고기도 별로 없네."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언니의 말에 놀랐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별로라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내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는 경이로움이었는데,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 만족스럽지 않은 풍경이라니… 언니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내 호기심과 갈망을 더 크게 자극했다.

만약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는 얼마나 거대할까?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갈망 때문에 가슴이 쿵쿵 뛰었다. 나는 바다를 처음 만난 거북이처럼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잠깐의 물놀이를 마친 후, 육지쪽으로 다시 헤엄쳐 돌아왔다. 물 위로 고개를 들었을 때, 햇빛은 여전히 강렬했고, 음악과 사람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그러나 내 안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이 이곳을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하 생략)

## 전문가 비평

**이재복**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부회장

김은지의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은 산문 형식을 띤 여행 에세이다. 에세이 중에서도 그것이 여행 에세이라는 점이 이 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행을 일상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그래서 여행은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모발이 폰으로 풍경을 찍어 그것을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은 이제 아주 흔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여행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행한 곳을 그로 쓰는 여행 에세이 역시 하나의 예술 양식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어떤 정보만을 전달한다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은 에세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행 에세이란 여행지의 풍경이나 체험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낯선 체험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령 어떤 곳에 갔을 때 체험하게 되는 풍광이라든가 그 지역의 음식, 말, 독특한 의식 등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인식한 것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표현할 때 독자는 여기에 공감하고 자신도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행 에세이의 좋은 예를 허영만의 『식객』이나 쿠스미 마사유키의 『고독한 미식가』 같은 음식 관련 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여 지는 각각의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는 음식과 그 맛에 대해 얼마나 치밀하게 묘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만화들을 독자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만화를 보고 '아 나도 저기 가서 저 음식을 맛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여행 에세이의 생명은 여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 풍부하게 묘사하고 표현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참신하고 낯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김은지의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집트의 "다합"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물론 나의 체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여행기를 읽어주는 사람은 독자이다. 나의 '산호초 군락 체험'이라든가 '배낭객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하우스 운영' 같은 이야기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차게 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다소 식상하고 김빠지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 에세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합"이라는 우리에게는 낯선 지역에 대한 간접 체험을 온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합"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낯선 것들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표현할 때 독자들은 거기에 가고 싶은 매혹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 혹은 글을 만들고 전개해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진정으로 "다합"이 "배낭여행자들의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표현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 발크 호수의 아이들
# 손으로 젓는 배
# 입에서 나온 유령
# 표정의 태만

**김화연**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작품 전체 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화

**발크 호수의 시체**

텅 빈 교실에 들어온 엘로이시안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칠판에 남은 전날의 흔적들을 걸레로 지웠다.

"역시 우리 모범생이 제일 먼저 등교했구나!"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엘로이시안은 선생님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엘로이시안이 칠판 정리하는 거야? 부탁하지 않아도 선생님 일 대신 해줘서 고마워. 우리 엘로이시안은 반장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왜 반장 선거에 안 나왔어?"

"반장은 수업 시작할 때 혼자 일어서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다보면 익숙해져서 별 거 아니게 느껴질걸? 다음엔 한번 나가 보렴. 엘로이시안 같은 아이가 반장이 되면 선생님한텐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선생님의 눈빛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엘로이시안은 수줍게 미소를 지어보이고 남은 낙서를 얼른 지웠다. 선생님은 교탁에 책들을 내려놓고 엘로이시안에게로 몸을 돌렸다.

"반장 되면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실 텐데. 엘로이시안, 저번에 제클리랑 있었던 일은 정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거니? 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잖니."

선생님은 다정하게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엘로이시안은 자신의 부모에게 진저리를 치는 선생님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흘 전에 다같이 교실 청소를 하던 중, 교탁 아래에서 쓰레기를 줍고 일어나던 제클리를 못 본 엘로이시안이 교탁으로 가다가 제클리의 머리에 코를 부딪히고 말았다. 코피가 나서 두 사람은 같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선 별 일 없이 끝난 일이 집에 가자 엉뚱하게 커졌다.

형겊으로 코를 막으며 집에 들어간 엘로이시안을 보고 엘로이시안의 부모님은 어찌 된 일인지 다그쳐 묻고는 사정을 들은 뒤에 엘로이시안을 데리고 제클리네 집으로 당장 찾아가려고 했다. 제클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과도 했다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일단 네가 코피를 흘렸으니 제클리도 똑같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 그러면 엘로이시안만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인데 본인들은 절대 그 꼴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제클리의 코를 주먹으로 쳐서 똑같이 코피를 내라고 하는 부모를 엘로이시안은 지금 눈앞의 선생님과 똑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었다. 엘로이시안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자 부모님은 선생님의 집에 찾아가 제클리를 혼내줘야 한다고 몇 시간 내내 고집을 부렸다.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선생님도 진땀을 뺐을 거다.

엘로이시안은 그런 부모가 싫었다. 상대의 태도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손해보는 걸 절대 못 참는 사람들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식이다.

"네!"

엘로이시안은 선생님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일부러 씩씩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의 근심어린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그래. 엘로이시안은 부모님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 아니 물론, 부모님이 화를 내신 건 당연해. 자기 자식이 다쳐서 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선생님은 변명하듯 말을 이었다. 그 앞에서 엘로이시안은 오히려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의 말을 차분하게 들었다.

"제클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엘로이시안이 잘 이해해줘서 선생님은 너무 고마워."

선생님의 칭찬에 엘로이시안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부모님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집무실에 간 뒤, 아이들이 점차 등교하기 시작했다.

"야! 발크 호수에서 시체가 나왔대!"

한 아이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반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치며 그 아이 주변으로 몰렸다. 엘로이시안은 제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방금 우리 이모가 보고 왔대. 살이 퉁퉁 불어서 흐물흐물해지고, 물고기한테 여기저기 물어뜯겨 있었대."

몇몇 여자아이들이 "으으윽!"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엘로이시안도 얼굴을 찌푸렸다.

"죽은 사람은 누구야?"

남자 아이가 물었다.

"얼굴은 이미 없어져서 확실하진 않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지고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에게로 눈동자가 돌아갔다.

"우리 이모가 옷 입은 거 보니까 킨지네 아빠 같다고 했어. 킨지네 아빠가 맨날 주황색 셔츠에 갈색 바지만 입는다고 했는데 옷차림이 똑같았대."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시선이 차츰 교실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킨지에게로 향했다. 한 남자아이가 킨지에게 말을 걸었다.

"야, 너네 아빠 호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대."

교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킨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킨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가 다시 말을 걸었다.

"지금 확인해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자아이는 소식을 들고 온 아이에게 시체가 나온 장소를 물었다.

"발크 호수에 갔다가 봤대."

"발크 호수면 남쪽 절벽에서 뛰어내린 거 아니야? 거기 사람들이 자살하러 가는 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아빠가 발크 호수 쪽으론 얼씬도 하지 말랬어. 남쪽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 시체가 물밑까지 흘러온다고. 거기서 킨지 아빠가 뛰어내렸나 봐."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나누며 시체를 킨지 아빠로 확정지어버렸다.

"우리 아빤 어차피 1년 전에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킨지가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나마 가까이에 있던 아이가 킨지가 한 말을 듣고 다른 아이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전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며 “쟤는 어떻게 자기 아빠가 죽었다는 데도 아무렇지도 않냐.”, “저런 무서운 애랑 말 섞지 마.”라고 수근거렸다. 그리고 저들끼리 발크 호수의 남쪽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다.

엘로이시안은 킨지를 보았다. 아까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킨지는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엘로이시안이 보기에 킨지는 우울해 보였다.

아빠가 아무리 미워도 확인해 보고 싶지 않을까? 호수에 가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엘로이시안은 생각했다.

마침 첫 수업이 야외 실습이라 아이들이 차츰 교실 밖으로 빠져나갔다. 엘로이시안은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창문을 닫으면서 굼뜨게 행동했다. 다른 아이들이 거의 다 나가고 킨지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슬며시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저, 우리 옆집 아줌마네 동생도 세 달 전부터 실종됐다고 그래서 이따가 발크 호수에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옆집 아줌마네 동생이 실종됐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평소 얘기도 잘 안 하던 사이인데 갑자기 발크 호수에 같이 가준다며 호의를 베풀면 킨지가 부담을 가질까 봐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다. 그런데 킨지가 비아냥 섞인 헛웃음을 날렸다.

“너는 옆집 아줌마네 동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킨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무래도 절벽 시체가 궁금해서 킨지에게 같이 가자고 한 걸로 오해하는 것 같았다. 호의가 비아냥으로 돌아오자 눈썹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킨지에겐 아빠의 죽음이 달려있으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킨지의 행동을 이해했다.

“나는 안 가. 네가 대신 확인해서 내일 알려 줘. 진짜 우리 아빠인지. 난 진짜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야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

“그… 그래.”

머리카락 사이로 빤히 쳐다보며 말하는 킨지에게 엘로이시안은 얼떨결에 대답해버렸다. 킨지는 마치 엘로이시안이 아니라 자기 아빠를 보며 독설을 날리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은 엘로이시안은 괜한 참견을 한 걸 후회했다. 킨지가 가지 않는다면 호수에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었다. 혼자 시체를 보러가는 것도 무서웠다. 퉁퉁 불어서 여기저기 물어뜯긴 시체라니.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하지 못 하고 어떤 핑계를 대야 킨지에게 한 약속을 무를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핑계를 대는 순간, 이전에 했던 선의의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대놓고 비웃는 킨지의 표정이 또렷하게 그려졌다.

결국 수업을 마치고 엘로이시안은 혼자 발크 호수에 찾아갔다.

호수에 다다를수록 손에 땀이 났다. 그런데 한 편으론 이상함을 느꼈다. 사방이 너무 고요하고 평온했기 때문이다. 시체를 보며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이나 경찰의 바쁜 움직임을 예상하고 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엘로이시안은 호숫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체가 이미 다 정리된 뒤라는 걸 깨달았다.

허탈함을 느끼며 괜히 물가를 서성이고 호수 저 편의 절벽을 보았다.

엘로이시안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눴던 발크 호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의문이었다. 절벽은 사람이 뛰어내려서 죽을 만큼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벽 아래 물살이 너무 세서 한번 빠지면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는 정도냐고 엄마한테 물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다. 그럼 깊이가 너무 깊거나 얕은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 왜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엔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고 놀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절벽 쪽에서 시체가 떠내려왔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절벽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갑자기 엘로이시안의 시선에 절벽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왔다.

엘로이시안은 먼지 한 톨 정도로 보이는 물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물체는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서서히 움직였다.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무언가라는 건 확실했다.

만약 저게 사람이라면, 엘로이시안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직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호수 왼편을 따라 달렸다.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지 않아 길의 흔적이 많이 사라졌지만 가장자리만 잘 따라가면 되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싹한 생각이 들

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시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사람이라면?

뜀박질이 우뚝 멈췄다. 살인자에게 제 발로 찾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저 사람이 살인자라면 엘로이시안은 더욱 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절벽 자살 사건의 숨은 가해자를 찾아낼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무거우면서도 설레는 책임감이 들었다. 절벽 근처에 가서 몸을 숨기고 절벽 위에 서있는 사람의 얼굴만 확인하자고 마음먹고 최대한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절반 정도 다다랐을 때 뛰면서 절벽을 확인했다. 그런데 아까 본 물체가 사라져있었다. 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아까 본 물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절벽까지 가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며 천천히 걸었다. 집에 갈까 하는 마음이 들자 아까의 책임감이 다시 찾아왔다. 한 번 느낀 책임감은 결과를 찾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엘로이시안은 다시 절벽으로 향했다.

절벽은 멀리서 본 것보다 더 낮았다. 다이빙을 하면 3초 만에 '첨벙' 소리를 내며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물살도 거의 없이 잔잔했다. 대체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걸까? 엘로이시안은 절벽 끄트머리에 서서 한 발씩 옮겼다.

갑자기 특이한 향이 코로 들어왔다. 근처에 처음 보는 꽃이라도 피어있나 싶어서 숲을 향해 고개를 돌렸더니 사람이 서있었다.

"앗 깜짝이야!"

"우와."

기척이 전혀 없었는데 엘로이시안의 한 발짝 앞에 여자아이가 서있었다.

"뭐야?"

놀란 마음을 숨길 새도 없이 여자아이는 상체를 기울여와 엘로이시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엘로이시안의 볼을 쿡 찔렀다. 그 행동엔 인간다운 배려나 조심성이 전혀 없었다. 고양이가 죽은 쥐를 툭 쳐보며 물어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과 같았다.

"야, 뭐 하는데!"

엘로이시안이 불쾌한 얼굴로 여자아이의 손을 쳐냈다.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절벽 끄트머리라 상체만 최대한 뒤로 물러났다.

"우와. 나랑 똑같아."

여자아이는 조금씩 더 엘로이시안에게 다가왔다.

"뭐가 똑같다는 거야?"

여자아이는 길게 땋은 머리카락, 쌍커풀이 짙은 눈에 투명한 갈색 눈동자. 엘로이시안은 하얀 피부에 쌍커풀 없는 눈, 진한 고동색 눈동자에 단발 머리였다. 나이는 비슷할지도 몰랐다. 이 아이가 아까 절벽 위에서 서성거렸던 걸까? 살인마를 상상하며 달려온 엘로이시안은 어쩐지 김이 새는 느낌을 받았다.

여자아이는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엘로이시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걸고있던 목걸이를 빼서 엘로이시안의 치마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거지 아저씨한테 전해줘."

"뭐, 뭐야?"

여자아이는 이를 드러내며 해맑게 웃었다. 동시에 두 팔을 뻗어 엘로이시안의 어깨를 밀었다. 순식간에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여자아이의 웃는 낯이 빠르게 멀어졌다.

어떤 생각도 미처 떠오르기 전에 몸이 물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하 생략)

• • •

## 전문가 비평

**이재복**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부회장

김화연의 「발크 호수의 아이들」은 아마추어의 솜씨를 넘어 프로의 느낌을 들게 할만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우선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이야기에 우리가 몰입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소설의 생명은 우리를 매혹시키는 서사의 힘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천일야화』 혹은 『아라비안나이트』 아닌가. 세헤라자드가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밤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씩을 들려주는 이 소설의 탄생 배경은 소설에서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의 힘은 독자를 끌어들이고, 그 독자는 다시 또 다른 독자를 끌어들여 하나의 이야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 서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재미를 추구하지 않는 소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설의 기본은 재미의 추구에 있다. 아무리 깊이 있는 주제와 세계를 다룬다고 해도 그것이 재미가 없다면 독자는 그것에 매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좋은 작가가 있다. 바로 이청준이다. 이청준의 소설은 지적이고 관념적이다. 게다가 문체 역시 숨 막힐 정도로 치밀하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의 소설에 친밀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

그 비밀은 바로 형식에 있다. 이청준은 즐겨 추리 기법을 활용한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천국』이나 『자유의 문』 그리고 『이어도』 같은 소설들은 모두 추리 기법을 활용한 소설들이다. 한국 문학사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당신들의 천국』을 보면 조백헌 원장이 소록도에 부임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탐문하고 추리해 가는 과정은 이 소설이 주는 무거운 주제와 세계 인식의 깊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영화에도 이런 추리 기법은 즐겨 사용된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는 그것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야기의 내용도 그렇지만 범인을 추리하고 탐문해 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추리 형식은 소설의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기법 중의 하나이다. 「발크 호수의 아이들」은 이런 추리 기법과 판타지적인 기법을 가지고 서사를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고 낯설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긴장감 있게 구성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수준 높은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추리 형식에 걸맞게 문체가 드라이하고 하드하다. 이것은 큰 강점이다. 축축하고 말랑말랑함이 주는 재미도 있지만 드라이하고 하드한 문체가 주는 재미도 있다. 이로 인해 이 소설은 이야기 혹은 서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이 소설이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만으로도 주목 받기에 충분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결말을 가지고 갈 것인지 궁금하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그 결말이 열려 있으면 더 흥미와 긴장이 배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섣불리 어떤 관습적으로 결말을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더 흥미와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열린 결말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하다. '발크 호수의 시체'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킨지의 아버지가 정말 살인자일까 하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말을 구상하면 좋을 듯하다. 또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할 어떤 반전을 보여주어도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잘 마무리를 하면 한 편의 좋은 소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나는 보지 못할 은하의 한 축이 된 너에게

## 계절 잠

## 슬픔이 내게 말했다

## 수면제

## 꿈꾸는 우울

**신나라**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작품 전체 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보지 못할 은하의 한 축이 된 너에게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내가 너를 멀리 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달력의 네모난 칸들을 손끝으로 그리며, 너에게 하고팠던 이야기들
매일을 너와 나누었는데...
이제는 너의 눈을 보고 아무 말도 걸 수 없게 되었다

몇년이 흘렀어도 이 말 한 마디 꼭 네게 닿기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힘든 너를 안아주지 못했음에
그저 말없이 내 삶을 지탱하던 너를 알아주지 못했음에

## 계절 잠

이른 봄꽃 다발 만들어 너의 창문가에 두면

그 향기를 맡고서 일어나줄까

여름 밤 맑은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빛에 함께한 우리의 시간을 담아
너의 방문 앞에 꽂아두면

문 틈새로 스며드는 빛을 보곤 오랜 잠에서 깨어나 줄까

곱게 접은 가을 한 페이지 떼어 너의 머리맡에서 읽어주면

단꿈을 꾸던 니가 내 목소리를 듣곤 슬며시 눈을 떠 줄까

새하얀 겨울 눈으로 눈사람 만들어 곱게 모은 너의 손 위에 올려 두면

차갑다며 놀라 일어나줄까

모든 노력에도 깨어나지 못할
너를 알아도

혹 깊게 잠든 모습인 것 같아 포기하지 못해

부질없는 희망만
하늘 높이 띄워 본다.



## 슬픔이 내게 말했다

슬픔이 내게 말했다.

그를 떠나 보낸 후 눈물로 꿈을 여는 내게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은 너를 사랑한단 말 습관이었는데, 이제 그 말은 허공에
흩어져 메아리만 울려오는 허망함만을 손에 쥐는 내게

시계가 몇백바퀴 돌아 조금은 성숙해진 내게
찾아온 너

앞으로는 그리움을 꼭 안고 살지 말라고
내가 떠나도 너는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슬픔의 깊은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너

이렇게 나를 응원하는 너의 품속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를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단단한 미소 한 자락  띄워낸다

나는 슬프나 마냥 슬프지 않다
그리우나 그리움을 달래는 법을 안다
보고싶으나 이 마음 가지런히 정리해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수면제

꿈속으로 다이빙할 수 있는 알약 한개
나를 초대하는 작은 알갱이

오늘은 너를 만날까
나를 만날까
우리를 만날까

미소가 맴도는
마음이 자유한
시간이 선물한 곳

언제든 풍덩! 빠져들고픈 세계



## 전문가 비평

**이재복**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부회장

먼저 신나라의 소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자신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소설 속의 나는 자아가 두 개로 분열되어 있다. 소설 속에서 이 두 개의 자아는 서로 갈등하고 충돌한다. 이들이 충돌은 장애에 대한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의식 내의 나와 무의식 내의 나는 장애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의식 내의 나는 장애를 넘어서고 극복하기 위해 의지와 행복을 보여주지만 무의식 내의 나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다.

무의식 내의 나는 칼 융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의 어두운 욕망 곧 그림자가 된다. 이 그림자는 나를 끊임없이 어두컴컴한 차원으로 몰아가면서 의식 내의 나의 결핍과 욕망을 충동질하고 또 보게끔 한다. 이런 점에서 나의 그림자는 나를 파멸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나의 결핍과 욕망을 직시하게 하여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도 한다. 그림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혹은 우리 인류가 성장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서 보여주는 자아의 분열 구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의식 내의 나 혹은 그림자가 좀 더 첨예하게 의식 내의 나와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신나라 작가가 보여준 4편의 시는 모두 그 나름의 시적 문법을 지니고 있다. 나와 너의 구도를 통해 전개되는 감정 혹은 정서의 흐름은 잔잔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정서가 모두 독특하고 낯선 감성과 형식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서 혹은 감정의 흐름은 시 쓰기에서 의미를 지닌다. 시의 출발은 바로 이런 감정과 정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좋은 시는 이런 감정과 정서를 세련되고 낯선 형식에 담을 때 드러난다. 4편의 시 중에서 「계절잠」은 이런 맥락에서 단연 돋보인다.

이른 봄꽃 다발 만들어 너의 창문가에 두면 그 향기를 맡고서 일어나줄까
여름 밤 맑은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빛에 함께한 우리의 시간을 담아
너의 방 문 앞에 꽂아두면 그 문 틈새로 스며드는 빛을 보곤 오랜 잠에서
깨어나 줄까

곱게 접은 가을 한 페이지 떼어 너의 머리맡에서 읽어주면 단꿈을 꾸던
니가 내 목소리를 듣곤 슬며시 눈을 떠 줄까
새하얀 겨울 눈으로 눈사람 만들어 곶게 모은 너의 손 우인 올려 두면
차갑다며 놀라 일어나줄까
묵묵히 버텨 내다가도 보고픈 마음 일렁여 울컥이는 날이면 스스로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말하는 나를 보면, 아니라고 잘 자라주었다고, 손 뻗어
머리 쓰다듬어줄까

이 시는 먼저 "계절 잠"이라는 제목부터가 매력적이다. 잠이 들어가는 많은 시어들이 있지만 "계절 잠"은 낯설게 느껴진다. 이 제목으로 전한 데에는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에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계절의 "잠"이 각각 다른 뉘앙스와 의미로 표현되면서 이 시는 한 편의 멋진 연시가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문장이 늘어지는 감이 있다. 이것은 시의 언어가 압축, 절제와 같은 연마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진 문장을 행갈이 하거나 언어를 압축, 절제하게 되면 시상이 더 함축적인 양태를 띠게 될 것이다. 시는 압축과 절제라는 고도의 언어의 탁마 과정을 거치면 독자로 하여금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압축, 절제와 버불어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마지막 연에서 시적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시상이 있다면 마지막 연에서는 그것들을 종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종합이 앞의 것들을 모두 나열하는 그런 식의 종합이 아니라 앞의 것을 수용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낯선 것을 제시하는 종합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시는 역설 혹은 엇이라는 구조를 지니게 되면서 보다 풍부한 시적 감성과 해석의 역지를 지니게 될 것이다.



# 나는 너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여명지**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작품 전체 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혜는 핸드폰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거나 기다리는 듯했다. 띠링하고 알람이 울렸다. 혜는 반사적으로 알림창을 눌러 메시지를 확인했다.

'장애인 콜택시 지연 안내'

- 대기자 5명

- 배차 예상 대기 시간 약 38분

'이동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역시나 지연 문자였다. 혜는 애써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헝클어트리고는 중얼거렸다.

"아, 벌써 몇 분째야. 출근 시간이라 그런가. 거의 한 시간도 넘게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혜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 자신의 얼굴 확인한 후,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금 단단히 묶었다. 그 와중에도 애교머리도 빼꼼 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엄마, 다녀올게."

혜는 아파트 정문을 지나서 빨간 벽돌길을 따라 버스정류장 앞에 도착했다. 버스정류장이 아파트 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리 많이 걷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혜의 숨은 거칠었다. 그렇게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를 몇 분, 곧이어 버스가 도착했다. 몇몇 사람들이 버스를 타자 드디어 혜의 차례가 왔다. 그러나 그 사이 겨울바람에 얼어버린 혜의 다리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를 못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혜가 버스에 오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나빠지는 듯 했다. 겨우 올라선 버스에서도 이미 자리가 만석이라 혜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자신이 다리가 불편하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은 정말이지 도저히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혜는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난간을 팔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의 속도는 혜의 근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혜는 사람들이 혜에게 구급차를 불러준다는 것을 한사코 사양하며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별별 여성장애인 센터' 라고 적힌 작은 문패가 형광등에 의해 반짝이는 듯 보였다. 자동문을 열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혜가 도착하자 크림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여성분이 혜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혜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신청해주셨던 분 맞으시죠? 반가워요. 저는 김유나예요. 유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유나는 다정히 미소를 짓다가 혜의 바지가 엉망이 된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네, 제가 혜 맞아요. 넘어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보다 오늘 프로그램 기대되네요."

혜가 화제를 돌리려는 듯 멋쩍게 코를 훌쩍이며 헤헤하고 웃었다.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에요. 나중에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유나는 꼭 신신당부를 했다.

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며칠 전 SNS를 뒤적이다가 여성장애인 자조모임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평소 장애인이나 사회와 관련된 뉴스를 구독했었기에 이름은 알고 있는 단체였다. 원래의 혜는 새로운 모임에 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시간이 많은 때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재밌었다.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조금은 친해진 것 같기 때문이다. 모임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이셨다. 각자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 같은 뇌병변 장애여도 실제로 몸에 나타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점이 신기했다. 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교내에 있는 장애인이 손에 꼽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그래봤자 10명 정도였지만) 장애인들을 만나니 소속감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연락처도 주고 받았고 다음주 프로그램에서도 만나기로 약속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무사히 장애인 콜택시를 탄 혜는 무의식적으로 그 애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멈칫하고 결국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 애의 연락을 혜는 기다렸다.

• • •

혜가 그 애를 처음 만난 것은 17세가 되던 겨울날, 고등학교 입학식이었다. 작고 얇은 입술, 높게 묶은 머리, 흰 피부, 날카롭게 올라간 눈꼬리를 가진 그 아이는 혜와 같은 반이었다. 학업 우수로 입학했는지 표창을 받던 아이의 눈매가 둥글게 호선을 그렸다. 혜는 웃으면 인상이 많이 바뀌는 친구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계기는 사소했다. 복도의 층계참을 지날 때, 그 애가 몸이 불편한 혜를 위하여 손을 잡아주 었으므로. 혜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다.

"잡아줘서 고마워, 넌 이름이 뭐야?"

그 아이가 대답했다.

"난 지나라고 해."

아니, 사실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혜의 눈에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우연찮게도 그 해 혜는 지나와 짝궁이 되었다. 혜는 츄잉캔디를 지나에게 내밀며 어젯밤 연습했던 말을 내뱉으려 했다. 그러나 지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 했었지. 이거 나 주려고 꺼낸 거야?"

지나는 혜가 준 츄잉캔디를 까 먹으며 말했다.

"고마워. 넌 어디 중학교 나왔어?"

혜는 열심히 대답했다. 지나와 친해지고 싶었기에. 하지만 너무 기대를 한 탓일까? 지나와는 교실에서 말을 섞는 사이에 그쳤다. 혜에게는 도우미 친구가 있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동 수업을 할 때, 혜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거나 혜와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었다. 도우미를 하면 생활기록부에 쓰이는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에 이 활동이 기록되며, 봉사시간도 받는다. (이하 생략)



## 전문가 비평

**이재복**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부회장

여명지의 「나는 너를 사랑할 지도 모른다」는 문장이 짧고 명료하다. 이것은 가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일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장이 짧고 명료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단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용이함으로만 그것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작가가 헤밍웨이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노인과 바다」는 이러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문장 스타일은 작가의 취향일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길고 유려한 문장에 대한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사하기가 어려워 짧고 명료한 문장을 쓴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길고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글쓰기에 대한 수련 과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짧고 명료한 문장과 길고 유려한 문장은 모두 적절히 구사하면 글의 맛과 멋을 내는 데 적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좋은 글쓰기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명지의 「나는 너를 사랑할 지도 모른다」에서 엿보이는 것은 길고 유려한 문장 구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길고 유려한 문장에 대한 도전이 필요해 보인다.

문장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문제 의식은 제법 진지하다.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동성애,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 같은 무겁고 예민한 주제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자칫 인습적이고 도그마적인 차원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지나치게 어느 한 편으로 몰아가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가가 제기한 문제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그 문제들은 작가에 의해 제법 진지하게 또 객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령 동성애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을 확보하면서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와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눈이 표피적이지 않고 진지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가령

그 뒤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을 물어 보며 차근차근 상담이 진행되었다. 혜는 그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아니라 고 정정을 해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다. 그렇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 혜는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뭐랄까? 혜 자신의 자신감 문제이기도 했다. 이미 혜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에서 벗어난 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를 좋아한다는 비정상성을 더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상담의 내용은 그래도 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같이 상담을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는 법을 연습했기 때문이다.

같은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혜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에서 벗어난 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를 좋아한다는 비정상성을 더하고 싶지는 않았다."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존재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웅숭깊음이다.

비록 문장 구사와 문체에 대한 미숙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작가가 가지는 장점이다. 이 장점을 살리고, 문장과 문체에 대한 능력도 키워나간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본다.



# 그림 같은 집

# 몽당색연필

**이현주**

대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작품 전체 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1 생일

"안 먹는다고! 기차 시간 다 됐다고."

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아빠의 고집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마, 30분이면 먹고도 남는다. 뭐하노? 빨리 글로 차 돌리라."

"아니, 엄마. 됐다고. 배 하나도 안 고프다. 그냥 갈게."

나와 엄마의 실랑이가 길어지자, 딸 봄이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여보, 그냥 먹고 가요. 집에 가서 또 울지 말고요."

한두 번 보는 광경이 아니라는 듯 남편까지 나를 슬슬 달래자,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펜션에서 기차역 가는 길과 반대 방향에 있는 보문단지 쪽으로 차를 돌렸다. 오늘도 일방적이다.

몇 시간 전 생일이니 점심이라도 먹게 나오라는 고등학교 동창 지민과 은정의 전화가 화근이었다. 전화기 너머 기차 시간 여유 있으니 생일 초도 켜고, 빠른 점심을 하자는 친구들의 말에 봄이 쪼르르 이안에게 달려갔다.

"이모, 이모는 엄마 생일 언제인지 알아?"

"응, 알지. 9월이잖아."

"9월 며칠인데? 근데 왜 아무도 생일 케이크 안 사줘?"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이안은 고개를 돌렸다. 봄의 질문이 없었다면 올해 생일도 그저 지나가는 날이었겠지. 여우같은 동생 이안이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 테고, 엄마는 또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나를 그만 섭섭하게 하라고 아빠를 구슬렸겠지.

"20살에 집 떠나고 내 생일 언제 기억했다고, 뜬금없이 다들 유난을 떨고 왜 이래?"

답답한 차 안의 공기가 너무도 숨 막혀, 나도 모르게 푸념이 새어나왔다.

"출가외인 딸년 생일도 내가 기억해야 되나? 세상이 말세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의 말이 화살처럼 튕겨져 나와 내 가슴에 박혔다. 또 시작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어디 확성기에서나 흘러나올 법한, 생일마다 들려오는 그 말 속에 나는 태어난 날조차 기억할 필요 없는, 비루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열여섯 나의 생일까지, 본인은 먹지도 않는 미역국을 왜 끓이느냐고 엄마를 타박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축하받아야 할 생일마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아빠를 보며 어떻게든 기숙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고 독립을 재촉했다. 열일곱의 생일 아침, 엄마가 기숙사로 생일 밥상을 차려 왔을 때 아빠의 얼굴을 안 봐도 되는 것이 이렇게 나를 숨통 트이게 하는 것임을 처음 알았다. 아빠와 함께했던 나의 생일은 장담컨대 단 한 번도 축하의 날이 아니었다. 아빠한테 된통 잔소리 들을 것이 뻔한 열일곱 생일 주말, 기숙사에 남아 따분한 토요일을 보내는 이는, 다섯 명의 룸메이트 중 나와 포도밭집 딸 지민뿐이었다.

"주희, 니는 좋겠다. 아빠가 진짜 재미있으셔서."

"너거 아빠 너무 좋으시던데? 니한테 공주라 하시길래 완전 놀랐잖아."

"뭐라 카노? 이 나이에 공주라 불리는 거 나는 짜증난다. 아 맞다. 맞다! 내가 지난 주말에 숙제 물으려고 너거 집에 전화했거든? 너거 아빠가 '니 못 들었나? 주희 유학 갔다.'하시는 거라, 내가 놀래서 '언제요? 오늘 주희 학교 왔는데요?' 했거든. 그라니까 '방금 갔다, 니 비행기 소리 안 들리나?'카는데 진짜 너무 웃겨, 쓰러질 뻔 했다. 완전 재밌잖아."

"....."

친구의 말에 나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친구에겐 재미있을지 몰라도 나에겐 의미 없고 시시껄렁한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나마 나에겐 그런 농담조차 한 적이 없었다. 차갑고 무뚝뚝한 말투로 내 마음에 생채기내는 말만 할 뿐이었다. 다가가려는 나를 끊임없이 밀어내는 느낌.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제는 아빠뿐 아니라,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이안에게도, 바보같이 살고 있는 엄마에게도 모두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억지로 상 앞에 앉아 삼키지도 못할 고기를 잘근잘근 씹고 있는 나에게, 아빠는 누구는 시댁에서 상속을 얼마 받았다느니, 부모에게 땅을 사줬다느니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냈다. 고기는 고무줄처럼 질기기만 했고, 밥은 씹을수록

쓴 맛이 올라왔다. 결국 이렇게 영양가도 없는 이야기나 하려고 붙잡았느냐 속내를 비추고 말았다.

"아이고, 마. 다 시끄럽고 빨리 먹고 가라. 니도 아빠 하루이틀이가? 오늘따라 유별이다."

엄마의 말에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내가 생각해도 오늘 난 참 유별이다. 그래도 오늘은 그런 나를 그냥 두기로 했다. 밥도 몇 술 뜨지 못 한 나의 생일, 도망치듯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 2 인사

언니가 떠났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단 한 번도 인사 없이 떠난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너무 바빠서 같이 밥도 못 먹었는데,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애꿎게 또 손님이 몰려온다.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시계는 오후 1시 23분을 알린다.

이렇게 또, 타이밍을 놓쳤다. 늘 언니에게만 연락할 타이밍이 어긋난다. 그러고 보니 어제 도착 연락도 없었네. 매번 도착했냐고 물으려 하면 언니에게 먼저 연락이 온다. 애들 챙기랴 짐 챙기랴 답을 하는 것이 번거롭겠지 싶어 답을 안 하는 것이 익숙해졌더니 메시지가 안 온 줄도 몰랐다. 그러고 보니 점심이 지났는데, 가족 방도 조용하네.

"어제 가면서 많이 서운했지? 케이크도 하나 못하고, 생일 축하해! 어제 인스타 피드 보고 적잖이 많이 놀랐어. 언니야의 마음은 이제 닫혀버렸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되었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을 조금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생이 없는 것만도 못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해. 고맙고 미안해." (이하 생략)



## 전문가 비평

**이재복**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부회장

이현주의 「그림 같은 집」은 가족을 대상으로 그 속에서의 나의 위치와 상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 혹은 가족들 상호 간의 관계설정이다. 소설을 쓰기 전 이러한 작품 속 인물들 간의 관계 설정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 설정 없이 소설을 쓰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글이 쓰여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성미와 구조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소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하게 스토리, 인물, 구성, 주제 등에 대해 꼼꼼하게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림 같은 집」은 나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과의 관계 설정을 기반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가족 관계가 어떤 결핍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핍은 주인공 나의 친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재혼에서 비롯된다.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와 나, 그리고 그 새어머니가 낳은 여동생인 이안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핍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위의 행사 등이 결합되면서 이들 가족은 복잡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소설 속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복잡한 가족 사이의 갈등과 대립, 복잡한 내면의 심리 묘사가 전제되어야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서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설에서는 그러한 리얼리티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 작품에서의 서사적 밀도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야기가 분산되다 보니까 밀도는 약화되고 소설의 주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나의 내면의 상처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나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과의 관계를 나와 어머니를 중심에 놓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중심 서사는 나와 어머니, 다시 말하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보아넘길 수 없는 미묘함이 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서로의 행동에 대해 그것을 가식적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나의 새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 비록 새어머니가 나를 살갑게 혹은 진심으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새어머니의 진정을 의심하기 때문에 엇나갈 수밖에 없다. 이 엇나감이 바로 이 소설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엇나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이 소설을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엇나감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그 엇나감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소되는지 등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나와 새어머니와의 화해를 추구한다. 새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와 새어머니가 화해하는 결말이 바로 그것이다. 새어머니의 나에 대한 진정성이 그 편지를 통해 부각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이러한 결말은 다소 나이브한 감이 없지 않다. 너무 뻔한 결말이라는 점에서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더 낯설게 하기의 과정을 통해 재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가령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같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계 설정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전쟁 통에 동생을 버린 언니, 그것도 자신이 7살 때 5살 난 동생을 버렸고,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지만 선뜻 자신이 언니라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관계 설정, 그리고 그 소설의 말미에 여동생이 자신의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처신을 참회하는 그런 이야기는 핍진성과 함께 낯설음도 제공한다.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관계 설정이 있어야 우리는 이현주의 「그림 같은 집」에서 그 이야기의 핍진성과 낯설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양희**
이번 아카데미에서 신진예술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자기 언어를 갖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언어가 열리고, 끝까지 써봐야 다음 세계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음은 차이를
지우는 연대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를
서로 보이게 만드는 연대입니다. 모든
신진예술가가 자기 언어를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얻고, 그 언어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때로는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민경**
여러분이 문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여러분께서 글밭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화연샘,
담담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현주샘,
감정의 서사가 돋보이는 명지샘, 아름다운
문장을 쌓아올리시는 은지샘, 성실하게
글과 마주하시는 나라샘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글밭에서 만나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지**
쉬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때때로 어떤 순간, 어떤 장면, 어떤 기억은
오랜 감정을 싹틔우고, 계기가 되고, 내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점을 삶의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여름 한때,
손에 쥐었던 사과의 감각과
깊이 들이쉬었던 오묘한 향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나간, 지나갈 우리의 한때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는
작은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귀중한 한때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덕분에 문학의 효용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을 작은 점들이 모여
별처럼 오래도록 반짝이기를 바라며. 총총.

2025 이음

#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자과정

(전문예술교육)



국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양대학교

국악

# 正心正音
# 정심정음

**정심정음(正心正音)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소리를 바르게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이 공연은 문장 안에 담긴 깊은 의미,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에서 비롯된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정심정음은 장애와 비장애, 전통과 현대,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소리'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이 무대에 서는 예술가들은 각자의 신체적 조건과 감각의 차이를 통해 음악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숨은 일정하지 않고, 리듬은 매번 다르게 흔들리지만, 바로 그 불균형 속에 미학이 있다.**

**공연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장은 '숨의 정제' 인간의 내면이 고요히 정리되는 과정을 피리의 소리로 표현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숨의 이야기', 숨이 정리되면, 마음이 말을 시작한다. 판소리는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마음의 서사다. 이 장은 각자의 삶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소리로 엮는다. 감정과 기억이 교차하며 살아온 시간이 노래로 변하고, 삶을 노래하는 인간의 목소리는 곧 예술의 가장 순수한 형식임을 드러낸다.**

**세 번째 장은 '숨의 파동'으로 희로애락을 타악기로써 드러낸다. 불완전한 장단 속에서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이 뒤섞이고, 삶의 기쁨은 울림이 되어 공간을 채운다. 모든 소리와 숨이 하나로 합쳐지는 절정의 시간이며, 그 마지막 공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바른 소리란 무엇인가? 그 답은 마음에 있으며 완벽함이 아닌 진심의 울림에 있다.**



# 우리의 마음과 소리의 결

**숨의 정제**
박범훈류 피리산조

박범훈류 피리산조는 피리 특유의 격조와 흥취를 동시에 드러내는 작품이다.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이 맞물리며 긴장과 해소가 교차한다. 원형 산조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연주자가 직접 변주와 리듬 확장을 시도해 '즉흥의 미학'을 새롭게 구현하였다. 익숙한 가락 속에서도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소리의 결이,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피리의 본질을 보여준다.

**숨의 이야기**
춘향, 노래로 만나다.

이도령과 방자가 남원으로 향하던 길, 흥겨운 민요 소리가 들려온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액맥이타령'을 부르며 한바탕 흥을 나눈 두 사람은 웃음과 노래 속에 남원 고을로 향한다. 이윽고 춘향의 집에 도착한 이도령은 사랑하는 춘향과 마주하며, 진심이 담긴 '사랑가'를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사랑과 흥, 그리고 한민족의 정서를 담은 한마당이 펼쳐진다.
민요와 판소리가 어우러진 이번 작품은 전통의 소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어 관객에게 따뜻한 웃음과 여운을 선사한다.

**숨의 파동**
사물판굿과 선반설장

이번 작품은 사물판굿의 구조와 정신을 모티브로 한 창작 연희이다. 꽹과리, 징, 장구, 북의 기본 구성은 유지하되 전통적인 장단 배열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각 악기의 리듬적 역할과 에너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구성했다.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전통의 흥과 신명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몸의 움직임과 리듬의 파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물의 호흡'을 시도하였다.

# 참여자 소개

**문종석**
낮은 음 하나에도 마음을 담으려 했습니다.
진심으로 낸 소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설정섭**
처음엔 낯설었지만, 소리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작은 울림이 모여 큰 파도가 되길 바랍니다.

**윤다형**
낯설던 시작이 어느새 익숙한 설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강재희**
7월의 무더운 날, 여름꽃 무궁화처럼 피어난
그날의 입학식. 나도 하리라. 아름다운 절창의
소리를 하리라!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김문희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비나리
수업을 마치며,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해 복을
빌어봅니다.

**김택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이
두세 걸음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준혁**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막상 가면 신나는 타악~

**박세은**
신난다~ 잘한다~ 얼쑤!!

## 멘토예술가의 말

**배주현**
이번 과정을 함께한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피리산조의 창작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자신만의 호흡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냈습니다.
소리를 통해 전통을 배우고, 또 자신을 발견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정영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노력해 준 세은과 준혁 멘티에게 감사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매 순간 성실히 연습에 임하였고, 항상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연습해 왔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선반 설장구는 그 노력의 결실이자 두 멘티가 만들어낸 열정의 소리입니다. 이 두 젊은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김문희**
흥으로 가득했던 판소리반,
설정섭 선생님, 김택곤 선생님, 윤다형 선생님, 강재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어우러져 더욱 빛나는 판소리반이 되었습니다.



## 전문가 비평

**안건용**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기도립국악단 수석단원

**박준혁**

박준혁의 연주는 단순한 박자의 반복이 아니다. 그는 리듬을 '조직'한다. 그 안에는 패턴과 논리가 있다. 서울예대에 입학한 1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리듬 감각은 놀라울 만큼 성숙하다. 박준혁은 타악기를 단순한 퍼포먼스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의 구조를 형성하는 언어로 이해한다. 그의 손끝에서 울리는 리듬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다.

그는 장단의 틀 안에서 자유롭다. 이번 공연에서도 복합적인 리듬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형된 패턴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중중모리에서 자진모리로 넘어가는 급격한 속도 변화 속에서도 박준혁은 박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도를 리듬의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런 감각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타고난 구조 감각에서 비롯된다. 그는 소리의 강약보다 리듬의 결을 본다. 그래서 그의 타악은 언제나 긴장과 해소가 명확하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연주가 지닌 집중의 깊이다. 박준혁은 무대 위에서 불필요한 동작이 없다. 시선과 몸이 리듬에 완전히 일치하며, 그 집중이 청중에게 전해진다. 그는 리듬을 소유하지 않고 그 안으로 스스로를 녹여 넣는다. 이런 몰입은 그가 음악을 통해 '자기 언어'를 찾고 있다는 증거다. 장애라는 신체적 제약보다 오히려 감각의 예민함이 그의 리듬을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그의 연주는 기술적이면서도 감정적이다. 박준혁은 계산된 리듬 안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는다. 그는 리듬의 완결보다 흐름을 중시하고, 박의 간격 사이에 감정을 담는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이미 '리듬을 연주하는 사람'을 넘어 '리듬으로 사고하는 예술가'의 단계에 있다.

무대 위의 박준혁은 동생 박세은을 비롯한 타인과의 호흡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그는 타악의 리더처럼 전체 흐름을 정돈하며, 상대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여유를 보여준다. 그 배려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음악적 책임감이다.

그는 아직 학생이지만, 그의 리듬은 이미 프로의 영역에 닿아 있다.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타인과 호흡한다는 점에서 박준혁은 새로운 세대의 타악 연주자상을 예고한다. 그의 음악은 젊지만 깊다. 그 깊이는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부터 나온다.

**박세은**

박세은의 연주는 계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본능적인 리듬의 감각이 있다. 그녀는 악보보다 몸으로 음악을 이해한다. 손끝의 움직임과 시선의 방향, 그리고 타악기의 울림이 하나의 언어처럼 연결된다. 19세의 나이에, 그것도 발달장애라는 조건 속에서 이만큼의 집중과 리듬 감각을 보여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녀는 이미 '타악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리듬을 느끼는 사람'으로 무대 위에 서 있다.

이번 공연에서 박세은은 이전보다 한결 단단해진 손놀림과 뚜렷한 박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불규칙했던 동작이 점차 일정한 호흡을 갖게 되었고, 주변 소리에 반응하며 자기만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장단이 바뀌는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손을 맞추며 리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그녀에게 리듬은 외워야 할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자라나는 감각이다.

박세은의 음악적 가능성은 기술적 완성보다 '감정의 진정성'에 있다. 그녀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솔직하다. 악기를 칠 때마다 표정이 바뀌고, 그 표정의 변화가 리듬의 강약으로 번역된다. 청자는 그 안에서 즉흥적이지만 순수한 표현의 힘을 느낀다. 그녀의 리듬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살아 있는 음악을 만든다.

무대 위의 박세은은 조용하지만 집중적이다. 리듬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다시 중심을 찾으려는 태도는 성장의 증거다. 주변의 도움 없이도 점차 박을 유지하려는 모습에서 음악적 자율성이 싹트고 있다. 그녀는 연습 때보다 무대에서 더 몰입하는 타입이다. 이는 '연주를 통한 감정의 통로'를 이미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세은은 아직 성장 중이다. 하지만 그 성장은 느리지만 확실한 리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녀의 타악은 배운 기술이 아니라 살아 있는 감각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두드림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의 그녀는 미완의 형태이지만, 그 미완 속에는 앞으로 피어날 예술의 씨앗이 있다.



**설정섭**

설정섭의 음악은 '듣는 사람의 시선'으로 완성된다. 시각장애 경증이라는 조건은 그에게 불편이 아니라 하나의 미학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청각의 질서로 인식한다. 무대 위에서 그는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대신 소리의 거리, 반사, 방향감으로 구조를 읽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리듬의 질서와 시간 감각은 일반적인 연주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내면적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번 공연에서 설정섭은 특히 중저음의 울림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발성과, 감정의 과잉 없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호흡을 선보였다. 그의 소리는 단단하고 투명하다. 과도한 진동이나 불필요한 강세가 없으며,

매 음마다 정확한 의도가 담겨 있다. 청각 중심의 공간 인식이 가져온 리듬 감각은 정교하다. 다른 파트의 소리와 타악의 박을 빠르게 포착하며, 그 안에서 본인의 소리를 밀도 있게 배치한다.

그의 음악은 외형적인 움직임보다 내면적 리듬의 논리에 가깝다. 그는 시각 대신 청각을 통해 리듬의 구조를 '그린다'. 이 방식은 단순한 감각 대체가 아니다. 오히려 감각의 통합에 가깝다. 그는 청각으로 리듬을 느끼고 신체로 그 리듬의 파형을 복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정섭의 음악은 '기억된 리듬'으로 진화한다. 그가 내는 소리는 즉흥적이면서도 논리적이고, 감정적이면서도 절제되어 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감정의 조율 능력이다. 그는 감정의 강약을 소리의 길이와 압력으로 조정한다. 소리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도 감정의 밀도를 전달하는 능력은 고도의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다. 이는 훈련의 산물이자 장애 감각을 예술적 언어로 전환한 결과다.

설정섭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면의 집중이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보이지 않기에 더 깊이 '듣는다'. 그의 연주는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세계를 그리는 사람의 확고한 태도를 증명한다. 한 음의 시작과 끝, 그 미세한 차이를 통해 그는 무대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가 그려낸 리듬의 세계는 조용하지만 견고하며, 들리는 것 너머의 차원을 향하고 있다.

**강재희**

강재희의 음악에는 일종의 질서가 있다. 그는 소리를 흩뜨리지 않는다. 모든 음은 의식적으로 배치되고, 호흡은 계산된 듯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울예대에서 수련 중인 전공자답게, 그의 음악에는 체계적인 훈련의 흔적과 이론적 사고가 깊이 배어있다. 그러나 그 체계가 단조로운 틀로 머물지 않는 이유는 강재희가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숨쉬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그는 완벽히 정돈된 소리로 무대를 통제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았다.

그의 발성은 명료하고 단단하다. 고음에서는 소리를 밀어올리지 않고 기류를 타듯 매끄럽게 전환한다. 중저음에서는 울림이 안정적으로 깔리며 곡의 중심축을 단단히 세운다.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통제된 절제의 미학이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관리'하고 '배치'함으로써 음악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강재희는 감정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 에너지를 선율과 호흡의 구조 속에 재배열한다. 그 결과, 그의 음악은 절제되어 있지만 결코 차갑지 않다.

무대 위에서 그는 리드한다. 그 리더십은 말보다 시선과 호흡으로 표현된다. 주변 연주자들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읽어내며, 그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러한 조율 능력은 단순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공간적 구조물'로 이해 하는 전공자의 직관에서 비롯된다. 그의 소리는 자신만을 위한 독백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악보처럼 읽어내는 통합적 시선 위에 있다.

무엇보다 강재희의 음악이 흥미로운 이유는 완벽함 속에서도 느껴지는 긴장감이다. 그는 완벽함에 도달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 완벽함이 무너지는 경계에서 새로운 감정을 발견한다. 그 경계 위에서 그의 소리는 살아 움직인다. 그가 구축한 질서는 정적인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유기적 체계다.

강재희는 이미 학생의 단계를 넘어, 무대를 통제할 줄 아는 연주자다. 그의 절제는 단순한 기교의 산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는 예술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는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음악의 질서를 세운다. 그 단단함 속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여운이야말로 그가 앞으로 쌓아갈 예술의 시작점이다.



**윤다형**

윤다형의 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거쳐 나온 서사적 울림이다. 시각장애를 지녔지만, 그녀의 청각은 세상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러나 그녀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감각의 민감함 때문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소리로 해석하는 통찰력 때문이다. 그녀가 부르는 한 소절에는 지나온 시간, 견뎌낸 관계, 그리고 다시 노래로 되살아난 감정이 서려 있다. 이번 공연에서 윤다형의 판소리는 그러한 시간의 흔적을 하나의 구조로 엮어냈다.

그녀의 소리는 화려하지 않다. 대신 무게가 있다. 첫 음이 시작될 때 이미 그녀의 몸과 삶이 함께 울린다. 호흡의 시작은 마치 회상처럼 느리고, 소리의 끝은 오랜 여운으로 남는다. 그녀는 판소리의 극적 요소를 이용하되, 그것을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울분의 장단이나 탄식의 농현조차 절제되어 있으며, 그 절제 속에서 삶을 정리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느껴진다. 그 소리는 인위적인 연출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낸 인생의 목소리다.

청각적으로는 섬세하고, 리듬적 감각도 정교하지만, 진정 윤다형의 음악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이야기를 부르는 방식이다. 그녀의 판소리에는 무대적 화려함보다 일상의 호흡이 깃들어 있다. 대목마다 감정의 층위를 쌓아가며, 한 사람의 생애가 흘러가는 듯한 구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판소리가 원래 지녔던 '삶의 예술'로서의 본질을 되살리는 행위다.

무대에서 윤다형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음악적 언어로 바꿔내며, 감각의 차이를 '소리의 진정성'으로 승화시킨다. 청중은 그녀의 노래를 듣는 동시에 한 사람의 시간을 듣는다. 그 시간은 단조롭지 않다. 고요하고, 때로는 거칠고, 그러나 결국 따뜻하다. 윤다형의 판소리는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소리'다.

그녀의 예술은 판소리의 전통을 새로 쓰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소리나 장단의 정밀함이 아니라 삶이 예술로 변환되는 순간의 진실을 담고 있다. 윤다형의 무대는 바로 그 진실의 자리다. 소리가 인생을 대신 말해주는, 조용하고도 깊은 울림의 무대.

**문종석**

문종석의 피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소리는 선명하지만 결코 앞서지 않고, 리듬은 정교하되 여유를 잃지 않는다. 그의 음악에는 배려가 있다 — 동료의 소리를 먼저 듣고, 그 여백 속에 자신의 피리를 얹는 사람. 그런 태도는 단순한 성격의 반영을 넘어, 그의 예술의 본질이 되었다. 그는 소리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리듬을 통해 질서를 세운다. 이번 공연에서 그가 보여준 연주는, 피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결코 중심을 독점하지 않는 음악이었다.

문종석은 피리의 선율을 섬세하게 다룬다. 그의 연주에서는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음악의 일부로 느껴진다. 강약의 대비가 크지 않음에도, 듣는 이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 그는 음 하나하나의 호흡적 시간을 알고 있다. 소리를 내는 순간보다, 멈추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의 피리에는 침묵이 많고, 그 침묵이 곧 음악의 리듬이 된다.

박범훈류 피리산조의 중중모리·자진모리 구간에서 그는 급격한 장단의 변화를 섬세하게 제어했다. 빠른 장단 속에서도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리듬이 정제된 긴장감을 유지한다. 특히 즉흥 변주 구간에서 보여준 감각은 탁월했다. 그는 단순히 선율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의 미세한 밀고 당김 속에서 감정의 결을 새롭게 엮는다. 리듬이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에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 인내와 통제는 그의 성격과 닮아 있다.

문종석의 피리는 격정적이지 않지만, 깊은 집중으로 청자를 이끈다. 감정을 외치기보다 구조 안에서 스스로의 언어를 찾아낸다. 섬세한 감정의 결, 정돈된 리듬, 그리고 그 사이의 미묘한 공기감이 그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소리를 주도하지 않고, 이끌어낸다. 그 배려와 절제 속에서 전체 음악의 균형이 완성된다.

그의 예술은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관계와 흐름의 미학에 가깝다.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심히 감싸며, 피리의 음색으로 ensemble 전체의 온도를 맞춘다.

그 따뜻한 조율이야말로 문종석의 진짜 음악이다. 그의 피리는 무대를 장악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무대를 완성한다.



**김택곤**

김택곤의 소리는 언제나 신중하게 시작한다. 그는 신장장애라는 신체적 조건 속에서 호흡과 에너지의 흐름을 누구보다 치밀하게 관리한다. 그러나 그 치밀함은 계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소리는 '조용한 긴장'을 품은 채, 하나의 미세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발성의 밀도와 호흡의 흐름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긴장감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선 예술적 집중의 결과다.

이번 리허설에서 김택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호흡 구조를 보여주었다. 호흡의 지속이 길어졌고, 음의 시작과 끝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호흡의 질감 자체를 음악적 표현으로 끌어올린 점이다. 그는 호흡을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라 감정과 구조를 동시에 운반하는 매개체로 다룬다. 소리의 흐름이 매 순간 의식적이지만, 결코 인위적이지 않다. 그것은 자기 한계와 싸우며 얻어낸 자연스러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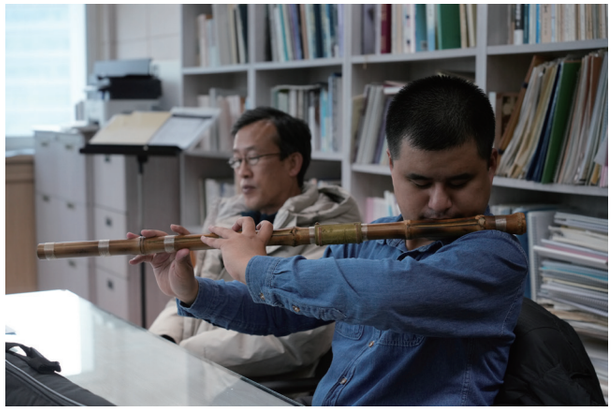
감정의 조절에서도 그의 절제는 인상적이다. 김택곤의 음악은 과시되지 않는다. 감정의 고조가 필요한 순간에도 그는 소리를 밀어붙이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난다. 그 거리감 속에서 청자는 그의 내면을 본다. 무리한 힘이 아닌 신체와 호흡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그에게만 가능한 해석이다. 특히 중저음 구간에서 들리는 밀도 높은 울림은 그가 단순히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다스리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그의 소리는 장애라는 조건을 넘어선다. 오히려 그 제약은 음악적 시간 감각을 확장 시켰다. 그는 한 음을 오래 바라보고 긴 호흡을 통해 그 음의 질감과 무게를 탐구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적 통찰이다. 소리의 시간성과 에너지의 균형을 정확히 인식한 연주자만이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이다.

김택곤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묵직한 설득력이 있다. 그는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리듬과 호흡을 통해 조용히 '존재한다'. 그의 예술은 외침이 아니라 응시다. 숨의 길이를 통해 시간의 길이를 재단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정제해 온 한 사람의 연주자가 있다. 앞으로 그의 음악은 더 큰 울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울림은 크지 않지만, 단단하고 오래 남을 것이다.

## 교육과정 현장의 시간들













2025 이슈

#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자과정

(전문예술교육)



한양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양대학교

# 우리춤,
# 바람에
# 이름을 싣다

### 시놉시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이자, 나 자신을 드러내는 확장된 몸으로 표현된다. 이 작품은 이음 예술가들이 각자의 몸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이 바람처럼 흩어져 새로운 움직임으로 피어나는 과정을 담는다.
처음엔 조용히 자기 이름을 부채로 그리며 나를 마주하고, 이후에는 서로 만나 하나의 춤, 하나의 호흡으로 어우러지며 자신의 존재가 점차 확장되어 펼쳐진다.

### 연출의도

소도구인 부채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움직임을 시작으로 다양한 표현과 움직임의 확장을 보여준다. 부채를 통한 움직임과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나 자신을 소도구와 몸으로 확장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인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

# 참여자 소개

**권은정**
안녕하세요, 무용수 권은정입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새로운 수업과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가영**
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임이 행복한 무용수 김가영입니다.
한국무용을 배우는것에 흥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매니저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도
감사합니다.
I lOVE you♥

**노채민**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노채민입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 참여하며 즐겁고, 많이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정민**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있는 이정민입니다.
활동 분야는 창작, 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배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 전문 예술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준섭**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한양대 가는 게 좋아요.
한양대 선생님 만나는 게 좋아요.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좋아요.
선생님 공연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멋지게 공연하고 싶어요.

**채현선**
저는 춤추기를 사랑하는 채현선입니다 ~ 올해 처음으로
한양대에서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다 같이  전통팀하면서
즐거웠고, 부채춤이 어려웠지만 멘토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용~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너무 즐거웠어요 ~~ 그리고 내년에도 또
만나고 싶고 춤을 더 좋아하고 한국무용을 사랑합니다 ~

무용

# 우리 존재하는 사이

**시놉시스**

사람과 사람 사이, 벽과 벽 사이. 우리는 그 사이의 공간에 주목한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주 서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경계가 드러나고, 또 천천히 허물어진다.
'장애인'이라는 이름 아래 씌워진 시선과 선입견, "너는 이럴 거야", "이건 안 될 거야"라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찾는다. 그 언어는 말이 아닌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되고, 움직임은 곧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 작품은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그리고 그 사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과정을 춤으로 담아낸다. 우리 존재하는 그 '사이'의 공간에서, 서로의 다름이 하나의 울림으로 번져간다.

**연출의도**

이 작품은 몸이 가진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는 시도이며,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여정이다. 무용수들은 각자의 몸에 집중하며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신만의 움직임을 찾아낸다. 누구나 다르지만, 그 다름은 제약이 아니라 또 하나의 표현이 된다. 몸으로 말하고, 움직임으로 이야기하며,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지점을 탐색한다.
무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어간다.'우리 존재하는 사이'는 바로 그 틈, 서로가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을 전하고자 한다.

# 참여자 소개

**권병철**
안녕하세요. 무용수 권병철입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너무 신나고 재밌고 기뻤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배우고 싶습니다.^^.

**문하진**
나비처럼 날고 싶은 문하진이에요.
저는 나비처럼 날고 싶어요.

**이로와**
안녕하세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작품을 준비한 이로와 무용수입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색감을 돋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장점까지 보여 드리려고 하니 설렘 반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이선명**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이선명입니다.
교수님, 매니저님, 선생님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이선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우**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3살이고 무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용은 너무 어렵고 생각할 게 많지만, 그만큼 춤을 통해 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요.

**조윤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예술가 조윤서입니다. 이번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도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출연만 했던 다른 때와는 달리  작가님 두 명의 솔로곡을  비트를 찍어서 만들기도 하고, 팀 전체 음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술로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예술가 조윤서가 되고 싶습니다.

**황선미**
안녕하세요!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23살 황선미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무대 위에서 저의 긍정적인 미소와 강인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멘토예술가의 말

**강요찬**
저는 이음이라는 말이 예뻤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인을 이어 나간다는 말에서
조금이나마 책임감이 생겼고, 이후 장애에
대한 무관심과 관심을 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음 작가님들과 시간을 보내며
더 넓은 인간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더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경**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함께한 시간
동안, 예술은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일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작가님들의 예술을 대하는
진심과 순수함에 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순간들을 기억하며, 각자의 빛으로
멋지게 나아갈 작가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양채민**
2024년에 이어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도 멘토예술가로 함께하며,
더 많은 작가님들과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용이라는 신체 언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작가님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배려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비장애인이
사회를 이루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언어가 아닌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그 안에서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발달해가는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집중도가 떨어질까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작가님들의
열정이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예술이 가진 순수한
힘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의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참여 작가님들과 멘토예술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소연**
이번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작가님들과 함께하며, 작년과는 또 다른
경험과 배움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몸짓으로 피어나 하나의
예술로 완성되는 순간들을 통해, 예술이
우리를 잇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음 작가님들과 함께 움직이며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무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작가님들의
발걸음에 힘이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준**
작년엔 공연을 보며 응원하는 관객이었고,
올해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의 멘토
예술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에 새로운 멘토로 참여하며
고민했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해야
이들 스스로 예술가로서 자립할 수 있을
까?' 였습니다. 작품에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세계를
예술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예술가로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자신의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가게끔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작가님들
개개인의 마음의 소리, 움직임에 집중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작품을 오늘 공연합니다. 그러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고민을 나누고,
생각해보고, 함께 만들고 표현하며 쌓아 올린
시간들, 그 도전들이 더욱 뜻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들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멘토님들도
쉽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벽하진 않더라도 작품으로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 존재의 몸짓,
# 함께 빚은 창작의 순간들

**김예림** 무용비평가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가 어느덧 네 번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무용 분야는 예년보다 더 많은 작가님들의 참여로 더욱 확장된 창작의 지형을 그려냈습니다. 총 13명의 신진 장애예술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교육과 창작에 임하면서, 서로 다른 몸의 언어와 움직임의 미감을 품은 두 편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창작 과정 전반을 돌이켜보면, 각자가 지닌 감각을 움직임으로 번역하고 이를 타인과 나누려는 시도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지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매개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함께 장면을 만들어가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올해 무용 분야 창작교육과정에서는 서연수 교수와 다섯 명의 멘토가 작가들의 잠재력을 일깨웠고, 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연구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창작작품 <우리 존재하는 사이>와 전통기반의 창작 <우리춤, 바람에 이름을 싣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작품은 각각 7명, 6명의 작가와 멘토들의 공동 창작으로 이뤄졌습니다.

창작작품 <우리 존재하는 사이>에는 다양한 신체적 감각과 표현을 지닌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탈춤의 기본기를 현대무용적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한 권병철 작가, 나비의 몸짓을 닮은 섬세한 움직임을 춤으로 풀어낸 문하진 작가, 현대무용의 추상적 어휘를 자신만의 언어로 흡수한 이로와 작가, 놀라운 유연성과 깜찍한 표현력으로 장면의 생동감을 더한 이선명 작가, 어떤 현대무용단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신체성과 잠재력을 보여준 전현우 작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작품의 균형을 지켜낸 황선미 작가, 그리고 음악 편곡·편집은 물론 노래까지 소화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단단하게 만든 조윤서 작가에 이르기까지, 일곱 명의 작가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몸으로 표현하는 데 아낌없는 열정과 창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기반의 창작 <우리춤, 바람에 이름을 싣다>에는 지난해 참여했던 다섯 명의 작가

권은정, 김가영, 노채민, 이정민, 임준섭 작가와 새내기 채현선 작가가 모여 환상적인 창작 부채춤 6인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경험자들을 거뜬히 따라잡은 탄탄한 기본기의 채현선 작가,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춤을 즐기는 권은정 작가, 능숙한 부채 다루기로 장면의 중심을 잡아준 김가영 작가, 군무의 흐름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노채민 작가, 유려한 춤실력과 집중력으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정민 작가, 정해진 안무에 충실하면서 부채를 든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임준섭 작가 모두 전통춤을 기반으로 한 창작이라는 어려운 미션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이 두 작업이 4개월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온전히 완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연수 교수님의 섬세한 조정과 통합적 시선이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섯 분의 멘토 강요찬, 양채민, 이준, 김소연, 성혜경 선생님과 김재은 매니저의 헌신적인 동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세심한 지원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작가들이 자신의 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의 차이를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새로운 창작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살아 있는 움직임이 모여 하나의 장면을 만들고, 다시 그 장면들이 하나의 큰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는 장애·비장애라는 구분을 넘어, 예술 안에서 '존재하는 몸'의 가치가 얼마나 넓고 깊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귀한 사례입니다.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무용 분야의 여정은 신진 장애예술인들이 스스로 예술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작가가 각자의 춤 언어를 만들기 위해 보낸 시간과 고민은 향후 예술 현장에서 더욱 단단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경험이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자의 창작 세계를 확장해가며, 자신만의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경계를 허문
# '함께하기'의 위대함

**김경애** 무용비평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무용 분야의 여러 작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음을 열고 춤에 다가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순수함이며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신체 움직임에 자신의 내면을 담아 밖으로 끌어내 보여주려는 노력 속에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용은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예술입니다. 움직임을 함께하는 무용수들, 조명, 무대 감독 등 스태프들, 그리고 전체를 매만지는 안무가 등등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합해져야 비로소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완성은 관객과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작가들과의 사전 대화에서 '함께하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 과정을 거쳐 성숙해져 가는 자신을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작가들의 진심이 전달되기에 큰 감동도 있습니다.

장시간 마음을 맞춘 여러 참여 작가들은 이 작품을 시작하기 전과 이제 막 무대에 오르기 전, 그리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경지는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은 과정을 함께한 작가들에게 또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작품은 '전통 기반 창작팀'과 '창작팀' 두 작품이 선보입니다.

권은정, 김가영, 노채민, 이정민, 임준섭, 채현선 작가가 참여하는 '우리춤, 바람에 이름을 싣다'는 김소연, 성혜경 멘토 주도 하에 만들어낸 '부채춤'의 또 다른 유형 입니다. 부채를 들고 자신을 표현하는 움직임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부채를 든 움직임과 표현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와 움직임에 자신의 내면을 끌어 담아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권병철, 문하진, 이로와, 이선명, 전현우, 조윤서, 황선미 작가로 구성된 창작팀은 '우리 존재하는 사이'를 강요찬, 양채민, 이준 멘토의 지도 아래 올립니다. 창작팀의 작가들은 상당수가 고난도 기교를 구사하는 훌륭한 무용수로서의 재능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몸이 가진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는 시도이며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여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함께 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벽과 벽 사이, 그 사이의 공간에 주목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지칭 아래 씌어진 시선과 선입견, 그 과정을 허물어가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춤이 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마주 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경계가 드러나고 천천히 허물어지면서 이 과정은 진정한 '감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작품 발표회를 통해 참여 작가들의 진심으로 마주하게 될 삶이 더욱 건강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 교육과정 현장의 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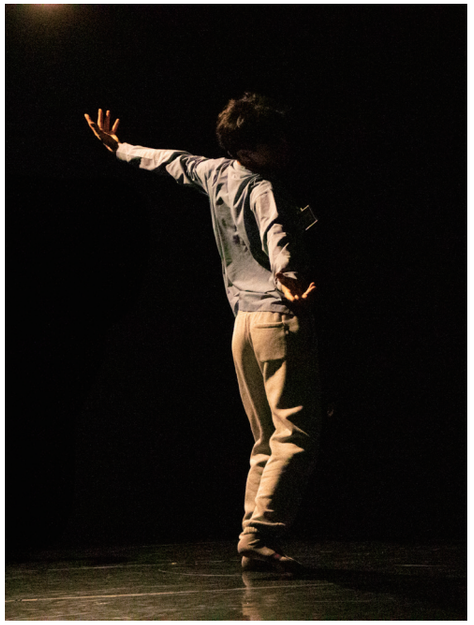
## 교육과정 현장의 시간들













2025 이음

#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자과정

(전문예술교육)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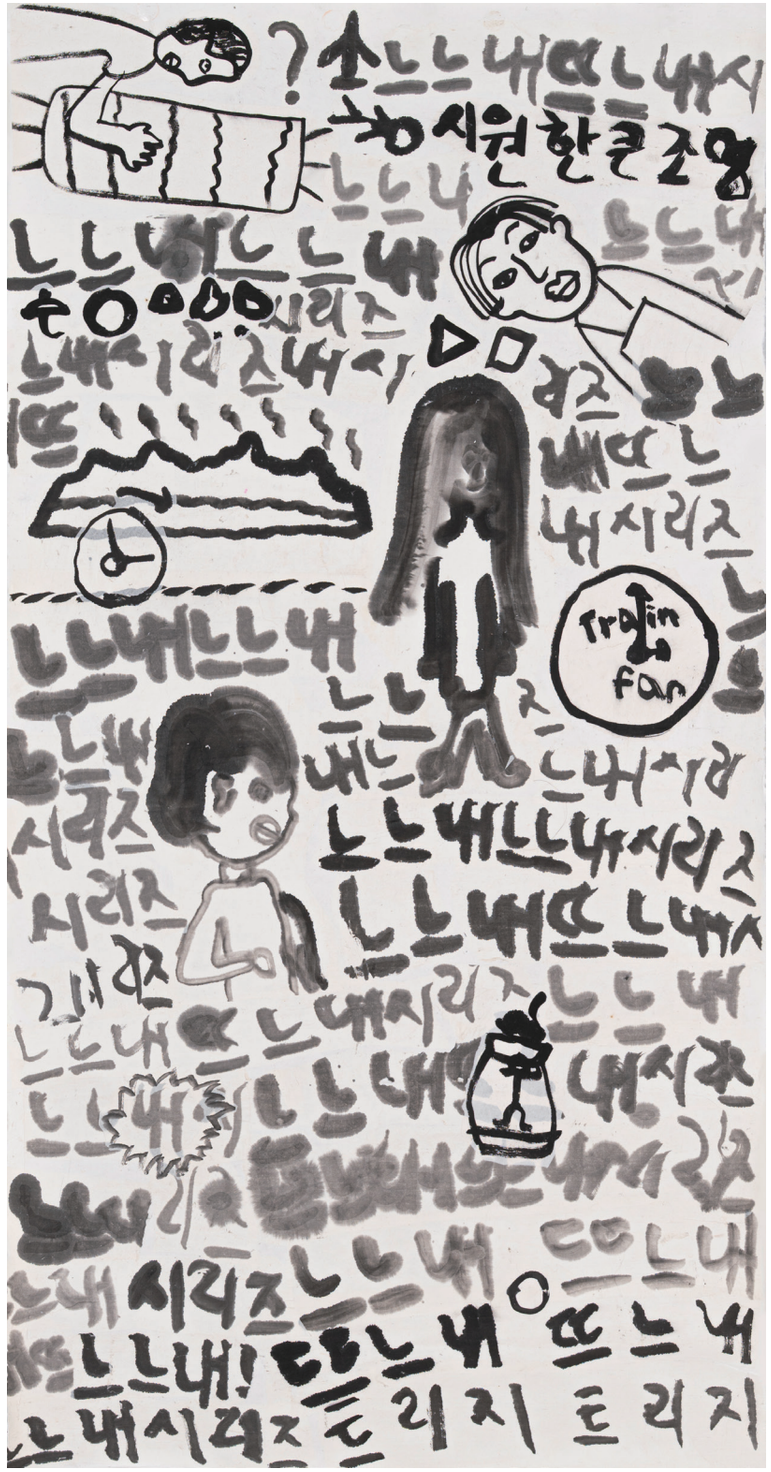
광주교육대학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신익희

작가는 세상을 소리로 느끼고, 그 소리를 그림으로 적는다. 그래서 신익희의 작업은 모두 '궁금해 시리즈'이다. 세상에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은 '궁금해 시리즈'로 통칭하는 소리이며 긴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작가만의 언어이다.
문장으로 표현하기 힘든 궁금함, 뜨거움, 무서움, 시원함이 단어와 선이 되어 나온다. '짱크네 시리즈'는 동글동글한 사람들을 표현했으며, 태양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그린 것이다. 이는 둥둥 떠 있는 작가만의 우주이기도 하다. '뜨느내 뜨느내 시리즈'는 뜨겁고 이상하고 조금 무서운 괴물 같은 감정이다.
시원한 조명은 좌우로 움직이며 깜빡이는 점멸등의 소리와 빛에서 나온 그림이다.
작가는 "김지훈 멘토, 박은희 선생님과 함께한 작업 안에서 공기가 온도로 변하고, 그 온도가 마음의 여러 가지 온도로 변해서 나의 마음이 다양해졌고 그 시간이 잘 지나갔다."라고 말한다.
작가에게 말보다 소리가 빠르고, 소리보다 그림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궁금해 시리즈'는 작가가 세상에 묻는 방식이자 작가가 쓰는 가장 솔직한 언어다.

**뜨느내 시리즈**
**2025**
**한지 위에 수묵**
**145 × 75cm**

주문처럼 되뇌는 말 "뜨느내 뜨느내, 시원한 큰 조명"이다. 처음 잡아보는 붓에 먹물을 묻혀 주저없이 써 내려간다. 내가 좋아하는 송선미 선생님,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 여러 동료들의 모습을 기록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화선지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쓰고 그렸다. 글자, 인물, 사물, 기호 등 그것들을 모아 큰 화면에 다시 구성하여 '뜨느내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 그리고 쓰는 래퍼

**전문가 비평**

**박영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신익희 그림을 보러 갔더니 신익희는 없고 신익희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탁자 위에 쌓여있다. 종이를 펼치자, 글씨들이 난리다.

'뜨느내 뜨느내', '해왕성 명왕성 강아지 동영상', '시원한 큰 조명'.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리듬이 있다. 그걸 읽고 있는데 신익희가 들어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교실 앞에서 뒤로 책상 사이에서 사이로 종횡무진 움직인다. 움직이며 말하는데, 어떤 말은 알 것 같고 어떤 말은 알쏭달쏭 잘 모르겠다.

나는 그의 움직임과 말에서 힙합 씬을 떠올리고 랩을 듣는다. 힙합은 디제잉이나 비보잉, 랩 등 다양한 몸의 움직임과 소리로 펼쳐지고, 그걸 랩이라 하거나 일종의 창법으로 국한해 랩이라 말하기도 한다. 랩은 되풀이되는 비트를 깔고 멜로디 없이 말의 리듬으로 펼쳐진다. 랩은 몸이라는 악기로 하는 말이며 노래다. 말이고 노래이면서 말도 노래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나누는 소통의 말들뿐만 아니라 중얼거림과 읊조림, 한숨과 외침, 격조와 파격, 위트와 해학을 두루 포함한다. 또한 음악이라는 전통과 전형을 전복하면서도 본디 종합예술로 축제의 신명을 되살린다.

신익희의 글과 그림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는 말하듯 글씨를 바로 던져서 단방에 휘갈겨 쓴다. 일필휘지(一筆揮之)라는 말은 대개 한 번에 쓴다는 뜻도 있지만 몸의 기운을 즉각적으로 움직여 생동한 화면을 주저하지 않고 만들어낸다는 뜻을 포함한다. 붓에 물을 묻히고 먹을 찍어 글씨를 쓰다 보면 농묵이 차차 담묵으로 흐려지고 습윤한 물기는 비백을 만들며 건조해진다. 그 시간성이 글씨에 드러나 조형적으로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낸다. 글의 내용은 주로 빛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의 말과 글은 일종의 주광성(走光性)을 지닌 듯하다. 사전적인 정의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이 빛의 자극에 대하여 그것을 향하거나 피하려고 움직이려는 성질'을 말한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려는 식물체나 사냥꾼의 헤드라이트를 피하려는 동물적 감각이 바로 그것이다.

감각은 자극에 반응하는 직관적인 느낌에 따른다. 추사 김정희가 만년에 어린이의 글씨로 돌아가고, 피카소가 평생 어린이처럼 그리고 싶어 했다는 사실은 예술의 본성과 직관의 힘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익희는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은 주변 사람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그리거나 자신이 이해하는 개념을 간단한 선과 형태로 만들어낸다.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붓이 다르지 않고,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태도가 다르지 않으니 그 글씨가 그림이고 그림이 글씨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글과 그림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모호함이 기존의 질서를 흔든다.

래퍼 신익희가 그리고 쓴 랩은 그래서 재미있고 후련하고 자유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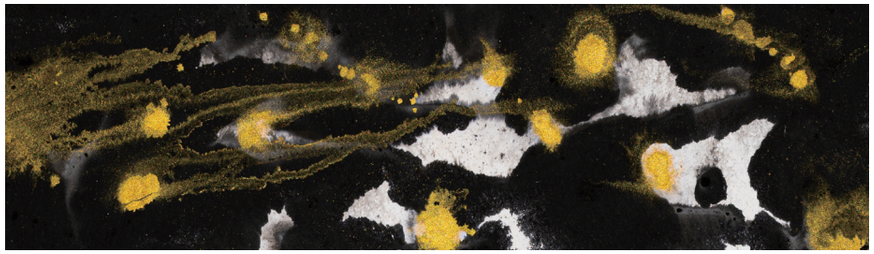
## 멘토예술가의 말

**김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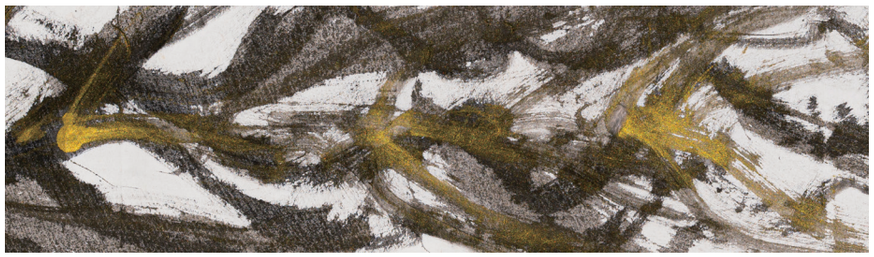
이번 멘토링의 목표는 참여 작가가 자신의 내면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참여 작가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시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그 흔적의 결과에 격려를 통해 동기유발을 유도하였다. 신익희 작가의 초기 활동은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과 멘토와의 관계 형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1인의 멘토가 제한된 활동 시간에 3인의 멘토링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신익희 작가님께는 별도의 전담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진행하였다. 전문 인력이 멘토·멘티 간의 소통은 물론 신익희 작가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창작 활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신익희 작가는 "뜨느내 뜨느내, 시원한 큰 조명" 등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왼손으로 붓을 잡고 글자를 써 내려가는 모습은 멘토를 깜짝 놀라게 하는, 수년간 수련한 사람에게서나 보이는 필력이 발견되는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인물을 드로잉하는 모습에서는 대상을 날카롭게 관찰하는 집중의 눈빛을 확인할 수 있다. 쓱쓱 쉽게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집중의 눈빛이 관념이 아닌 관찰이었음이 증명되는 모습이다. 신익희 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끊임없이 공유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주문 같은 말로 상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대화를 청한다. 이후 성취한 소통의 즐거움을 동력으로 자신의 내면 심상을 표출한다. 그에게 그림은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이며, 즐거운 소통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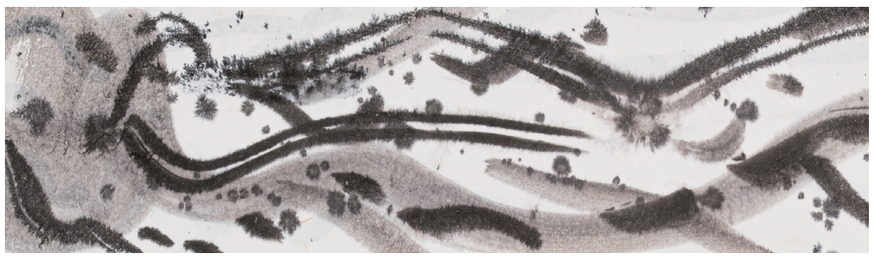
# 주현민

다채롭고 신비로운 해파리는 "어디로 흘러갈까." 인간도
흘러가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힘차게 헤엄치다가도
부드럽게 유영하는 해파리. 생명에 대한 어떠한 경건함이
스며드는 듯하다. 해파리의 순우리말은 수모(水母). 물
어머니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나'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늘에서 왔을까. 대지에서
왔을까. 바다에서 왔을까.
태몽은 거북이와 참꼬막이지만 '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해파리'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유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해파리. 검은 먹과 하얀 종이를 좋아하는
간서치. 투명하고 맑은 물이 좋아 번지는 것도, 흘리는 것도
그어내는 것도 자유로워서 해파리를 그렸다. 아홉 마리의
다양한 해파리와 해파리인 듯 아닌 듯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 아니 사랑. 물 어머니.









**수모**
**2025**
**한지 위에 수묵 금분 채색**
**145 × 290cm**

해파리는 제겐 유영, 또는 자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파리의 특성 상 98%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신체 일부가 잘리면 재생하는데 재생력에 한계가
없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 수 있으며 재생할
때 '대칭성'의 조건을 맞춥니다.
잘린 다리를 재생하기 전 그 다리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다른
다리 근육을 축소 시킵니다. 움직이고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선 몸의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
해파리가 1)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맞춰나가는 저
2) 헤엄치는 힘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라는
점이 닮아서 해파리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가운데에 전시하는 해파리가 아닌 사람 모습을 닮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해파리들 속에서 유영하는 제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와 기법은 한지에 금묵액과 먹을 사용하고
칠하거나 뿌리거나 흘리기를 하였습니다. 한지의 크기가
사람보다 큰 이유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자유를 위해 크게
설정했습니다.

## 해파리 패션쇼

**전문가 비평**

**박영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주현민은 거북이를 그리고 있었다. 마치 거북 등껍질의 갈라진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던 고대인처럼. 등 무늬가 다양한 거북이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다.

"왜 거북이를 그려요?"

"오래 사니까요."

우리가 나누는 말들은 앞뒤에 지문(地文)이 숨겨져 있다. 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인류는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공연을 했다.

*거북이는 바다에 살지/ 바다에서 알 낳고/ 바다로 엉금엉금 기어 돌아가지/*
*거북이는 육지에 살지/ 거북이는 숲에도 살지/ 거북이는 모래밭도 살지/*
*거북이는 하늘에도 살지*

주현민의 거북이 그림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 있다. 그림을 알려주는 또 다른 정보다. 말하자면 거북이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아무 곳에서나 종횡무진 누비며 오래 산다는 것. 심지어 거북이는 하늘에서도 산다니. 사람은 육지의 숲과 모래밭에서 살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살 수 없다. 잠깐 들어가더라도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이고 더 길게 버티려면 산소통을 짊어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 바다를 유영하는 거북이는 주현민에게 어떤 존재일까.

주현민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다. 최근에 낸 공동시집에 스스로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닌 경계인'이라 한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넘나드는 별난 사람'이고 싶어 한다.

*책을 너무 좋아해*
*규격에 맞게 네모난 세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
*딱딱하게 정리된 활자들 벗 삼는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 네모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책이 사는 곳에 얹혀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 일부다. 주현민은 책을 좋아하지만, 책은 딱딱하게 정리된 활자들로 이루어진 네모난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현민은 네모난 책처럼 딱딱하게 규정된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

"거북이 옆에는 해파리도 있네요?"

"해파리는 자유로우니까요."

주현민은 사람들이 규정한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고 싶다. 거북이와 함께 그렸던 해파리는 길고 무수한 촉수를 가진 사람의 몸을 하고 나타났다. 열 마리의 해파리가 패션쇼를 한다. 물결처럼 팔랑이는 촉수를 흔들며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주현민은 종이와 먹, 붓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검은 덩어리의 면과 하늘거리는 선묘가 절묘하게 어울린다. 열 마리의 해파리는 주현민의 분신이며 분장이다. 그는 다채로운 표정을 지니고 소통하고자 하는 별난 해파리며 별난 사람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지훈**

주현민 작가는 전통 회화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특히 평소 학교 미술교육에서는 접할 수 없는 분채의 용법, 아교와 명반의 물성과 활용법, 수묵 작업 후 작품화 과정의 배첩까지 실습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였고, 실습을 완료했다. 표현 재료의 이해는 창작 활동의 기초이다. 재료의 물성을 온전히 파악한 이후에야 비로소 창작자의 의지에 따른 표현이 이룩된다. 주현민 작가는 재료의 이해를 위한 실습의 경험을 통해 회화 작품의 창작은 물론 문학 작품의 창작에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현민 작가의 이번 작품은 자신의 탄생 스토리이다. 어머니가 꾼 태몽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고, 태몽에 등장한 여러 소재 중에서 자신을 잘 대변하는 해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두꺼운 한지 위에 수묵이 유영한다. 여러 형상의 해파리인지 사람인지 서로 어우러져 군상을 이룬다.

# 임지아

저는 평소 연못과 꽃 같은 조용한 자연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나 가는 길에 그런 장면을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안정되는 느낌으로 이번 작업에서 그런
고요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의 물 조절이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 지면서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먹의 번짐과 여백을 따라가다 보니, 연못의 물결이나
붓꽃의 느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스며들며
작업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보는 이에게도 잠시 멈추는 순간
처럼 다가가길 바랍니다.



**고요의 흐름**
**2025**
**한지 위에 수묵**
**76×72cm**

저는 평소 자연을 주제로
아크릴화를 즐겨 그리는데
먹물을 이용한 수묵화를 접하며,
도화지보다 얇은 한지에 농담을
조절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한 번에 붓칠로 완성한다는 게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수련들 사이로 오리가
한가로이 놀고 있는 모습은
여유롭고 바쁜시간에 가끔은 쉼,
휴식이 필요한 저에게 위로가
되는 자연풍경이었습니다.

# 붓으로 피운 꽃

전문가 비평

**박영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왜 식물을 그리나요?"

임지아의 그림 앞에서 물었다.

"엄마가 키우는 걸 보고 그렸어요."

어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는 일은 당연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기는 쉽지 않다. 가령 상상의 용마저 알고 보면 아홉 가지 실제 동물의 조합이니까. 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물건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 살면서도 새로운 물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를 강요하는 세상이기도 하다. 그 하고많은 사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식물은 살아있지만, 동물에 비해 조용하고 느리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없어 보일 뿐이다.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대체로 식물의 더딘 움직임을 오래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개는 짖고 고양이는 그르렁거리지만, 식물은 말이 없고 물을 달라 보채지 않는다. 그렇다고 식물이 목마르지 않은 건 아니다. 식물은 조용히 기다릴 뿐 제 욕망과 기대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산과 들에 살던 개와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마땅히 처리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도움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목줄을 하고 외출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은 개는 흙 없이 매끈한 바닥에서 매일 같은 메뉴의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가끔 밥값을 하느라 컹컹 짖어보기도 하지만 소음 때문에 도리어 걱정을 끼치게 된다. 흙이 필요한 식물은 화분이라는 흙집에 살아야 한다. 비와 눈을 기다리던 식물은 이제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건조한 실내에서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빛을 감당해야 한다.

임지아는 아이리스(Iris)를 그렸다고 한다. 엄마의 식물이 어떤 것들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중에 아이리스에 유독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이리스는 무지개를 뜻하며 꽃말이 '기쁜 소식'이다. 아이리스는 우리말로 붓꽃이다. 멍울진 꽃봉오리 모양이 영락없이 붓과 닮았다.



임지아는 검은 먹에 적당한 물을 더해 붓꽃을 그렸다. 수묵화의 관건은 물과 먹의 운용과 조화이며 길고 부드러우며 흐느적대는 붓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기운이 달라진다. 그 일은 어느 순간 꽃이 피고 지듯이 적당한 때와 공력이 필요하며, 꽃이 두 번 피지 않듯이 단 한 번의 운필로 끝장난다. 임지아는 엄마의 붓꽃 화분을 다 그리지 않았으며 보이는 대로 그리지도 않았다.

한 송이의 붓꽃은 지금 당당하고 난만하게 피어올랐다. 그림은 화면 한 가운데 배치되었고, 좌우와 상하가 조화롭다. 그러면서 활짝 핀 꽃잎과 아직 피지 않은 꽃송이, 줄기와 이파리 어느 하나 중복된 것이 없다. 길고 짧고, 굵고 가늘고, 직선과 곡선, 선과 면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조화로우면서도 변화가 있다.

엄마의 화분들에서 소재를 가져왔을 뿐 임지아의 붓꽃은 더 이상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흙집의 그 붓꽃이 아니다. 비를 좋아하는 붓꽃은 물을 흠뻑 빨아들이고 제 몸의 온갖 에너지를 총동원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제 바람에 살랑이며 벌과 나비를 부르는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임지아는 붓으로 꽃을 피웠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지훈**

임지아 작가는 평소 꽃과 연 등 식물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다. 느림이 주는 고요함이 편안한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임지아 작가도 그가 좋아하는 꽃을 닮았다. 아주 느리게 주변에게 들키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 어느덧 아름다운 꽃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임지아 작가도 마지막 과정에서 꽃을 피웠다. 평소의 속도와는 몇 배는 빠른 붓질로 순식간에 만개한 꽃봉오리를 터뜨렸다. 농묵 중묵 담묵의 다양한 먹빛과 파묵과 갈필을 넘나들며 한지 위에 모필이 노닌다. 누가 임지아 작가의 느림을 알까? 누가 임지아 작가의 질주를 알까? 이 작품에 임지아 작가의 시간과 몸짓과 마음이 담겼다.

# 박은영

나는 소위 '이발소 그림'이라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거나 똑같이 재현하는 데 몹시도 치중해
왔다. 왜 이 시대의 현대미술은 재현 그림은 후퇴되었다고
하고 오로지 신박하고 기발하며 창조성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지 나는 좀 아리송하다. 물론 현대미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현에서부터 시작해
현대미술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비록 퇴화하는
재현작가라고 해도 자기만족 아니겠는가!
재현이든 추상 지향(현대미술)이든 다 같은 그림이며
그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재현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잡념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름대로의
진정성이 아닐까 싶다.




**그대뿐이어서**
**2025, 캔버스에 아크릴, 26×18cm**
동백 꽃말을 빌어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너에게 닿기를(부제: 꿈에)**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1×73cm**

나(자아)의 꿈,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그리움을 표현하건대, 그림에서 상사화의
꽃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금붕어는
꿈·해몽적인 면에서 '기회의 상실'이라는 뜻이 있다.



**고요한 숲**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1×73cm**
산새 소리와 산들 바람만이 있어서 만들법한
자연적 힐링을 시각적으로 다가가게 하고 싶었다.



## 예술의 생활화

전문가 비평

**양기영** 비평가, 전남대학교 강사

팀 버튼 영화 [빅 아이즈]는 아마추어 미술가 마가렛 킨(1927~2022) 이야기다. 1950~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는 제도권 밖 미술작품의 인쇄물 활황기였다. '안나 메리 모제스', '모드 루이스' 같은 아마추어 활약은 엘리트 작가나 소수 특권층 컬렉션의 이동이라기보다 또 다른 감상 영역의 확장, 즉 문화 향유 스펙트럼 다양화의 증표다.

박은영의 작품은 비전문가 특유의 싱그러움이 있다. 검색 엔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연예인 얼굴이나 유튜브 학습 영상을 연필과 아크릴 등 손쉬운 화구로 따라 그리며 창작욕을 충족한다. 정규 아카데믹 교육의 결핍이 창작 동기로 어떤 주제 의식도, 작가적 고민도 없이, 그냥 그리는 행위 자체에 만족한다.

현대 미술계는 매머드급 행사를 거듭하며 과잉 주제와 거대 담론에 집착하지만 정작 대중과 공감은 외면하고 피로감만 남긴다. 즉, 편한 그림은 함량 미달로 낙인찍으며 심각한 표현만 인정하니 사회문제도 하나의 콘텐츠로 소모된다.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이슈가 식으면 한물간 트렌드로 폐기되는 주제 의식에 대해 관객은 그런 극단적 실험 강요에서 염증을 느끼고 스낵컬처에서 폭식 거리를 찾는다.

그렇다고 명작 반열에 올라 위엄 넘치는 전시 공간의 접근금지 금줄 안에서 얼어붙은 채 숨어있는 고전 작품도 우리의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소모품처럼 만질 수 있는 예술.... 수많은 정치인과 기획자들이 꿈꾸던 예술 생활화는 결코 여느 슈퍼스타가 나타나 우리에게 안겨주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예술 요정은 길거리에 낙서하는 아이처럼, 문화센터처럼 팔 닿는 곳에 숨어있을 줄 모른다.  영화 [빅 아이즈]에서 "예술은 내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서 보는 것이다"라고 혹평을 쏟던 타임즈의 평론가를 만난다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그토록 숭상하던 구름 위의 작품들도 이제 박은영 작가와 나란히 좋아요. 엄지척에 긍긍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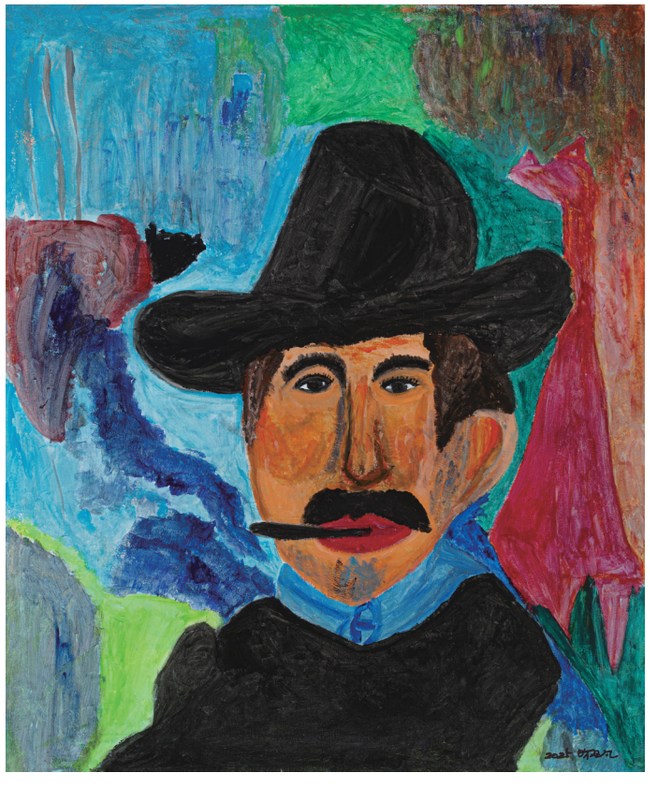
## 멘토예술가의 말

**최대주**

박은영의 회화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인물의 내면을 가로지르는 꽃과 새, 물과 별의 이미지는 아픔을 장식이 아닌 회복의 언어로 바꾸며,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위로가 된다. 이 작업은 타인을 향한 말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자,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끌어안는 회화적 기록이다.

# 박정선

나는 작가로서 무공해 채소와 같이 친환경 속에 오염이 된 환경 속에서 안 죽고 계속 살아 나게끔 성장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치를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 계속 성장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나는 사람은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 전체 이미지 대한 속삭임, 환경, 계절, 자기가 스스로 기초부터 화가에 걸어가기까지 노력, 능력, 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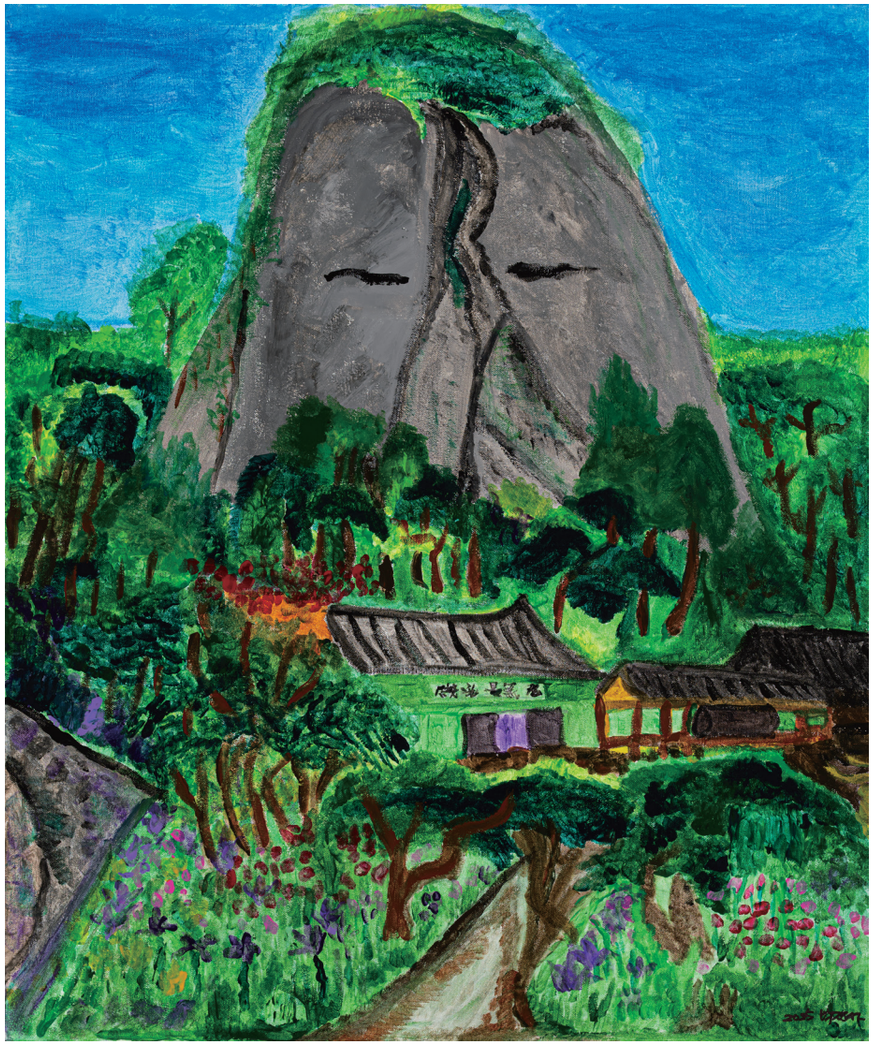
**찰리채플린**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1×73cm**



**계상정거도**
**2025**
**캔버스에 아크릴**
**73×61cm**

계상정거도는 바위로 이루어진 가운데 경치가 아름답고 도산서원이 있어 이황이 글 공부를 할 때 유명한 선비의 애정이 깃든 서당 바로 도산 서원이다. 바다처럼 넓고 섬과 섬 사이에 돌담길과 가로수 경치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 찰리채플린은 우리에게 웃음과 재미 재치 장난 끼 많은 한 사람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희한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상징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극 배우이면서 뮤지컬의 신이라 생각한다. 그는 한 사람의 사나이가 아니라 전 세계적 예술가 음악가, 코메디언, 영화감독이면서 왼손잡이다.



**마이산**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1×73cm**

마이산은 그야말로 나의 생명이며 우리 모두의 명산 중의 아주 유명한 명산이기도 하다. 특히 산 모양이 사람의 귀를 가지고 바위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지니고 눈, 코, 입 진짜 사람의 얼굴, 그래서 아주 특이한 명산! 진안은 전북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찰, 가옥과, 한옥 마을을 가지고 있어 유명하다.



## 탈각의 기교

**전문가 비평**

**양기영** 비평가, 전남대학교 강사

대교약졸大巧若拙 진정한 기교는 서툰 듯하다.

작고하신 문인화가 조방원 선생은 "추사 김정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것을 쫓았지만, 창암 이삼만은 태어나면서 이미 그것을 얻었다."라고 했다.

광주 무등산 아래 학동은 문인화가 의재 허백련이 연진회를 세워 제자를 양성한 곳으로 박정선 작가는 학동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 우리 전통 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대상에 외형 묘사보다 본질을 담으려 하는데 박정선 작품에는 옛 그림 같은 그 아취가 있다.

통영 소매물도, 마이산, 아이슬란드 여행지 등 인상 깊은 장소부터 챨리채플린, 농부 등 친근한 인물과 난초 화분 같은 일상을 천진하게 그린다. 신기한 것은 동양 화법이나 서양의 원근법, 명암 묘사 같은 기교 없이도 현장감이 충만하다는 점이다. 활달한 필치와 과감한 색조 덕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 이유는 애써 대상과 닮게 하려는 집착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미술사에서 카메라 등장 이후 작가들의 묘사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이는 기기가 표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다시 맞은 예술 복제 시대에 대안을 찾는 자에게 박정선은 머뭇거리며 작품을 내민다.

AI 생성 이미지가 날로 완성도를 높이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심각한 오류도 능청스레 뭉개니 불쾌한 골짜기만 깊어진다, 이런 해상도에만 열중한 디지털 이미지에 적응하기 어려운 감상자는 세련되게 매끈한 거짓보다 투박한 진실을 찾아야 한다.

서툰 기교로 자기 화법을 구축한 박정선 작가가 알려준다. 자유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은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부터 벗어 던지는 것이라고.

## 멘토예술가의 말

**최대주**

작가의 세 작품은 서로 다른 대상(마이산, 풍경, 인물)을 다루면서도, 결국 '작가의 개성있는 거친 선들과 삶을 바탕으로 드러내는 조형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하나로 이어진다. 마이산에서는 자연의 신비를 외부 풍경으로만 두지 않고, 미륵불 같은 얼굴로 끌어와 내면의 상징으로 확장했고, 계상정거도는 정자속의 인물이 작가로 투사되어 화면안으로 들어갔으며, 찰리채플린은 그 고요의 반대편에서, 인생의 비극을 견디게 하는 유머와 거리를 한 얼굴에 압축해 보여준다. 작업 전반에 보이는 선명한 색과 거칠고 두터운 터치는 감정을 감추지 않는 작가의 태도인데, 그 솔직함이 화면전반에 걸쳐 강한 생명력을 만들고 있다.

# 오연화

나는 환청과 환시, 환각에 사로잡혀 산다. 그러다보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집중하곤 한다.
나는 내 자신의 현재를 표현하고 싶었다. 어떻게든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의 의지를...
나는 주로 단색으로 나무를 그려왔다. 나무의 결을 만지며
그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애썼고 선 하나로 나무와 나의
숨이 하나가 되길 원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나무의 확장 작업으로, 선과 더불어
채색을 시도해보았다. 각각의 색이 주는 느낌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들...그리고 각각의 색이 어우러져
주제를 표현해가는 과정들이, 헤매기도 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 앞으로는 도구에 상관하지않고 내용과 형식의
확장을 통한 작업의 깊이를 더해가는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늘길**
**2025**
**종이에 붓펜**
**140×70cm**

주제는 '생'이다. 부주제는
염원과 상징이다. 오랜 기도와
염원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가면을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나다. 가면을 안 쓴
사람도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다. 끊임없는 혼돈이다.



**하늘길**
**2025**
**천에 아크릴**
**140×70cm**





## 고진화래(苦盡花來) 장치의 작동 원리

**양기영** 비평가, 전남대학교 강사

外師造化 中得心源 : 밖에서 조화를 배우고 내면으로 창작의 근원을 얻는다.

당(唐)나라 장조(張操)는 예술은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하는 데 하나는 우주 자연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내면이라 했다. 요즘 오연화 작가는 자기 세계관을 다이어그램처럼 묘사한다.

이전 고목 연작에서 겨울 그루터기를 묘사했다면 최근 작품은 은색 바탕에 양분된 인물 대비가 뚜렷하다. 프리다 칼로의 2중 자화상이 떠올랐지만, 작가는 딱히 선악이나 명암 대립의 의식 없이 집요한 고통을 다발로 묶어 마주했다고 한다.

동양철학의 우주관은 변화 생장을 오행으로 상징하는데 인간도 우주에서 자라는 나무로 본다. 머리카락을 뿌리 삼아 하늘과 교감하는 것이 마치 물구나무선 모습이다.

작품 [하늘길]은 이런 전통관과 유사하다. 외수용 감각 기관 말단 눈으로 주시하지만, 유입된 연체는 꿈틀거리며 희로애락으로 활개치다, 이 미발 단계에서 몸은 검게 타들어 간다. 내수용 감각을 거쳐 오감은 연꽃처럼 합일해 나비로 변한다. 하단의 가면 얼굴이 무의식적 수용이라면 상단의 화초를 얹은 얼굴은 사회적 표출(和)이다.

상징들은 작위적 상상이라기보다 작가가 일상적으로 통증을 끌어안은 투병 일기로 고통의 용해 과정을 복기하고 시각화한다. 그동안 환영이 나타나면 의학 처방으로 방어해 왔지만 그림을 그리며 아픔이 몸을 투과하는 과정을 관조하게 됐고, 채색을 통해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게 됐다고 한다.

차마 말이나 글로 전하지 못한 비밀의 징후(vital sign)가 작품이고 그 암시(metaphor)를 알아보는 것이 안목일 것이니 부지불식 오연화의 작품에 끌린 감상자는 부디 작가가 천하무적 고통 분쇄 장치를 탑재해 어떤 잡념도 거름으로 빻아 꽃피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 멘토예술가의 말

**최대주**

뿌리 하나에서 수많은 잎이 갈라지듯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자아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그림으로 드러내고 있다. 죽음과 삶, 고통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자기만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연화는 과거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천일기도의 시간을 가면·나무·촛불 등 상징성으로 직조해 냈다.

그것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상징의 체계로 견디는 태도이며, 과거의 아픔을 그로테스크한 중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나비의 날개로 끝내 "살아내는 것"을 선택하는 균형의 회복이다.

# 백은영

회화 위주의 작업을 해 오다가 처음 설치 작업에 도전했다. 표현의 방향을 고민하다가, 유독 장애인에게 강조되는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그러나 나는 희망보다 장애인의 욕망을 전하고 싶었다. 작업은 다소 어려웠지만 멘토님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

**무제**
**2025**
**종이에 연필**
**드로잉북 B5 1페이지**





**장애, 그 욕망과 희망 사이**
**2025**
**총 4개 마네킹, 오브제 설치**
**마네킹 상체 1개**
**80×40×30cm**
**마네킹 하체 1개**
**46×158×30cm**
**날개 2개**
**100×30cm**

꽃은 침묵으로 말하고 날개는 빛으로 약속했다. 자유는 이미 곁에 와 있었지만 쇠사슬에 묶인 나의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 자유를 향한 날갯짓

전문가 비평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백은영 작가는 올해 8월 '수국을 그리는 여자'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작가에게 신체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특수성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하여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자연 풍경, 꽃의 관계는 일상 재현을 넘어 표면화하는 자신의 관념적 풍경이자 정물로 표현되었다. 이는 미술에서 '체화된 주체성(embodied subjectivity)'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지점이며, 장애를 예술의 주변부가 아닌, 신체 감각의 핵심으로 위치시킨다. 또한 작업들은 '극복'이나 '재활'의 서사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예술적 경험을 통해 장애를 하나의 창조적 감각 체제로 재정의한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에서 백은영 작가는 기존의 수국을 그리는 회화 작업에서 설치 작업을 시도하며 장애를 예술적 주제나 극복 서사로 축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라는 신체적 경험을 다양한 재료를 통해 감각과 신체성의 원리를 새롭게 드러내는 촉매로 작동시키고 있다. 기존의 회화에서는 색과 평면적 감각을 표현했다면, 이번 설치 작업은 공간 전체를 재구성하는 신체적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새롭게 캔버스 너머로 세계관을 확장하였다. 이 작업에서 휠체어와 마네킹, 쇠사슬, 꽃, 바닥에 놓인 날개의 사물들과 공간 사이 간격은 작가의 신체 경험에 기반 되어 배치되며, 불완전한 자유를 드러낸다. 마네킹에 둘러진 쇠사슬과 다양한 색 꽃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채색 드로잉을 찢어 만든 종이 날개는 다양한 작가의 자아를 표현하는 듯하다. 이음 창작자 과정 중에 이루어졌던 새로운 재료 연구와 매체 실험은 단순히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재료를 다시 쓰고, 변주하는 관계성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작가는 신체의 개념과 조형의 기준을 다시 질문하는 실천으로 자리한다.

나아가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는 감상하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전시 공간이 '정상적 몸'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던 전시 동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개선과 성찰을 끌어낼 수 있다. 전시 설치작품은 세계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시각·공간적 언어로 번역하는 장치이며, 백 작가가 불완전한 신체를 벗어나, 자유를 향하고 열망을 노래하는 날갯짓이 아닐까?



# 멘토예술가의 말

**윤현옥**

백은영 멘티작가는 지역에서 이미 '수국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인정받아왔다.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장애로 인해 초래된 그리는 행위의 한계를 31초라는 독자적인 서사로  포착했다는 점이다. 그리기, 표현하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는 행위를 응시한 것이다. 이 지점은 현실태와 잠재태가 교차하는 지점(대상a 혹은 쥬이상스)으로 작동하고, 관성을 깨는, 사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본 과정에서는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의미, 생각들을 소개하고, 그의 사유능력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자신만의 관점과 차이들에 주목해 보도록 했다. 그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의 특별한 장점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단단함과 결단력이다. 빠르게 결정하고 도전하고 시도한다. 짧은 시간 수국작가를 떠나 미술 우주를 유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혜선

나는 수채화와 아크릴을 오가며 나만의 속도로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작업에 속도가 느린 사람이고, 이는 내 작업의 형태에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사회는 느리다는 것을 못 미덥게 여기곤 한다.
그래서 나는 '느림의 미학'을 주제로 거북이 작업을 하며 현대 사회에 반문을 던지고, 느림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살아가는 속도가 느린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속도가 다른 것임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작업을 한다.
빠른 사회에 지친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느려도 괜찮다." 라는 위로를 건네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본래의 작업 형태이자 철학이다.

이번 이음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작업을 시도했다. 마네킹과 뜨개실을 이용해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던 마크 퀸의 작품 <임신한 앨리슨 패퍼> 속 장애 여성을 모티브로 삼아 나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나는 장애 여성의 외면적인 신체와 모습보다는 그 이면의 내면의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Mind**
**2025**
**마네킹, 오브제 설치**
**76×120×80cm**
임신한 장애 여성을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꿈과 희망 기대와 부푼 설레임



때로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보곤 한다. 작가로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다양하고 이국적인 컬러로 담았다.
작품 속 몸은 임신한 장애 여성의 모습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다.
나의 작품이 보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 치유 서사, 감각의 경험

전문가 비평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

이혜선 작가는 광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업하고 전시하는 작가이다. 작가를 만나기 전부터 예술의 거리와 광주문화재단 등 다양한 장애인단체 전시에서 작가의 회화 작업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에서 멘토와 함께 시도한 설치미술은 작가가 지역의 예술 현장에서 신체성, 공간성, 감각의 체험이라는 세 가지 제한된 논리를 새롭게 재배열하는 고민으로 느껴졌다. 특히 미학적인 관점에서 "설치 미술" 장르는 장애인 작가가 다양한 신체의 존재 방식을 전면화하여, 내세우고 이를 바라보는 관람자로 하여금 신체적 이동, 전시 공간 내 동선, 재료의 관계적 관점을 유도하여 감각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장애 예술학 분야는 기존의 미술사에서 창작 주체의 신체적 조건이 조형 언어의 생산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시각예술의 설치적 특성과 장애인 작가의 감각 경험이 만들어내는 공간적·신체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작가의 설치 작업을 미술사적 흐름과 장애학적 미학의 교차 지점에서 전시 기획자의 시선에서 연구하였을 때, 작가가 작업 노트에서 말한 신체를 지탱하는 휠체어의 한정성을 주변부적으로 해방시키고, 재배치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려 노력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 멘토예술가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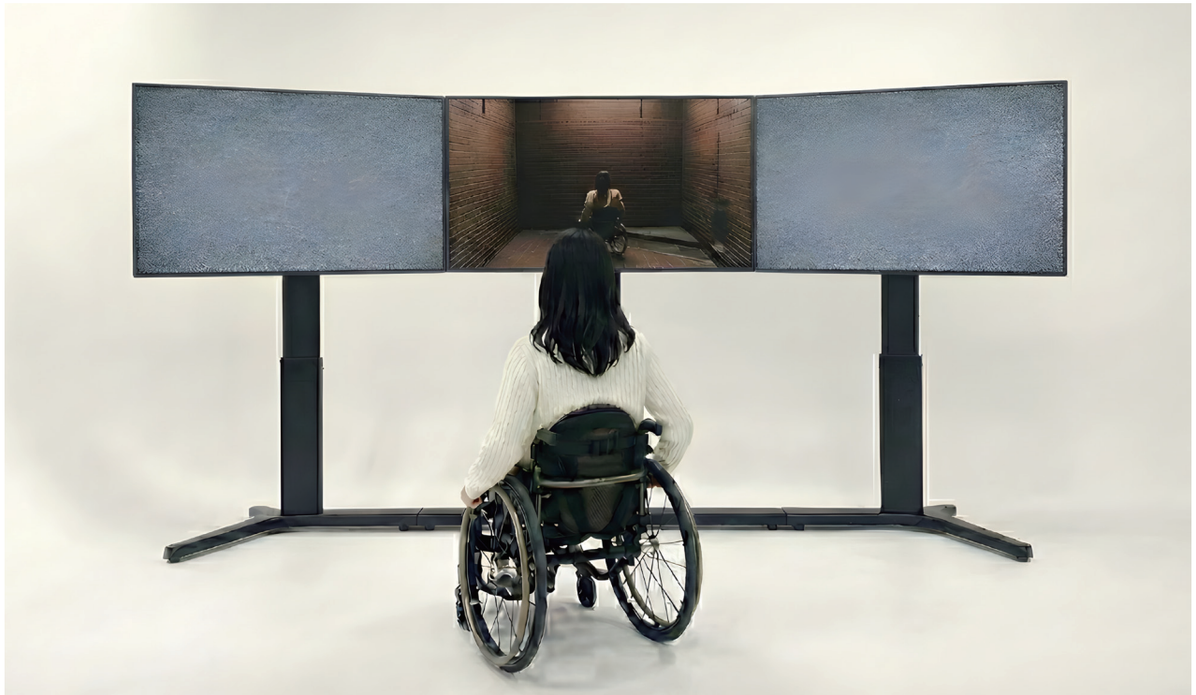
**윤현옥**

이혜선 작가는 거북이 작가이다. 날개처럼 팔을 휘두르는 거북이에 꽂혀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감각과 센스가 좋다. 특히 주변과 관계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지하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우수하다. 잘 그리고(representative)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그의 작업의 에너지원이다. 장애예술인으로써의 자신의 한계와 위치 역시 빠르게 판단할 줄 아는 영특함도 있다. 본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을 접하고 자극을 얻었지만, 자신이 원래 활동하던 장에서 우리가 실험했던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한다. 생각하는 능력과 섬세한 관찰력은 그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비판적(부정적이 아닌)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생각을 진전시켜나가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진전시켜나간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흥미로운 작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경

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는, 일상 속 작은 문턱 하나가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를 매일 마주한다. 집 앞 카페도 갈
수 없고, 편의점에 물 한 병을 사러 가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은 때로 나를 지치게 한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몸으로 겪고, 시선으로 기록하며,
도시의 결을 읽어내는 작가다.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감각이 어떻게 차별이 되고, 어떻게 삶을 제한하는지를
예술로 드러내고자 한다.
'법'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간은 나에게
'들어갈 수 없는 자리'로 남아 있다. 그래서 묻는다.
"이 도시의 문턱은 누가 만들어서 누구를 막고 있는가?"
"나는 이 문턱 앞에서 어떤 언어와 시선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공간의 접근성'과
'사회적 문턱'을 주제로 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일상 환경의 장벽을
시각화한다.
생존권을 무시한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견고히 하는
역할로 '법'은 시대에 맞추어
수정을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다수의 편의만을 고려한
구조적 이기주의의 틀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든 갈 권리가 있다**
**2025**
**3채널 디지털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전문가 비평

# 벽에 부딪혀 벽을 허무는 : 김경의 미학적 투쟁

**양진호** 철학자,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편의증진법)은 1997년 제정된 이래로 개정을 반복해오다가 2024년 시행령 개정(2025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의무 확대가 공포되었다. 기존에는 의원은 100㎡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300㎡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편의시설에만 설치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 밀접 시설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소규모 생활공간으로 접근권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진짜’ 생활 밀접 시설이라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예컨대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목욕탕, 은행, 우체국 등은 여전히 의무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김경 작가는 이렇게 ‘배제된 공간’을 고발한다. 영상은 작가가 휠체어를 타고 전남대학교 인근의 한 길가를 이동하면서 시작된다. 여느 ‘인도(人道)’와 다르지 않게 길가에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하지만 작가가 상점에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그 공간은 벽돌로 견고하게 축조된 벽으로 돌변한다. 작가는 나아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된다. 이동과 감금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배제된 공간’이라는 말은 ‘없는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공간은 분명히 거기에 있다. 그 공간에는 건물도, 상점도,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배제된 것은 ‘접근성(accessibility)’이다. 그 길은 분명 ‘사람 다니는 길(人道)’이라고 불리고 출입구엔 늘 환영의 문구가 붙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다닐 수 있지 않으며 누구나 환영 받는 것도 아니다. 같은 길, 같은 문이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동을 제한 당하며 도리어 불청객이 된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왔어도 “어디든 갈 수 있다”(작가노트)는 기본권적 명제는 실정법의 조항들 사이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가고 사라진다.

영상 속에서 매번 작가의 이동을 가로막는 벽들은 사라 아메드가 말하는 ‘벽돌벽(Brick Wall)’을 떠오르게 한다. 작가가 진입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벽돌벽은 법조항에서 추상된 공간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적인 장애물로 설치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은유(隱喩)가 아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인지조차 되지 않는 낮은 문턱이 장애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으로 현전하는 현실을 직유(直喩)로써 표현한 것이다.

누군가는 작가를 ‘없던 벽을 만드는 자’라고 비난하며 불편해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벽은 부딪히지 않으면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딪혀야만 법이 숨겨놓은 “300제곱미터”라는 벽이 드러난다. 김경 작가의 작업은 ‘부딪힘’으로써 수행하는 신체적-감각적 투쟁이다. 그가, 또한 그와 함께 하는 이들이 몸으로 그려내는 지도의 편린들은 언젠가 하나의 담론을 이룰 것이며 담론은 마침내 정책으로 수립될 것이다. 그때 숨겨진 벽은 허물어 지고 더는 벽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컨대, 그(들)은 또 다시 부딪힘으로써 또 다른 숨겨진 벽 앞에서 자신의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권리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문턱을 낮추고, 작은 가게의 문을 활짝 열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언젠가 골목 구석의 작은 문 앞에서도, 누구든 멈춤 없이 들어설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작가 노트)

## 멘토예술가의 말

**김신윤주**

김경 작가는 자신의 몸이 놓이는 위치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멈추는 시간,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주변의 공간을 차분히 바라보고 기록한다. 작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매일 통과해야 하는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공감’ 감각을 실재적으로 드러내어 나누고자 한다. 여기서 ‘공감’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기존의 감각 체계 바깥에 위치한 신체적, 사회적 경험들을 새롭게 조율하고 재배치하는 감각적 질서로 기능한다.

작업을 함께하는 동안 김경 작가는 반복되는 일상의 경로를 세심하게 살피며, 자신이 서 있지 못했던 자리들,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들을 작업 안으로 옮겨왔다. 그의 작업은 빠르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는다. 다만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시도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성했다. 그 꾸준한 태도는 작업 전체에 고유한 리듬으로 남아 있다. 김경 작가는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감각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공감 질서를 제안하고, ‘미적 행위의 정치성’을 드러내고 있다.

# 김동우

작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이어붙이듯 그린다. 동물, 사람, 바다 생물, 기계처럼 보이는 것들이 한 화면 안에서 제멋대로 움직이며 서로 연결된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하지 않은 채, 작가가 좋아하는 세계들을 한 공간에 펼쳐 놓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고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서 그 이야기들을 듣는다. 그것은 소중한 친구와 함께하는 너무도 즐거운 놀이이다.

**캐릭터 친구들 소환!**
**2025**
**종이에 펜화 드로잉**
**105×200cm**

이 작품은 사랑하는 캐릭터들과 상상 속 친구들을 한 화면으로 불러내며 만들어낸 거대한 놀이공간이다. 익숙한 듯 낯선 존재들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출몰하고 섞이며, 마치 여러 세계가 한순간에 겹쳐진 듯한 풍경을 만든다. 작가는 기억과 상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소환 방식'으로 캐릭터들을 재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원작보다 더 활기차고 개성적인 이미지들이 탄생한다.



## 납작한 세계에서 겹겹의 세계로 : 김동우 작가의 세계관 전환

전문가 비평

**양진호** 철학자,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김동우 작가가 일구어놓은 일련의 작품들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예컨대 다양한 종류의 공룡이나 바다 생물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등이 늘어서 있다. 관람자로서 작품들을 마주했을 때는 그 숙련된 솜씨에 놀라기도 했지만, 비평가로서 들여다 보니 조금은 다른 것이 눈에 띈다. 짧다면 짧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비약적 변화가 있다. 즉 화면 상의 개체들이 파편화되어 각각 고립된 채로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중첩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러한 전환은 이번 창작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작가의 시지각적-인지적 변화가 화폭에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겠다.

김동우의 공룡 작업은 커다란 화폭에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공룡들을 나열해 놓은 자신만의 도감(圖鑑)이기 때문에 배경도 없고 사건도 없는 완전한 아카이브로 존립한다. 이 도식적 구성은 머릿 속의 대상들을 시지각적으로 관찰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에 관해서 '자신이 아는'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지적 사실주의(Intellectual Realism)의 전형이다. 여기서 작가의 눈-손은 화면의 전반적 맥락보다는 대상의 세부에 집중하는 '약한 중앙응집성(WCC)'의 경향을 보이며 사물들이 평면적으로 균일하게 배치되는 질서정연한 화면 구성, 따라서 폐쇄적인 세계를 창조한다.

작가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협업자의 요청에 따라 바닷속 풍경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 개체들의 형상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 개체들의 앞뒤로 집이나 해구 같은 대상체들이 배치되면서 공간감이 발생한 것이다. 개체들은 배경이나 전경과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개체들 사이에도 서사 구조가 발생한다. 앞서 말한 '지적 사실주의'가 사물의 중첩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닷속 풍경에서 작가는 이러한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어 사물을 중첩시키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시각적 사실주의(visual realism)'로 건너간다.

작가가 협업자의 요청을 수긍하고 스스로 구성한 완전한 아카이브를 무너뜨리면서 대상들 사이의 관계성을 선택한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세계관의 전환이자 실천이다. '나에게 보이는 부분'과 '나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찰자의 시점으로 눈-손을 이동시킴으로써 개체들은 허공에 떠있지 않고 서사적 그룹을 형성한다. 이제 관람자는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리로 가는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

바닷속 풍경의 경우, 아직은 개체와 공간 사이나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갈등 국면이 연출되기도 한다(작품 오른쪽 면). 하지만 마지막 작품에서는 육지와 바다라는 상이한 장소가 연출되고 배경과 전경, 그 사이의 개체들이 작가의 지각-눈-손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도 없이 구현된다. 이전보다 그룹핑이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서사적 표현이 증대되었고 부분적으로 익살이 가미되었다. 작가의 그림은 더는 외롭지 않다. 되려 복닥거리고 시끄럽다.

몇 차례의 협업을 통해서 김동우 작가가 보여준 변화는 단순히 아르브뤼(Art Brut) 범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협업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스스로 변화를 감행하는 시도는 그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 이미 성장하고 있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제는 하나의 긴 서사를 여러 프레임에 나누어 이어보는 작업을 시도해 보아도 좋겠다. 이때도 역시 협업자의 역할은 필수적이겠다. '납작한 세계'에서 '겹겹의 세계'로 이행하는 김동우 작가의 여행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

## 멘토예술가의 말

**김신윤주**

김동우 작가가 거침없이 드로잉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언제나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화면에 펜이 닿는 순간부터 이미지는 멈춤 없이 쏟아져 나온다. 예고 없이 도래하는 표현의 변화와 확장은 그의 작업이 지닌 고유한 리듬이며, 이 자유로운 드로잉은 그의 세계가 우리 세계와 접속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그에게 그림 그리기는 사실, 2차원의 화면 위로 자신의 세계와 친구들을 불러내어 '신나게 놀기'인 듯 하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세계를 조형 언어로 구축한다'는 예술의 근본적인 원리로, 그렇게 낯선 성좌에 체류(dwell)한다. 그의 체류가 이어질수록 우리의 예술 생태계 또한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 박가연

저는 그림 그리기, 다양한 만들기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림도 다양하게 그리고,만들기 등
여러 장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바느질하는걸 좋아하는데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은 작품을 내가
관심있는 걸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된 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팔**
2025,
faux fur fabric, 실
약 60×15×5cm, 가변크기






**길고양이 다봉 봉봉 흑임자가 건네는 작은 힐링**
2025
스마트폰 촬영
단채널 디지털 비디오

이 작품은 고양이손 1, 2, 3, 4와 영상, 고양이 피규어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합쳐서 하나의 작품이다.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느끼는 따뜻한 행복감을 관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인터렉티브 작품이다. 관객들은 작가가 장착한 고양이 손 작품을 잡고서 작가가 돌보는 길고양이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며, 작가의 행복함을 함께 느끼고 나누게 된다.

## 온기 속에서 피어나는 소통과 치유 : 박가연의 고양이 프로젝트

전문가 비평

**양진호** 철학자,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박가연 작가는 가장 작고 낮고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자신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일대에서 만난 길고양이들에게 다봉, 봉봉, 흑임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 또는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선다. 박가연의 영상 작업 "길고양이 다봉, 봉봉, 흑임자가 건네는 작은 힐링"은 작가가 고양이들에게 제공하는 '밥(돌봄)'과 고양이들이 작가에게 전하는 '애교(치유)'가 순환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생태계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

이 지극히 사적인 순환을 어떻게 타인에게, 타인의 신체에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 박가연 작가는 가상현실과 물질-신체를 교차시키는 연결 통로를 찾아낸다. 그것은 자신이 촬영하고 편집한 고양이 영상을 가상현실(VR)로 보여주면서, '고양이 손'이라는 다른 감각적 물체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하이테크놀로지에 몰입하고 있는 동시대 미디어 반대로, 작가는 털 원단을 손수 바느질해 오브제를 만들고 그것을 관객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고자 한다. 관객이 VR을 통해 시각적으로 고양이의 세계에 접속해 있는 동안, 작가가 자신의 팔에 '고양이 손'을 끼고 관객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다—이는 들뢰즈(G. Deleuze)가 말한 '동물-되기'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작가와 관객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차이와 차별의 분별지를 내려놓은 채 '길고양이'라는 타자의 감각 안으로 공속한다.

이 공속감은 어떤 감염을 일으킨다. 작가가 고양이한테 느꼈던 부드러운 촉각과 그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이 '고양이 손'이라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관람객의 신체로 직접 옮겨지는, 기분 좋은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공감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그림을 공감해주었으면" 하는 작가의 진정성 어린 바람을 떠오르게 한다(작가 프로필). 작가가 바라는 "넓은 마음"이란 사회적 편견이나 규범적 판단을 유보하고(Epoche), 작가가 세상을 맞이하는—조금은 낮고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다른—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요청이 아닐까? "고양이VR+고양이 손" 작업은 이러한 공감 의지가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된 과정과 결과라고 하겠다.



박가연 작가는 웹툰과 일러스트 공모전 등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의 서사를 구축해왔고 고양이 주제의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길고양이 프로젝트에서는 평면조형이나 영상 작업에 더하여 AI를 활용한 작곡,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오브제까지 자신의 작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확장이 '낮은 시선'으로 '약한 신호'에 귀기울이는 작가의 따뜻한 인생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작가의 고양이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느껴졌던 온기가 관람객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리라 믿는다.

## 멘토예술가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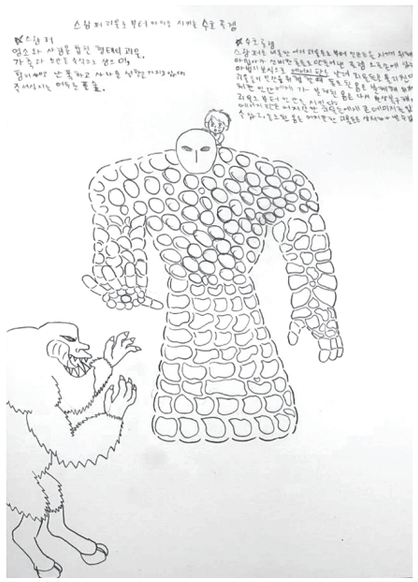
**김신윤주**

박가연 작가는 자신의 행복을 숨기지 않는다. 부드러운 페이크 퍼(fur) 천을 만지고, 바느질을 하며 고양이의 손과 팔을 만들어 가는 시간은 언제나 꼼꼼하면서도 활기차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돌보고, 그 감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이 기꺼운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작가가 돌보는 길고양이를 촬영한 영상과 고양이를 직접 만지는 경험을 주는 '촉감의 오브제'는 작가의 감정과 감각을 그대로 따라간다. 관객은 고양이의 손을 잡은 채로, 천연덕스럽게 뒹굴거리고 먹고 뛰어다니는 고양이의 세상을 경험하며 절로 웃음을 터트리게 될 것이다.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이나 해석이 아니라, 작가의 사랑이 건네는 행복의 감각이다. 박가연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작업으로 만들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데서 분명한 기쁨을 얻는다. 그 밝은 에너지는 작업 전체를 움직이는 힘으로 남아 있다.

# 손종빈

이음 창작자과정에서 저의 상상력을 점토로 구체화하며, 저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서사 있는 조형물 제작에 도전해 본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클레이로 괴수와 로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괴수영화를 보며, 거대한 존재가 도시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장면이 신비로웠고, 그 감정이 지금의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의 힘만으로 작은 조형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큰 스케일을 시도하며 도구를 익혀갔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저의 작업에는 항상 이야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괴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싸우고 협력하는지, 어떤 세계에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사를 상상하고 만듭니다. 최근에는 괴수뿐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와 만화적 요소도 실험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 합니다.
저는 꼼꼼하고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이 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대중성과 나만의 세계를 함께 유지하며, 계속 새로운 설정과 이야기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수호골렘**

**2025, 석고, 15×13×5cm**

외눈박이 거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골렘으로, 균형 잡힌 체형과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라기보다는 고대 마법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방어와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주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스왐퍼**

**2025, 석고, 14×12×4cm**

스왐퍼는 염소와 물소, 그리고 고릴라를 합친 것처럼 생긴 난폭한 괴물로, 주요 서식지는 숲속 동굴 안입니다. 주식은 숲속에 사는 야생동물과 가축들이지만, 먹이가 부족하다면 마을을 습격해 사람을 납치해 잡아먹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절대 마주치지 않아야 하는 괴물입니다.





## 전문가 비평

**박정환** 조각가, 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손종빈 작가는 평면표현의 웹툰을 주로 단색 연필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그려내는 작가이다. 대상들의 표현에서 하나하나 표정들이 매우 치밀하게 사실적이며 섬세하고, 각 대상 간에 만들어지는 형태감과 공간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상호관계를 드라마에서 대화를 나누듯 상상의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손종빈 작가가의 웹툰 드로잉은 이미 이 분야에 단연 돋보이는 영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이전의 에이블 아트페어에서 보여준 친근한 이미지의 선택과 유연한 색채표현 등은 다양한 전개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명의 장애 예술가는 프로그램에서 입체표현을 처음 경험하였고, 입체표현(modeling, carving, constructing)중 주로 소조표현(modeling)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사용한 소조표현 재료는 초보자들이 손쉽게 다루는 지점토, 유토, 아이클레이 등이었고, 작은 크기로 전개하였다. 사실 입체표현은 다양한 접근방법의 내용을 받쳐주는 적합한 시설공간과 전문적인 도구 및 재료 등이 상비되어야 하고, 축적된 예시내용과 절대적 시간이 확보되어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일반 실기실에서 제작한 것을 계속 옮기면서 작업해야 했기에, 다소 단발성 과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다양하고 깊은 체험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발달장애가 있는 예술가가 입체표현에서 처음 접하는 재료기법으로 각자 경험적 감각훈련의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멘토 예술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입체표현의 새로운 경험과 함께 각자의 작업을 다양한 표현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손종빈 작가는 평면과 입체작업에서 남다르게 뛰어난 감각적 이해로 자신의 웹툰같은 드로잉을 소조적 입체표현으로 손쉽게 이끌고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드로잉과 마찬가지로 매우 정교한 소조적 입체표현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표현에서 제한적 크기와 재료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로서 자신의 주제를 의욕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소조적 입체표현의 결과물과 함께 자신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영상제작을 전개하면서, 작가로서 다양한 미술장르와 융합표현의 발전 가능성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손종빈의 웹툰에서 돋보이는 연속적 공간 해석은 손종빈 작가가 입체 표현에서 다양한 재료기법으로 어디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지켜보고 싶은 욕심을 갖게 한다.

## 멘토예술가의 말

**나상세**

손종빈 작가는 손끝이 매우 섬세한 입체적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울로 잰 듯한 점토의 물성을 정교하게 좌우 대칭적 형태를 묘사하는데 그 결과물이 손바닥 크기로 제한적이다. 물론 평면 드로잉 능력도 탁월하다. 그는 주로 가소성 있는 점토를 활용하여 기존의 일반적 조소 작업의 덧붙이기나 깎기 방식과는 차별화된 점재 형태로 만들어 구축하는 기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숙련된 다양한 입체적 캐릭터들을 형상화 시키는 과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잠재적 능력은 앞으로 평면 드로잉과 입체적 표현을 바탕으로 서사적 줄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와의 확장성이 기대된다.

# 윤보민

펜을 쥐고 그림을 그릴 때 누구보다도 집중하는 작가는 통통 튀는 밝은 색감과 친근한 모습의 캐릭터로 관람객과 소통한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 '네모양이'에 작가 특유의 쾌활함과 솔직함을 담았다.

**네모양이는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2025**
**포맥스에 프린트(AI 생성 이미지)**
**각 70×90cm 이내**

네모양이는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관객이 솔직한 표정의 네모양이를 보고 떠오르는 상황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직접 비어있는 이야기를 채워가는 소통형 작품입니다.










**우리 같이 놀자**
**2025**
**포맥스에 프린트(AI 생성 이미지)**
**각 70×90cm 이내**

작가의 창작 캐릭터 '네모양이' 이모티콘이 생동감 있게 펼쳐진 공간입니다. "할 수 있다!", "행복해져라!"라고 외치는 캐릭터들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며, 입체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참 좋은 하루**
**2025**
**포맥스에 프린트**
**(AI 생성 이미지)**
**18×14cm**




**네모양이 이모티콘**
**2025**

## 전문가 비평

**박정환** 조각가, 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지적 장애를 가진 윤보민 작가는 단답형 대화로 소통이 가능하고, 노작의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표현도구를 사용해서 작업해본 경험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테블렛 그리기 도구를 활용하여 매우 익숙하게 평면표현의 웹툰을 표현하였다. 테블렛의 그리기 기능에서는 실제 그림을 그리는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 즉 선의 굵기와 변화, 색의 배색, 농담, 붓자국, 번짐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꽤 유쾌하고 즐겁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단순화하면서 손쉽게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윤보민 작가의 경우는 이 전자매체의 프로그램 기능의 도움으로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독창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작가는 3차원의 입체공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과거에 경험했던 2차원의 평면표현으로 인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3차원의 입체공간에서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전에 공간 자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충분한 소통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멘토 예술가가 "윤보민 자신의 창작활동에 행복감을 느끼는 기존의 웹툰 그리기"에서 다시 접근하게 하고, 연구원의 섬세한 소통과 도움으로 다양한 감정표현을 이끌어 내는 이모티콘 그리기로 현재의 작업을 즐겁게 펼칠 수 있었다. 윤보민 작가가의 이 작업이 최종 전시에서 적극적 설치방법의 전개를 통해 입체표현의 손쉬운 접근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표현의 확장과 입체에 관한 즐거운 경험을 유도할 것이라 기대한다.

## 멘토예술가의 말

### 나상세

윤보민 작가는 타블렛 그림판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지털 드로잉 캐릭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긍정 에너지와 행복감을 느끼는 작가다.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통해 다양한 감정적인 표정이 주는 직접적인 목소리, 즉 메시지로 소통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행복한 순수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다양한 캐릭터들의 표정과 포즈, 텍스트들은 자신만의 유희적 조형 요소가 된다. 그의 이모티콘은 더 많은 감정적 표현을 시각화하는 데 지금도 진화 중에 있다.

# 조유경

작가가 될 소망이나 희망도 없었던 나에게 꿈과 용기,
좌절하지 않는 인생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논개와 동조상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조소를 입체로 배우면서 유토와 석고로 뎃생 석고상도
모형을 만들었고, 여러가지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작품을 만들면서 회화에서 주로 색채미에 민감한 작품
들을 만들어온 내게는 유토가 좀 흥미롭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아이클레이로 논개 부조 시리즈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아이클레이의 부드럽고 밝고, 화려한
색색깔의 비단실크같은 아이클레이 찰흙을 만지면서
조선시대 복고풍의 논개의 한복을 디자인 했던 시간이
즐거웠다.



**인물두상(자소상)**
**2025**
**석고**
**20×13cm**




**논개story1-10**
**2025**
**종이에 색연필**
**27×40cm**

논개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작가의 상황에
대비시켜 꿈과 용기, 좌절하지 않는 인생의
열정을 자신의 모습에 투영하여 초상화
스토리 시리즈로 표현함.

## 전문가 비평

**박정환** 조각가, 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조유경 작가는 정신 장애를 지니고있지만, 많은 대화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미 평면회화에서 자기만의 스토리와 표현방법으로 색연필화를 다양하게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자기 주변에서 관심이 있거나 발견한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하고, 그 인물의 이목구비, 머리, 옷, 장식 등을 각각 다르게 선구성, 면구성, 색채표현, 이미지의 삽입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색연필화의 인물표현에서 매우 독특하고 독자적인 조유경 작가만의 색채표현과 이미지 표현을 연속적 스토리텔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조형언어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유경은 관객들의 공통된 관심 속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접근방법을 이미 체득하고, 하나의 주제에서 색연필화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자기만의 조형언어를 창조하고 있었다.

조유경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modeling의 입체표현을 처음 다루어보면서 입체와 그 재료를 다루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지만, 이미 평면회화에서 자기만의 조형언어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입체표현에서는 결정적 어려움과 조급함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이전 평면회화에서 느끼고 펼치고 있는 매우 은밀하고 섬세한 주제의 느낌을 입체표현으로 접근하기에 재료사용이 매우 거칠면서 다르기 때문이었다. 조유경은 아이클레이로 마치 기존의 평면회화에 기초하여 큰 덩어리 형태의 거친 부조표현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유경의 평면회화에서 독창적으로 형성되었던 색연필화의 섬세한 선과 면의 장식적 표현, 구성적 분할표현, 투명한 표현 등이 아이클레이의 몇 가지 색 찰흙으로 뭉개지고 연결되고 섞이고 펼쳐지면서, 촉감적인 색면효과의 추상적인 부조작업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에 필자와의 만남과 대화에서 그 부조작업을 벽에 걸어두는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조유경 작가의 눈과 머리는 작가로서 다시 번뜩이고 있었다. 그때, 이번 전시작품 중의 하나인 '논개 시리즈'의 스토리텔링을 생각해 내고, 평면회화와 부조표현을 연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각각 10개 정도의 연속적 변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개할 수 있었다. 조유경은 그동안 자신이 접근했던 자기만의 방식을 다른 재료기법으로 확장하고, 새롭게 촉감적으로 적응하면서 다른 감성을 찾은 것이다.



## 멘토예술가의 말

**나상세**

조유경 작가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인 과감한 면 분할과 색채의 대비적 표현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이음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입체 영역을 시도함으로써 과감한 매체 전환을 시도한 계기가 되었다. 점토의 덩어리들에서 작가의 손놀림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논개의 서사적 내용과 연결해 회화적 표현과 부조 또는 환조 표현으로 자신의 창작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 NEW WORLD
# 2025 <동경>




<뉴월드 2025 동경>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한양대학교가 운영한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전문예술교육)의 수료 전시이다. 이 전시는 '동경(憧憬)'이라는 용어로 집약될 수 있다. 경계를 넘는 거친 과정이었지만 NEW WORLD에 전시된 작품에는 근원적인 즐거움을 담고 있다. 동경(憧憬)의 두 글자가마음(忄)과 아이(童), 그리고 풍경(景)을 뜻하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이들의 시선에는 햇빛 아래 뛰어노는 아이와 같은 따뜻함이 배어있다. 하지만 작품의 이면에는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는 모두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온전히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또렷히  감각하고 경험했던 그것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 조형언어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장애예술가의 고군분투가 담겨져 있다. 또한 장애/비장애라는 다름으로 인해 어쩌면 넘을 수 없는 경계 너머 장애예술가의 시선을 끊임 없이 찾아 헤매는 멘토예술가의 지난한 탐구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무대 뒤에는 어쩌면 창작활동이 열어줄지도 모를 장애예술가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고 기다리는 보호자가 있다.



이러한 마음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지난 6개월의 시간은 단지 하나의 교육과정이 아닌 미지의 신세계를 찾아나선 모든 이의 여정이라 할 것이다. 이번 「New World」 전시에서는 그 여정의 흔적을 작품과 함께 놓아둠으로써 공동 창작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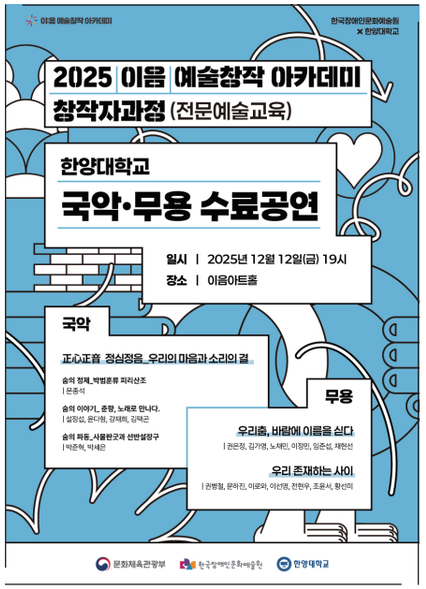
책임연구원 **김선아**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2024년의 신세계가 '발견'의 자리였다면, 2025년의 신세계는 그 발견을 바깥으로 밀어 올리는 '확장'의 단계에 놓였다. 신세계는 발견만으로 끝나는 장소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개념을 이해하고, 서로의 감각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예술가의 세계는 새로운 지도를 그린다. 이 반복되는 조정과 이동은 자연스럽게 신세계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NEW WORLD 2025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 확장의 바탕에는 언제나 '동경(憧憬)'이라는 움직임이 있다. 아직 닿지 않은 세계를 향해 바라보는 마음,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시선을 두게 되는 방향성은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예술가를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한다. NEW WORLD 2025는 발견을 지나 확장하여 나아가는 고요하고 강렬한 흐름 속에서 각 예술가가 다시 그린 세계의 선들을 보여주는 전시다. 동경(憧憬)의 방향을 따라 열린 이 신세계는 완성의 정착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가능성을 품은 다(多)방향의 과정이다.

이번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전문예술교육)' 미술분야에는 강산아, 김다호, 김상현, 김서연, 김성찬, 김수, 김채영, 김태민, 민소윤, 박관우, 박진한, 안석희. 연호석, 이시형, 이지현, 이현우, 정연우, 최석원이 참여했으며, 예술 현장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김도희, 김민이, 두민, 방의석, 서찬석, 성연진, 전진경 멘토 예술가와 매칭되어 약 6개월간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창작 작업을 했다. 또한 문학분야로 참여한 김은지, 김화연, 신나라, 여명지, 이현주의 문학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서로 다른 예술 언어들이 교차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시기획 **서찬석**

# 한양대학교
# 국악•무용 수료공연




이 무대는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전문예술교육)의 여정을 집약한 장면으로 펼쳐진다. 이 과정은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각자가 지닌 몸과 감각,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의 언어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이끈다. 오늘의 공연은 그 축적된 시간이 소리와 호흡,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정심정음〉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소리를 바르게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바른 소리는 정확한 기술이나 완결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에서 비롯되는 울림이다. 무대 위의 소리들은 각자의 신체 조건과 감각의 차이를 숨기지 않은 채, 음악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차이를 존중하는 창작'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공연은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풀어내며, 다시 파동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 고요하게 정제된 호흡은 내면을 향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삶의 기억과 감정은 소리의 서사로 번역된다. 마침내 서로 다른 결의 소리와 숨이 하나의 울림으로 만나며, 무대는 개인의 표현을 넘어 서로가 연결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언어를 발견하고, 전통과 동시대, 개인과 공동체를 잇는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오늘의 공연은 그 여정의 한 결과이자, 동시에 또 다른 출발점이다. 무대 위에서 태어난 질문과 울림은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각자의 작업과 삶 속에서 이어지며, 더 넓은 예술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무대는 완성된 답을 제시하기보다, 계속해서 질문을 남긴다. 바른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술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가 이어가고 있는 창작의 시간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공동연구원 **안성우**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이번 무대는 예술가 각자가 자신의 몸과 감각을 통해 세계와 다시 관계 맺는 과정으로 펼쳐진다. 무대 위의 움직임은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이 축적된 몸의 언어로 드러난다. 예술가들은 말 대신 움직임으로 응답하고, 설명 대신 호흡과 리듬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예술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통 방식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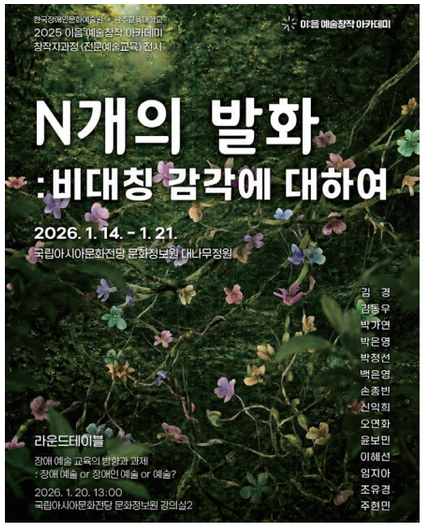
〈우리 춤, 바람에 이름을 싣다〉에서 부채는 단순한 소품을 넘어, 몸을 확장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의 움직임은 곧 몸의 연장이 되고, 그 움직임을 따라 각자의 이름과 이야기가 무대 위에 새겨진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움직임은 서로의 호흡과 시선을 만나 점차 확장되며, 개인의 몸은 타인과 관계 맺는 존재로 변화한다.

〈우리 존재하는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너 사이에 놓인 공간에 시선을 둔다. 무대 위에서 보이지 않던 경계가 천천히 드러나고, 다시 허물어진다. 서로 다른 몸들이 마주하는 순간, 차이는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된다. 그 움직임은 곧 이야기로 이어지고, 우리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지점을 함께 목격한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은 전통과 창작의 길 위에서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 세계와 대화하도록 이끈다. 이번 공연은 그 여정의 한 장면이자, 동시에 또 다른 출발점이다. 무대 위에서 시작된 질문과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과 작업으로 이어지며, 더 넓은 예술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무대는 예술가 각자의 이야기로 세상을 채워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그 시작을 지금 함께하고 있다.

공동연구원 **서연수**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N개의 발화
# : 비대칭 감각에 대하여




*비대칭의 굴곡에서, 그리고 명징한 빛이 아닌 중층의 그림자 속에서, 은폐되었던 어느 거대한 세계의 낯선 질감과 밀도가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리듬을 지닌 몸들이 불규칙하게 접속하는 순간들, 그 미지의 성좌가 이 전시라는 배치 안에서 역동적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배치하고, 작품과 작가 노트를 포함해 창작자들의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라는 시스템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어떠한 과정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형성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2025 광주교대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의 14명의 수료자들은 장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 작품을 보고, 작가노트를 읽고 전시장을 둘러보는 것 이상으로 14명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장치를 전시에서 시도하고자 하였다. 전시 오프닝에서부터 각 창작자의 작품 세계를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람자와 작가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작가의 드로잉 쇼를 기획하였고,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고, 창작 과정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였다. 수료 전시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광주의 중심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었지만, 대나무정원이라는 공간은 가능성과 동시에 그 한계 또한 보여준다. 광주에서 계속 이음 예술 창작 아카데미가 진행된다면, 이 가능성을 발판 삼아 지속적으로 장애 예술 교육의 경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주최, 한양대학교와의 컨소시엄으로 광주교육대학교가 운영한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전문예술교육)의 수료 전시는 <N개의 발화: 비대칭 감각에 대하여>라고 명명하였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기서 N은 수량이 아니라, 중심 없이 증식하고 연결되는 리좀(rhizome)적 다수성을 의미하며,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를 거부하는 14명의 신진 작가들의 '소수적 발화'의 생성 지점이 되고자 하였다. 다음의 전시기획자의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시는 대칭성의 신화가 어떻게 우리의 감각을 식민화했는지를 드러냅니다. 획일화된 세계가 놓치고 있는 존재의 다층적인 깊이를 미학적 층위에서 복원하여, 표준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감각의 좌표들을 다시 호명합니다. 완전함이 아닌 불완전함의 틈새에서, 매끄러운 대칭이 아닌 거친*

공동연구원 **최성희**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부록

**한양대학교**

| | |
|---|---|
| 교육과정 스케치 영상 | 교육자 인터뷰 영상 |
| 수료 공연(국악/무용) 영상 | 수료 전시 영상 |
| 미술 분야 작품 설명<br>(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자료) | 문학 분야 오디오북 음원 |

**광주교육대학교**

| | |
|---|---|
| 교육과정 스케치 영상 | 교육자 인터뷰 영상 |
| 수료 전시 영상 | 미술 분야 작품 설명<br>(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자료) |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6. 1.

**발행인** 방귀희

**발행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획/운영** 김선형 허유진 김수정 김가영

**공동기획/운영** 한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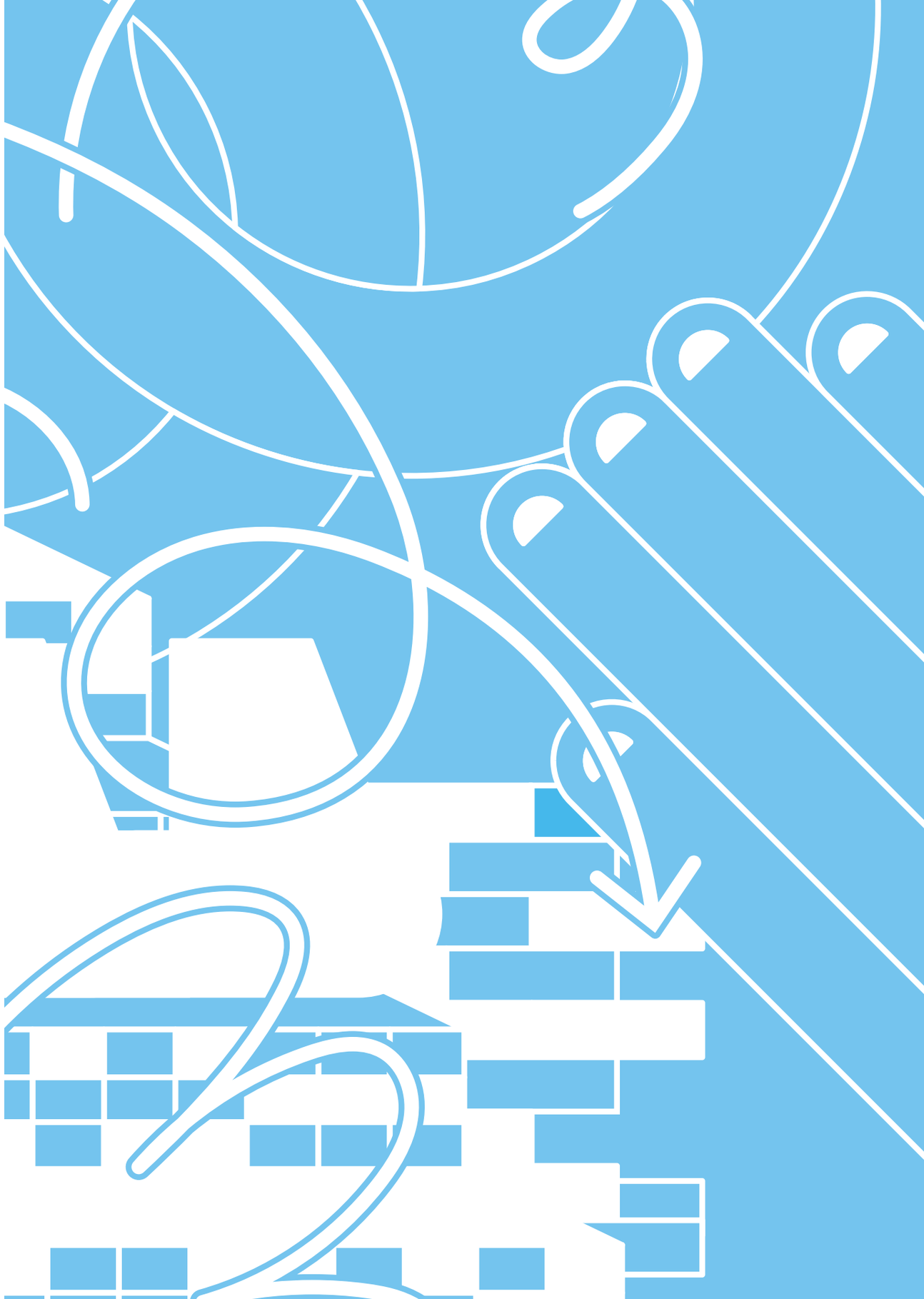
**디자인** 설하은

**편집** 유민희

**사진** 이슬비 명성호

**인쇄** 성은사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제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아: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4600
9 791199 117860
ISBN 979-11-991178-6-0
ISBN 979-11-991178-4-6 (세트)

문화체육관광부

